

연구보고(수시과제)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책임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건강,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 및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활용 욕구들을 조사하고, 더불어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서머타임제 도입 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바람직한 생활시간 조정 및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주요내용

- 서머타임제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시간활용은 성별, 지역별, 교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각 지역별, 교급별, 성별로 할당 표집하여 이 학교들로부터 총 1,017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동일 지역에서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50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건강과 생활시간 활용, 주된 여가시간 활동과 여가활동 만족도,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와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영향들, 일광시간 증가에 따라 선호하는 시간활용 및 활동들을 조사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도 생활시간을 포함하여 서머타임제에 따른 가족생활변화 여부와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 선호하는 시간활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항목에 대한 다양한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도 살펴보았음.

-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높았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결식하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음. 또한 수면시간도 전체적으로 적었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어, 서머타임제 시행 초기에 생리적인 적응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평일 방과 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즉 일몰시간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학교를 통한 학업으로 나타남. 또한 평일과 휴일의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주요활동의 1순위는 TV시청, 2순위는 음악 듣기나 컴퓨터 및 온라인게임이었고, 여가시간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62.3%)을 꼽았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라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66%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생활리듬에 영향을 주어서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4%,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42.7%, 서머타임제로 인해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는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응답했고,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43%에 달하였음.
-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로 예측되는 시간활용을 보면, ‘친구만나기’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게임·인터넷(48.8%), TV시청·DVD감상(47.3%), 문화·취미활동(38.2%), 실외활동(37.8%) 등의 순이었고, 선호하는 시간활용으로는 역시 ‘친구만나기’가 6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시청·DVD감상(55.4%), 게임·인터넷(55.2%), 문화·취미활동(55.1%) 등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80.6%는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서머타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8%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머타임제 도입 시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과 자녀의 생활 및 생활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66.2%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60.8%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과 33.2%가, 학생들의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5.3%로 나타남.
- 늘어나는 일광시간 동안 희망하는 가족들의 평일 시간활용으로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녀의 시간활용으로 희망하는 활동들을 보면, 평일은 자녀가 아동인 경우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음. 휴일에는 가족과 자녀 모두 운동·산책 등의 실외활동이나, 문화·취미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적 제언

-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만성적인 수면부족과 아침식사 결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서머타임제 시행 시 시차로 인해 건강상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아침식사 급식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서머타임제 시행을 기회로 수면습관 교정 및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가족, 학교, 사회의 인식전환과 다양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 패턴을 보면, 학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으며, 주어진 자유 시간에는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의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이 아닌 TV시청이나 게임 및 인터넷 등의 컴퓨터 사용이 대부분임. 따라서 서머타임제로 늘어난 일광시간을 아동·청소년의 건강 뿐 아니라 발달상에 유익한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서머타임제로 늘어나 일광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반 여건과 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먼저 아동·청소년, 특히 입시준비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여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개입전략 개발과 체계화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제도도 확대되어야 함.
- 또한 늘어난 일광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확충이 시급하며, 가족 단위 여가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제반 여건으로 집근처 근린공원 등으로 찾아가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의 선호하는 시간활용들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 부모학력별, 또 가정경제수준별로 차이를 나타낸 바, 이러한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근린 여가활동 인프라의 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비용 지원제도 시행, 실외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1) 문헌연구	5
2) 전문가 의견조사	5
3) 설문조사 실시	5
II. 서머타임제와 아동 청소년 생활시간	8
1.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8
1) 가족의 생활시간	8
2) 서머타임제와 가족의 생활시간	16
2.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8
1)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과 건강	18
2)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여가활동	21
III. 서머타임제에 대한 아동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및 욕구조사	28
1. 조사개요	28
1) 조사내용	28
2) 조사방법	31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2.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36
1) 건강과 생활시간	36
2) 여가시간활용	50
3)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55

4) 일광시간증가에 따라 예측되는 시간 활용	68
5) 희망하는 시간활용	73
3. 학부모 조사결과	82
1) 생활시간과 건강	82
2)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86
3)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자녀의 생활 및 생활시간 변화	88
4) 희망하는 시간 활용	92
 IV.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 적응 및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방안	101
1. 조사결과 요약	101
1)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요약	101
2) 학부모 조사결과	105
2. 논의 및 정책 제안	108
1)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제 적응과 생활시간 조정	108
2)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여가시간 활용 방안	116
참고문헌	128
부 록 1. 아동 청소년용 설문지	134
부 록 2.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표	147

표목차

<표 II-1-1> 서머타임제 도입 후 여가 전망: 성별 비교	11
<표 II-1-2> 20세 이상 여성들의 오전 시간대 활동: 취업 여부에 따른 비교	13
<표 II-1-3> 20세 이상 여성들의 오후 시간대 활동: 취업 여부에 따른 비교	13
<표 II-1-4>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재택 비율	15
<표 II-2-1> 청소년(10-19세)의 평일 저녁시간 사용 양태	24
<표 III-1-1> 아동·청소년의 설문조사 내용	29
<표 III-1-2>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30
<표 III-1-3>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지역별 특성	32
<표 III-1-4>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33
<표 III-1-5>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한달 평균 용돈	34
<표 III-1-6> 조사대상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35
<표 III-2-1> 아침식사 여부	37
<표 III-2-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38
<표 III-2-3> 평균 수면시간 및 등교·귀가시간 개요	40
<표 III-2-4> 평일 기상시간 평균비교	40
<표 III-2-5> 평일 취침시간	41
<표 III-2-6> 평일 수면시간 평균비교	42
<표 III-2-7> 휴일 수면시간 평균비교	43
<표 III-2-8> 평일 등교시간 평균비교	44
<표 III-2-9> 귀가 시간	44
<표 III-2-10> 평일 방과 후 시간대별 주요 활동 (복수응답)	45
<표 III-2-11> 평일 오후5시 시간사용	46
<표 III-2-12> 평일 오후6시 시간사용	46
<표 III-2-13> 평일 오후7시 시간사용	47

<표 III-2-14> 휴일(토/일/공휴일) 방과 후 시간대별 주요 활동 (복수응답)	48
<표 III-2-15> 휴일 오후5시 시간사용	49
<표 III-2-16> 휴일 오후6시 시간사용	49
<표 III-2-17> 휴일 오후7시 시간사용	49
<표 III-2-18>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주요 활동	50
<표 III-2-19>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1
<표 III-2-20> 여가생활 만족도	52
<표 III-2-21>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54
<표 III-2-22> 서머타임제 인지여부	55
<표 III-2-23> 서머타임제 인지경로	55
<표 III-2-24>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56
<표 III-2-25>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57
<표 III-2-26>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58
<표 III-2-27>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적응의 어려움	59
<표 III-2-28>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에너지 절약	60
<표 III-2-29>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야간범죄 피해감소	61
<표 III-2-30>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수면시간의 감소	62
<표 III-2-3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63
<표 III-2-32>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로시간 증가	64
<표 III-2-33>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실외·여가활동 증가	65
<표 III-2-34>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원·독서실 시간 증가	66
<표 III-2-35>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유흥시설 시간 증가	66
<표 III-2-36> 서머타임제 적용 후 생활의 변화의 각 항목별 상관관계	67
<표 III-2-37>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가족과 보내는 시간	69
<표 III-2-3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학원·과외수업·독서관·독서실	70
<표 III-2-3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TV시청·DVD감상·게임·인터넷	71
<표 III-2-40>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실외활동·문화·취미활동	72
<표 III-2-41>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친구 만나기	72

<표 III-2-42>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가족과 보내는 시간	74
<표 III-2-43>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학원·과외 수업	75
<표 III-2-44>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도서관·독서실	75
<표 III-2-45>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TV시청·DVD감상·게임·인터넷	76
<표 III-2-46>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실외활동	76
<표 III-2-47>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문화·취미활동	77
<표 III-2-4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친구 만나기	78
<표 III-2-4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선호하는 시간활용의 각 항목별 상관관계	79
<표 III-2-50>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81
<표 III-2-51>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	81
<표 III-3-1> 평균 수면 및 기상·취침시간	82
<표 III-3-2> 평일 총 수면시간 평균비교	83
<표 III-3-3> 평일 기상시간 평균비교	84
<표 III-3-4> 평일 취침시간 평균비교	82
<표 III-3-5> 아침식사 여부	83
<표 III-3-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86
<표 III-3-7> 서머타임제 인지도 여부	87
<표 III-3-8> 서머타임제 인지경로	87
<표 III-3-9>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87
<표 III-3-10>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88
<표 III-3-1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88
<표 III-3-12>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90
<표 III-3-13> 서머타임제로 인한 가족과 자녀의 생활의 변화	90
<표 III-3-14> 서머타임제로 인한 자녀생활과 생활시간의 변화	91
<표 III-3-15>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92
<표 III-3-16> 휴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94
<표 III-3-17>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95

<표 III-3-18>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변인별 비교	96
<표 III-3-19>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98
<표 III-3-20>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	99

그림 목차

[그림 Ⅲ-2-1] 아침식사 여부	36
[그림 Ⅲ-2-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38
[그림 Ⅲ-2-3] 기상·취침시간 및 평균 수면시간	39
[그림 Ⅲ-2-4] 지역에 따른 평일 취침시간 평균비교	41
[그림 Ⅲ-2-5] 지역에 따른 평일 수면시간 평균비교	42
[그림 Ⅲ-2-6] 평균 등교·귀가시간	43
[그림 Ⅲ-2-7] 여가생활 만족도	52
[그림 Ⅲ-2-8]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53
[그림 Ⅲ-2-9]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56
[그림 Ⅲ-2-10]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57
[그림 Ⅲ-2-1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58
[그림 Ⅲ-2-12]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적응의 어려움	59
[그림 Ⅲ-2-13]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야간범죄 피해감소	61
[그림 Ⅲ-2-14]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62
[그림 Ⅲ-2-15]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로시간 증가	63
[그림 Ⅲ-2-16]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실외·여가활동 증가	64
[그림 Ⅲ-2-17]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원·독서실 시간 증가	65
[그림 Ⅲ-2-1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예측되는 시간활용	68
[그림 Ⅲ-2-1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도	73
[그림 Ⅲ-2-20] 경제수준에 따른 실외활동시간 선호도	77
[그림 Ⅲ-2-21]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취미활동시간 선호도	77
[그림 Ⅲ-2-22]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80
[그림 Ⅲ-3-1] 자녀교급에 따른 평균 수면시간 및 기상·취침 시간	82
[그림 Ⅲ-3-2] 가구소득에 따른 아침식사 여부	86
[그림 Ⅲ-3-3]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89

[그림 Ⅲ-3-4]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92
[그림 Ⅲ-3-5]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가구소득별 비교	93
[그림 Ⅲ-3-6] 휴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가구소득별 비교	94
[그림 Ⅲ-3-7]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자녀교급별 비교	96
[그림 Ⅲ-3-8] 휴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가구소득별 비교	97
[그림 Ⅲ-3-9] 아침급식 필요 및 점심식사시간 조정 필요 여부	9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머타임(Summer time 또는 Daylight Saving Time)제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낮의 길이가 긴 하절기에 시계를 1시간 앞당겨 일광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세기 초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서머타임제는 현재 세계 77개국, 특히 OECD 가입 30개국 중 27개국에서 시행중으로, 이들 OECD 가입국 중에서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¹⁾가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에는 1948년을 시작으로 1955년부터 1960년까지 6년간, 1987년부터 1988년 2년간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효과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 무엇보다 서머타임제 도입의 본질적 목적으로서 전력사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는데, 삼성경제연구소(2009)의 최근 연구는 일광시간 증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수요를 감소시켜 실제로 총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로 관광, 쇼핑, 레저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성근 외, 2006; 이정일 외, 2009).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비경제적인 분야의 기대효과로는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저녁시간대 안전수준 향상, 저녁/밤시간 범죄감소,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들 수 있다(이성근 외, 2006). 특히 서머타임제가 가족건강과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실태조사(2005)

1) 아이슬랜드는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을 도입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시행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가 착수되는 시점인 2009년 11월에는 2010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국민여론들을 더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과, 과반수 정도의 가족들이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저녁시간에는 TV를 시청하는 등 ‘수동적 여가시간’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머타임제를 통해 확보된 일광 시간을 가족 간 활동적인 여가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이성근 외, 2006).

더불어 서머타임제 도입은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광시간 증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진미정, 2009).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국제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시간과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김기현 외, 2009). 또한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청소년들은 저녁 9시까지의 학습의 비율이 가장 높고(30% 내외), 다음으로는 TV(8%~13%), 컴퓨터 게임(9%~12%)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 비율이 높으며, 실외활동은 1.5~2% 내외의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5). 이러한 현실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증가된 일광시간은 아동·청소년들의 실외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이러한 실외활동은 단순히 스포츠 활동 뿐 아니라 문화취미활동, 체험학습활동 등의 적극적인 청소년활동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뿐 아니라 건강한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서머타임제 도입은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이나 사교육의 증가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김태홍, 2009; 최은진, 2009). 많은 일선학교에서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영교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한 시간을 더 일찍 기상하고 등교하는 것은 수면시간과 아침결식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생활 및 신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고, 또 늦게 취침하는 수

면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침식사 결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기현 외, 2009; 김영지·김희진, 2008; 모상현·김희진, 2009), 서머타임제 도입 시 아동·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의 학업, 학원수업과 컴퓨터게임 등이 아동·청소년들의 수면부족과도 관련 있다고 할 때, 서머타임제 도입 시 이러한 주변 환경이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수면패턴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광시간 증가에 따라 일몰시간이 현재 8시경에서 9시경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야간시간 범죄감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서머타임제 도입이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머타임제의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에너지 절약과 근무시간 감소 등에 대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뿐 아니라 연구가 이미 되어 있으나 [예, 에너지경제연구원(2006)의 “서머타임제 시행과 에너지 절약 효과”] 서머타임제 도입이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과 건강, 더 나아가 가족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탐색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수면시간을 포함한 건강 측면, 그리고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과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활용 욕구들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가족 중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생활시간과, 서머타임제 도입과 이에 따른 가족생활변화에 대한 인식들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서머타임제 도입 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서머타임제 도입과 일광시간 증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바람직한 생활시간 조정 및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첫째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생활시간, 여가시간활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침식사 결식빈도와 이유, 기상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 취침시간, 수면시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또한 일반적인 방과 후 시간인 오후 5시 이후 시간대별로 생활영역별 시간사용(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과외시간, TV시청시간, 컴퓨터 이용시간, 스포츠·기타 여가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머타임제로 늘어난 일광시간을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된 여가시간 활동과 여가활동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서머타임제에 대한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함께,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광시간 증가에 따라 학원·과외시간이 증가하리라 생각하는지, 범죄피해로부터 더 안전해지리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늘어난 일광시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증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제반조건이 필요하므로,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선호하는 시간활용(다양한 야외활동을 포함하는)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성별과 교급(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그리고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 생활수준, 학업수준과 부모학력 및 직업유무 등과 같은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제 적응과 시간활용 및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 중 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함께 조사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들의 수면시간을 포함한 건강 측면, 그리고 학업을 포함한 생활시간 사용 등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보다 시간을 압

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머타임제가 이들 취업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예를 들면, 수면시간 부족, 혹은 늦은 일몰시간으로 인한 가족여가시간 증대)은 자녀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서머타임제에 대한 의식과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학교급, 어머니의 학력과 평균 가구소득 등의 배경변인별 차이도 살펴보았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서머타임제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생활시간 및 서머타임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을 검토하였고, 또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함께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과 건강, 학습, 여가활동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생활시간과 건강, 그리고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과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일광시간 증가에 따라 선호하는 시간활용 및 활동들에 대한 조사문항 개발과 정책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스포츠청소년지도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다.

3) 설문조사 실시

서머타임제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와 시간활용은 대도시 및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고르게 표집하여 총 35개교에서 1,017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 자녀와 가족에 미칠 영향 및 일광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50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용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설문지는 청소년용 설문지의 문구와 단어를 좀 더 쉽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9년 12월 첫 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Ⅱ. 서머타임제와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1.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2.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II. 서머타임제와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1.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1) 가족의 생활시간

생활시간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대 및 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량을 의미한다. 생활시간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며 생활세계를 구성해 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이다. 사람들은 주어진 질서와 구조를 따라 일상생활을 반복하는데, 생물학적인 시간표와 사회적인 시간표가 이러한 질서와 구조를 제공한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우리는 수면, 식사, 휴식 등의 행동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대와 시간량은 대체로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따른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일, 학습, 이동, 교제 등의 행동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시간대와 시간량은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성별, 연령, 취업여부, 직업 유형, 거주 지역(도시 혹은 농촌) 등의 변수에 따라 사회적 시간표의 구조 방식이 달라진다.

서머타임은 생물학적인 시간표와 사회적인 시간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일조시간에 따라 적응하는 생체 변화를 이용하여, 하절기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 아침 일광시간을 줄이고, 저녁 일광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일광절약시간(daylight saving time)이라고도 한다. 서머타임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시간표가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시간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동안 생활시간 연구는 사람들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생물학적, 사회적 시간표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였고,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생활양식과 세계를 파악하는데 기여

하였다. 생활시간 연구는 무보수 가계노동시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국민 총생산의 구조와 규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력 활용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사회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보건, 가족생활, 사회적 교제, 여가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손애리, 2000)³⁾.

서머타임제가 도입되었을 때 가족생활,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양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의 생활시간 양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5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새롭게 정의되고, 주말의 생활시간 양태와 주말의 여가활동 양태가 변화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주간과 야간의 경계가 새롭게 정의되고, 평일 야간시간대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와 여가활동 양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머타임제로 인해 주말이 아닌 평일의 생활리듬이 재구조화되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머타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생활시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61시간이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주당 54시간 이상을 일한다. 최근 연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근로시간이 길다. 성인들이 일 중심의 생활시간을 보낸다면, 아동·청소년들은 학습 중심의 생활시간을 보낸다. 우리나라

3)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1999년에 국민생활시간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조사는 전국의 10세 이상 국민 32,000명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 2일에 대한 생활시간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15-24세 학생들의 평일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5시간 전후인 외국학생들에 비해 2시간 이상 길다(김기현 외, 2009).

이렇게 일과 학습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생리적 활동, 여가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가처분시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생활시간이나 여가생활시간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이나 아동·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나 사회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여가 시간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여가가 소극적인 실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2008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대체로 실내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유년기나 청년기에는 컴퓨터 게임, TV시청이 가장 흔한 활동이고, 노년기에는 TV시청이 가장 흔한 활동이다. 성인기에만 TV시청 외에도 영화 관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으로 언급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고선주 외, 2006)의 결과를 보면, 평일 저녁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시청(27.8%)이나 가사활동(31.2%)이다. 대체로 집에서 휴식을 겸하여 TV를 시청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은 보다 적극적인 유형의 여가활동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은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원하는 여가활동과 실제 여가활동 사이의 간극은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으로 표현된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가를 살펴보면,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에 따르면, <표 II-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동·산책 등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쇼핑, 영화·연극 관람 등의 문화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전망에는 남녀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운동·산책·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여성은 약 73%인 것에 비해, 남성은 62%인 것을 보아 평소 야외활동의 기회나 시간이 여성들에게 더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지금보다 야외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야간 시간대의 활동에 제약을 좀 더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서머타임제의 안전 효과를 질문하였을 때, 일광시간이 길어지므로 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여성들이 약간 더 높았다(여성 45.5%, 남성 43.6%). 서머타임제 도입 후 여가활동에 대한 전망은 사람들이 평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와 여가생활에 대한 장애(안전문제 등) 등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1> 서머타임제 도입 후 여가 전망: 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여성	남성
가족 친교	34.2	33.2
영화 연극	36.1	32.7
자원 봉사	13.1	11.3
종교 활동	14.4	8.8
쇼핑	41.3	36.1
운동 산책	58.7	53.5
스포츠관람	24.8	36.3
외식 회식	31.5	34.5
교육	13.1	11.3
야외 활동	14.4	8.8

출처: 서머타임 도입 효과 보고서(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서머타임제가 여가활동과 가족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에 사용된 시간량과, 활동에 대한 욕구 분석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는

각 활동별로 사용한 시간량 뿐 아니라 각 시간대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10분대별로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각 시간대별로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어떤 활동(예를 들어, 출퇴근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다.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진미정(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표 II-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볼 때, 취업여성 중 집에서 개인유지(수면 포함), 가정관리, 가족 돌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약 55.7%, 이동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35.7%이다.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 중 개인위생관리, 가정관리, 가족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74.7%이고,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19.1%, 그 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5.8%이다.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대체로 오전 7시 가량에 기상하여 8시까지는 개인 유지 활동이나 가사 활동이 지속된다.⁴⁾ 오전 8시가 지나면 취업여성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고, 비취업 여성에게는 여가나 휴식활동이 시작된다. 여성들에게는 기상 시간부터 오전 8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저녁시간에도 대체로 8시까지는 직장에서의 일이나 가사활동이 주를 차지하고, 본격적인 휴식과 여가활동은 8시 이후에야 시작된다. <표 II-1-3>을 보면 취업한 여성의 경우에는 저녁 8시에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28.4%인 반면, 8시 반에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40.6%이다.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조금 더 일찍 여가와 휴식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녁 7시 반에 여가와 휴식활동을 하는 사람이 32.7%, 8시에 여가와 휴식활동을 하는 사람이 43.1%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대가 30분 단위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패턴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성들이 오전과 오후 시간을 보내는 양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제공된다.

4) 2004년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로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일 평균 기상시간은 오전 6시 53분이며, 취침시간은 23시 38분으로 나타났는데, 비농가의 국민들이 농가의 국민들보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모두 약간 늦다(김현진, 2009).

<표 II-1-2> 20세 이상 여성들의 오전 시간대 활동: 취업 여부에 따른 비교
(단위 : %)

시간		6:00	6:30	7:00	7:30	8:00	8:30	9:00
취업	개인유지	71.2	58.8	50.6	42.9	33.6	23.4	19.1
	일	5.6	7.9	9.2	11.9	17.3	29.0	43.1
	가정관리	12.4	20.6	22.6	21.6	16.0	14.8	10.6
	가족돌봄	1.3	2.4	4.6	6.1	6.1	3.3	2.0
	여가활동	5.8	6.4	6.4	5.9	8.3	11.2	12.5
	이동	3.6	3.8	6.8	11.5	18.4	17.8	11.9
비취업	개인유지	71.9	56.1	45.0	40.2	36.0	26.3	21.9
	일	0.6	1.2	1.3	1.3	1.1	1.1	1.4
	가정관리	11.3	21.7	29.0	30.1	25.8	27.6	25.6
	가족돌봄	2.3	4.1	7.4	10.7	12.9	10.8	7.8
	여가활동	11.8	15.4	15.3	14.9	19.1	27.1	32.4
	이동	2.1	1.4	1.7	2.4	4.7	6.2	8.6

출처: 통계청 2004 국민생활시간조사-진미정(2009) 재인용

<표 II-1-3> 20세 이상 여성들의 오후 시간대 활동: 취업 여부에 따른 비교
(단위 : %)

시간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취업	개인유지	13.4	16.0	23.6	22.9	21.6	16.5	17.6
	일	35.7	30.7	21.9	20.3	17.7	16.3	13.5
	가정관리	17.2	20.4	20.4	21.2	17.2	13.6	12.9
	가족돌봄	1.7	2.2	1.9	2.4	3.0	3.3	4.1
	여가활동	11.6	13.5	14.9	20.1	28.4	40.6	40.2
	이동	18.9	15.6	15.2	10.9	9.8	7.0	8.8
비취업	개인유지	14.8	20.1	30.9	26.5	20.3	14.1	17.4
	일	1.5	0.9	0.4	0.4	0.1	0.2	0.1
	가정관리	37.0	36.2	28.1	26.8	20.9	13.9	12.1
	가족돌봄	7.1	7.0	5.9	6.4	7.3	7.4	9.2
	여가활동	26.1	26.0	25.4	32.7	43.1	57.5	52.3
	이동	10.4	6.5	6.5	4.5	4.6	3.4	4.4

출처: 통계청 2004 국민생활시간조사-진미정(2009) 재인용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서머타임제가 도입될 경우 그 시간대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대는 오전 7시이며, 오전 8시에는 약 60-70%의 여성들이 일, 이동, 가사 등의 활동을 한다. 취업여성들은 오전시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사용한다. 오전 8시의 활동을 비교해보면, 취업여성의 35.7%는 이미 이동이나 일을 하고 있고, 개인유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33.6%이다. 비취업 여성은 이 시간대에 개인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36%,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을 하는 사람이 38.7%,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19.1%이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어 기상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진다면, 오전 시간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출근, 등교 준비를 돕는 여성들, 특히 취업여성들의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여성들은 기상시간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을 매우 압축적으로 활용하는데,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시간대의 전환에 생리적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오전 시간 사용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직장일이나 집안일이 끝나고 개인적인 여가나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은 저녁 8시 이후이다. 이 때는 하절기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가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휴식이나 여가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은 독서, TV, 컴퓨터 게임, 인터넷 활용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다. 2004년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녁 6시에 재택비율은 약 40%이고, 8시 재택 비율은 57%이며, 9시 재택 비율은 64%이다(진미정, 2009). 대체로 50% 이상의 사람들이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된다면 일광시간이 증가하여 8시에도 해가 지지 않으므로, 실내 활동이 아닌 실외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책, 가벼운 운동, 자전거타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여가활동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의 안전 문제에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광시간이 증가할 경우,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활동 기회와 참여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머타임제

가 도입될 경우 원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실외 활동을 더 하겠다고 한 것을 미루어볼 때 서머타임제가 남성보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1-4>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재택 비율

(단위 : %)

시간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재택 비율	40.5	44.2	49.5	53.3	57.1	60.6	64.3

출처: 통계청 2004 국민생활시간조사-진미정(2009) 재인용

일과 학습 중심으로 구조화된 생활시간은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 실태조사와 2006년 전국가족실태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윤소영(2009)에 따르면, 전국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하루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며,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41.4%에 불과하다. 서울시 가족실태조사(고선주 외, 2006)에서도 평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라고 한 경우가 27.8%였으며, 30분 미만이라고 한 경우도 약 17.1%였다. 1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자료를 보아도,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7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9분에 불과하다(통계청, 2004). 식사, 여가, 휴식 등을 공유하면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서머타임제의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평일의 일광시간이 늘어나면 여가, 가족여가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이나 여가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가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수준과 객관적인 생활수준은 그 사회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반영한다. 개인적 삶의 질이나 공동체적 사회의 질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바로 가족이다. 김승권(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가족생활과 가족건강, 본인의 자아존중감 및 가치관, 건강 등에 의하여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21개 행복지표 중에서 ‘현재의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 지표와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였다. 또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들도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는 비록 개별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행복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서머타임제와 가족의 생활시간

가족시간과 여가는 건강한 가족을 위해 필수적이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간의 원만한 유대와 결속, 긍정적인 의사소통, 신뢰감, 공통의 가치와 규칙, 가족활동에의 시간 투자, 가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루어지며(유영주, 1997),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활동과 시간은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한다.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낼 때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아지고,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가질 때 가족들 사이의 건강성과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장호중·김정묵, 2009; 천혜정, 2004).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의 건강성과 유대감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자녀들의 발달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행동이나 부적응행동이 감소하고(남재화·최미란, 2007; 문숙재 외, 2005; CASA report, Robertson, 1999), 인터넷 중독 등의 청소년 문제가 완화된다(이기봉 외, 2009). 또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가 많은 가정의 자녀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고, 학업성취 수준이 더 높으며, 약물중독 수준도 더 낮다(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2003, 2009). 가족식사는 규칙적인 가족생활, 가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친밀한 가족관계 등을 상징하며,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제약이다. 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은 시간 부족, 육체적 피로, 취향의 차이, 정보 및 시설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 부족이다(이기봉 외, 2009). 앞서 지적했듯이 일과 학습이 우선시되는 생활에서는 가족시간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아버지들의 가족생활 참여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과 활동을 통해서 유대와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때,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형성의 기회가 생애 초기부터 차단되는 것과 같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15세-24세의 청소년들 중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와 의논한다고 한 비율은 3.4%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08).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의논하는 비율이 단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정서적 단절을 나타낸다. 생애 초기부터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형성되어 왔어야 하는 유대와 신뢰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 보다는 서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것이다.

서머타임제의 도입이 가족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간제도와 관련하여 주5일제(주40시간 근무제도) 도입이 가족 여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 대체로 여가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고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서머타임제 역시 일광시간을 증가시켜 가족여가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서머타임제가 도입될 때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친교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성의 34.2%와 남성의 33.2%가 가족 친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전망 역시 평소의 가족 친교 시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평소 가족여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이 가족의 화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기봉 외, 2009).

그러나 서머타임제의 도입 그 자체가 가족시간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광시간이 증가한 저녁 시간대에 가족들이 각자 개별적인 여가나 휴식활동을 한다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광시간의 증가가 가족시간과 여가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홍보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취향과 욕구를 가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서머타임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2.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과 건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 인지적 활동, 수면, 휴식, 식사 등의 생리적 활동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이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인지적 활동, 즉 학교 내외에서의 학습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신체적 활동과 생리적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년들이 하루 일과를 일본, 미국, 유럽의 아동·청소년들의 일과와 비교해 본 국제비교연구(김기현 외, 2009)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유럽이나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15-24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4시간 55분인데 이는 미국의 청소년보다는 하루 평균 2시간 5분이 많고, 영국의 청소년보다는 4시간 5분이나 많은 것이다. 이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2-18세 청소년들만 보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이 넘고, 고3(18세)의 경우에는 하루 11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면시간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청소년들에 비해 하루 평균 1시간 정도가 짧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데, 영유아기는 하루 평균 16시간, 소아기는 10-11시간, 청소년기에도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양광익, 2009).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청소년들만 수면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일에는 평균 6시 53분에 기상하고 11시 38분에 취침하여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채 되지 못한다(김현진, 2009).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늦게 자는 국민이며, 일본, 인도와 함께 3대 수면 부족 국가에 속한다(양광익, 2009).

영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충분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신체적 성장·발달과 관련하여 강조되는 것에 비해 청소년기의 수면의 중요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함과 같은 증상 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기억력 및 주의력 집중 등 인지활동이 저해되며, 스트레스나 정서 조절 능력도 원만하게 발휘되지 못하여 학업 수행에 방해요인이 된다(Dahl, 1999).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낮아지거나 수면 주기가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 패턴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adeh, Dahl, Shahrar, & Rosenblatstein, 2009).

청소년기의 식생활 역시 신체·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균

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식사 후의 오랜 시간 공복으로 낮아진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의 인지 능력과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운재·윤지현·심재은, 2009; 이보숙·양일선, 2006). 아침식사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식습관이 향상되고,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 비해 평균 학업성적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은 아침식사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학업 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보숙·양일선, 2006; 최정숙 외,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의 결식률보다 높으며,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16.7%로, 1~2%대인 점심이나 저녁 결식률보다 높으며, 13-19세 청소년들의 결식률은 23%에 달한다(여운재 외, 2009). 청소년기 중에서도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높으며, 아침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도 부족한 편이다(모상현·김희진, 2009). 이렇게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이 높은 것은 바쁜 아침 일정과 시간 부족, 습관성 결식, 입맛 없음 때문이다. 학업으로 인한 늦은 취침, 어머니들의 취업으로 인한 아침 준비 시간의 부족 등이 청소년과 가족들의 아침 결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때, 앞으로 청소년기의 아침결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가진 외, 2009).

서머타임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소년들의 수면이나 아침식사와 같은 생리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머타임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독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봄 서머타임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에 조사에 참여한 독일 청소년들 469명 중 높은 학급의 학생들과 저녁형 학생들은 수면 장애(졸림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은 서머타임 실시 후 3주까지 지속되었다(Schneider & Randler, 2009, 양광익, 2009에서 재인용). 대체

로 주간 졸림증은 시간이 지나가면 완화되며, 이러한 졸림증이 좀 더 심각한 다른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와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나 성인을 대상으로나 보고된 바가 없다(양광익, 2009).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머타임제의 도입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생활리듬에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서머타임제 도입이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아침식사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등교시간과 아침 결식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이보숙·양일선, 2009). 등교시간이 더 빠르다고 해서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등교시간이 늦춰진다고 해서 아침을 먹지 않던 청소년들이 먹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어머니들의 아침 시간이 바빠지면, 식사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시간 사용 양태가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시차에 적응하는 초기 단계에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당사자나 아침식사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여가활동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습활동이다. 학습 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평일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40분 이내이다. 더욱 심각한 측면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최근까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자료를 분석한 진미정(2007)에 따르면, 주중에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은 1999년에 초등학생이 58분, 중학생이 38분, 고등학생이 28분이었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각각 41분, 28분,

17분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이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시기이고,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시간 연구 자료를 보면, 주중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과 주말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량에 차이가 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1999년에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1시간 9분, 중학생이 55분, 고등학생이 43분이었고, 2004년에는 각각 1시간 10분, 중학생이 57분, 고등학생이 43분을 가족과의 교제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진미정, 2007).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말 동안 가족시간의 행위자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주중 평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서 시간량이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최근에 더욱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진미정(2007)에 따르면, 평일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999년에 초등학생이 4시간 25분, 중학생이 5시간 42분, 고등학생이 7시간 20분이었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초등학생이 4시간 54분, 중학생이 6시간 9분, 고등학생이 8시간 48분으로 증가하였다. 평일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5년 사이에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29분, 중학생이 27분, 고등학생이 1시간 28분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두 증가하였지만 증가 폭은 고등학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수업 외 학원 등에서 강습을 받는 비율과 시간량을 1999년과 2004년 자료로 비교해 본 결과, 학원 강습을 받은 비율, 즉 행위자 비율은 1999년에 초등학생 47.4%, 중학생이 39.5%, 고등학생이 21.4%였으며, 강습 받은 시간은 각각 46분, 50분, 25분이었다. 이에 비해 2004년에는 강습을 받은 비율이 초등학생이 75.1%, 중학생이 63.5%, 고등학생이 29.3%로 조사되었고, 각각 시간은 1시간 26분, 1시간 28분, 34분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강습을 받은 비율은 초등학생이 27.7%point가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24%point, 고등학생은 7.9%point 증가하였다. 하루에 학원 강습에 사용된 평균 시간 역시 초등학생

은 40분, 중학생은 38분, 고등학생은 9분 증가하였다. 1999년에서 2004년까지 5년 사이 학교에서 받는 정규 수업 외 교과활동이나 학원 강습이 가장 증가한 대상은 초등학생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에 공부하는 패턴 역시 1999년과 2004년 사이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혼자 공부하는 비율과 시간은 감소한 반면, 학원 강습을 받는 비율과 시간은 증가하였다. 다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2004년에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토요일휴업일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⁵⁾.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김기현·이경상(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을 TV시청, 컴퓨터 게임, 가족 및 친척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활동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영화, 연극, 전시회, 박물관 관람 등의 문화행사 참여나 스포츠 및 레저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TV시청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활동에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스포츠 활동에 여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5년 전인 1999년이나 5년 후인 2004년이나 여가시간 활용의 질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주로 TV시청, 컴퓨터 게임,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활동을 위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나 스포츠 및 레저활동 참여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태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 여가시간에 걸쳐 TV시청시간은 줄어든 반

5) 토요일휴업일은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전에도 시범적으로 도입·시행한 학교들이 있었다.

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은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활용의 질적인 형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TV시청에서 컴퓨터 게임 쪽으로 여가시간 활용 방식이 약간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는 경우 청소년들의 학습과 여가생활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전면 주5일제 수업실시가 여가생활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김호순(2005)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 스스로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면 평일과 주말 모두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평일은 2.70시간, 주말의 여가시간은 7.512시간인데, 주5일제 수업실시 이후에는 평일 3.76시간, 주말 10.12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서머타임제가 실시되어 일광시간이 증가할 경우 그 시간대에 어떤 활동이 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진미정(2009)에 의하면, 10-19세 청소년들은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주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포함한 취미활동, TV 시청 등의 활동을 한다. 일광시간과 상관없이 주로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2-1> 청소년(10-19세)의 평일 저녁시간 사용 양태

(단위 : %)

시간대	학습 (학교외)	TV	취미(게임)	실외활동
18:00	30.7 (22.8)	8.6	9.8 (6.1)	2.0
18:30	30.3 (21.4)	11.4	9.8 (5.6)	2.0
19:00	35.2 (18.6)	11.3	8.4 (4.8)	1.7
19:30	29.6 (20.1)	11.6	9.2 (5.3)	1.7
20:00	31.1 (21.9)	11.2	10.2 (5.6)	2.0
20:30	30.2 (21.8)	13.4	11.5 (6.2)	2.2
21:00	28.8 (22.1)	13.2	12.4 (6.7)	2.2

출처: 통계청 2004 국민생활시간조사-진미정(2009) 재인용

청소년들의 여가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취미·오락 활동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이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취미·오락이라고 한 활동에는 컴퓨터 게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취미·오락을 의미하기 보다는 주로 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기봉 외, 2009).

청소년들의 여가 현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머타임제가 도입된다고 할 때 청소년들이 지금과 달리 좀 더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의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 대신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 특히 신체활동을 포함한 실외 활동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입과 지원은 일차적으로 가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가족이 함께 여가 생활을 공유한다면 청소년들의 소극적 여가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여가를 함께 보내는 대상은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많은 편이고, 혼자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김호순, 2005; 이기봉 외, 2009)에 비추어볼 때 가족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이 향상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일상적으로 가족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머타임제의 도입으로 평일 저녁 시간대의 생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시간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가족생활을 존중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프라, 기회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퇴근 후 초과 근무나 회식 등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과 달리 서머타임제의 도입은 평일의 생활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평일 생활문화의 변화와 다양한 여가활동 및 가족시간의 향상을 위해서는 집 근처에서 일상적으로 산책, 운동, 놀이를 할 수 있는 근린 시설

과 공원이 확충되어 활용되어야 하며,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서머타임제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및 욕구조사

1. 조사개요
2.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3. 학부모 조사결과

Ⅲ. 서머타임제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및 욕구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09년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머타임제 논의가 단순히 경제적인 분야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분야, 특히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야 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생활시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활용 및 여가시간으로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과 이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는데 설문지의 문항 구성 체계는 서머타임제에 따른 생활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표 III-1-1>). 우선, 건강과 생활시간에 관한 것으로 아침식사 결식빈도와 이유, 기상 및 취침시간, 총 수면시간, 등교 및 귀가시간에 대해 조사하였고, 생활영역별로 오후 5시 이후 시간대별 시간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광시간 증가가 아동·청소년의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바, 주된 여가시간 활동과 여가활동 만족도 및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와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광시간증가에 따라 선호하는 시간활용 및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시간활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교급(초·중·고),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 부모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 생활수준, 학업수준, 용돈수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특별히 초등학교 조사를 위해서 문구와 단어들을 보다 쉽게 고안하여 설문지 내용의 이해를 도왔으며, 실사요원의 보충설명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였다.

<표 III-1-1> 아동·청소년의 설문조사 내용

조사영역	세부조사내용	설문지 번호
생활시간과 건강	- 아침식사 결식빈도와 이유 - 기상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 취침시간, 수면시간 - 기타 생활영역별 시간사용(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과외시간, 개인공부시간, 총 학습시간, TV시청시간, 컴퓨터 이용시간, 친구와 교제시간, 스포츠·기타 여가활동,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	1, 2, 3, 4, 5, 6,
	- 아침급식 필요성, 점심시간 변경 필요	17
여가시간활용	- 주된 여가시간활동 -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 - 여가활동 만족도 - 만족하지 않는 이유	7, 8, 9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 및 인식	- 인지도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 - 일광시간증가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인식 (예, 학원·과외시간 증가, 범죄피해로부터 안전, 야외활동 증가 등)	10, 11, 12, 13, 14
일광시간증가에 따른 선호하는 시간활용	- 다양한 야외활동(스포츠나 다양한 문화 활동)중 선호도 조사	15, 16
배경변인	- 성별, 교급(초·중·고),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 부모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 생활수준, 학업수준, 용돈수준	총 7문항

학부모 중 특히 가족 전체와 아동·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생활시간과 건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더욱 끼칠 수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인 상태에서보다 자녀와 가족 전체를 위한 시간활용에 있어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서머타임제로 인한 당겨진 기상시간과 늦어진 일몰시간, 그리고 증가된 일광시간 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연이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의식과 생각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III-1-2>와 같으며, 크게 건강과 수면시간,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과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생활의 예측되는 변화와 희망하는 시간활용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교급, 학력, 평균 가구소득도 질문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II-1-2> 어머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설문지 번호
생활시간과 건강	- 가족과 자녀의 아침식사 결식빈도와 이유 - 수면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1, 2
	- 아침급식 필요성, 점심시간 변경 필요	7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	- 인지도 - 일광시간증가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인식	3, 4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 예측되는 변화(에너지 절약, 근로시간, 가족생활, 자녀의 시간활용 등) - 희망하는 시간 활용(가족과 자녀 각각의 시간활용)	5, 6, 7
배경변인	- 응답자의 연령 및 학력, 직업유무, 자녀의 학교급, 평균 가구소득	총 5문항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머타임제 도입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항목들이 우선적으로 지역별, 교급별,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의 모집단을 서울, 경기도, 충청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로 하였다. 먼저 지역별 학교배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인구비례에 맞게 고르게 할당 표집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13개교, 중·고등학교 각각 11개교씩 총 35개교를 표집하여 학교 학급당 30표본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 성별(남/여)도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선택된 표본크기는 전체 1,017명이다. 최종 표집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별, 지역별, 교급별 분포를 포함한 응답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페이지의 <표 III-1-3>, <표 III-1-4>, <표 III-1-5>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 자녀와 가족에 미칠 영향 및 일광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지역별 할당표집을 위해 지역별 전화번호부를 통해 랜덤 표집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전화연결이 된 경우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506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II-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분석을 위하여, T-test, ANOVA,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비교방법을 통하여 각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광시간 증가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의 변화와 선호하는 시간활용 각각의 항목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문의 통계분석에서 유의도 수준은 $p<.05=*$, $p<.01=**$, $p<.001=***$ 으로 표기하였다. 보고서 본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5$)인 경우에만 통계표를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분석결과들은 부록의 부표로 제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조사 모집단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들로서,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체 1,017명이다.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아동·청소년은 503명으로 49.5%, 여자아동·청소년은 514명으로 50.5%이다. 학교급 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전체 403명으로 39.6%, 중학생은 314명으로 30.9%, 고등학생은 전체 300명으로 29.5%의 분포를 보였다. 고등학생 중 인문계고 학생이 252명이었으며, 인문계고를 제외한 학교의 학생 수는 48명으로 매우 적은 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아동·청소년이 575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중소도시는 291명으로 28.6%, 군/면 등의 작은 규모의 지역은 151명이었다.

<표 III-1-3>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지역별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503	49.5	
	여자	514	50.5	
학교급별	초등학교		403	39.6
	중학교		314	30.9
	고등학교	전체	300	29.5
		인문계	252	84.0
		전문계	43	14.3
		종합고	5	1.7
지역별	군/면		151	14.8
	중소도시		291	28.6
	대도시		575	56.5

추가적으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배경변인으로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한 분포

현황을 보면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구분			아동		청소년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학력	부	중졸이하	15	3.9	54	9.1
		고졸	169	43.6	278	47.0
		대졸이상	204	52.6	260	43.9
	모	중졸이하	16	4.1	48	8.1
		고졸	211	54.2	353	59.6
		대졸이상	162	41.6	191	32.3
직업 유무	부	직업 있음	386	98.2	517	96.0
		직업 없음	7	1.8	24	4.0
	모	직업 있음	270	67.8	412	69.2
		직업 없음	128	32.2	183	30.8
학업성적 ⁶⁾		하	77	19.3	194	32.4
		중	174	43.5	238	39.7
		상	149	37.3	167	27.9
가정의 경제수준인식 ⁷⁾		하	20	5.1	63	10.6
		중	265	67.1	436	73.2
		상	110	27.8	97	16.3

부모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보면 아동의 경우 아버지는 대졸이상(52.5%)의 학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54.2%)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졸업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각각 47%, 43.9%), 어머니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비율(59.6%)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아동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98.2%)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67.8%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경우는

6) 학업성적변인은 5개의 급간 (매우 못하는 수준=1, 못하는 수준=2, 중간=3, 잘하는 수준=4, 매우 잘하는 수준=5)을 3개 급간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7) 가정의 경제수준 인식 변인은 ‘매우 못산다’부터 ‘매우 잘산다’까지의 9개 급간을 3등분으로 나눠 3개 급간 (하위집단, 중간집단, 상위집단)으로 리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96%가, 어머니는 69.2%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 아동 중 학업성적이 하위수준이라는 응답은 19.3%였고, 중간수준은 43.5%, 상위수준은 37.3%의 응답을 보였다. 청소년의 경우는 보다 고른 분포를 보여, 하위수준은 32.4%, 중간수준 39.7%, 상위수준은 약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간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경우, 하위수준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으면 67%는 중간수준, 27.8%는 상위수준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가정경제를 하위수준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청소년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나 10.6%였고, 중간수준은 73.2%, 상위수준이라는 응답은 16.3%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 수준 외에 학생들의 한달 평균 용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극단치⁸⁾를 제외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평균 용돈은 약 28,860원이었고, 초등학교생은 약 16,650원, 중학생은 약 27,330원, 고등학생은 약 47,4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한달 평균 용돈

(단위 : 원)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28,855.73	0	300,000	
아동		16,654.83	0	150,000	16,333.378
청소년	전체	37,082.75	0	300,000	35,281.836
	중학생	27,323.63	0	200,000	
	고등학생	47,407.61	0	300,000	

(2) 조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 자녀와 가족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50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8) 월 100만원 이상 용돈을 받는다는 극단치 응답 2개 사례는 본 보고서의 용돈변인을 활용한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는 30대가 25.9%, 40대가 약 67%, 50세 이상은 7%였고, 자녀의 학교급 별로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율은 23.5%,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32.2%,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는 44.3%였다.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학력수준을 보면 중졸이하는 5%로 매우 미미한 비율 이었고, 고졸은 과반수 이상인 약 56%, 대졸이상은 약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70.6%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29.4% 여서 근로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200만원 이하가 약 23%, 201만원이상 400만원 이하가 47.5%, 400만원 이상은 29.4%로 나타나, 절반가까이의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조사대상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구분		인원수(명)	비율(%)
나이	30대	126	25.9
	40대	327	67.1
	50세 이상	34	7.0
자녀의 학교급	초등학교 4-6학년	119	23.5
	중학생	163	32.2
	고등학생	224	44.3
학력수준	중졸이하	25	5.0
	고졸	280	55.9
	대졸이상	196	39.1
직업유무	직업 있음	357	70.6
	직업 없음	149	29.4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8	4.1
	101-200만원	84	19.0
	201-300만원	107	24.2
	301-400만원	103	23.3
	401-500만원	57	12.9
	501만원 이상	73	16.5

2.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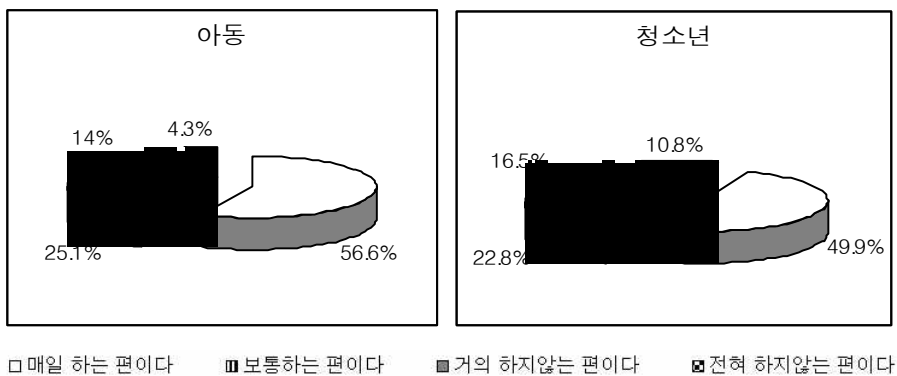
서머타임제 시행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생활시간, 여가시간 등에 고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강, 생활시간 및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와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영향들과 이에 따른 선호하는 시간활용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해 다양한 배경변인별 집단간 차이도 살펴보았다.

1) 건강과 생활시간

서머타임제 도입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생활시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시간 일찍 기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침식사와 수면시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아침식사 여부와 평균수면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 시간의 일광시간 증가는 이들의 평상시 생활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교·귀가시간, 평일 및 휴일의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시간대별 평일 및 휴일의 방과 후 주요 활동들을 조사하였다.

(1) 아침식사여부와 결식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아침식사 실태는, [그림 Ⅲ-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아침식사를 매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1] 아침식사 여부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거의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에 대해서도 아동은 18.3%인 반면, 청소년은 27.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침식사 여부는 교급, 부모학력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표 III-2-1>), 특히 고등학생의 결식비율은 33.5%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18.3%, 중학생의 21.4%보다 훨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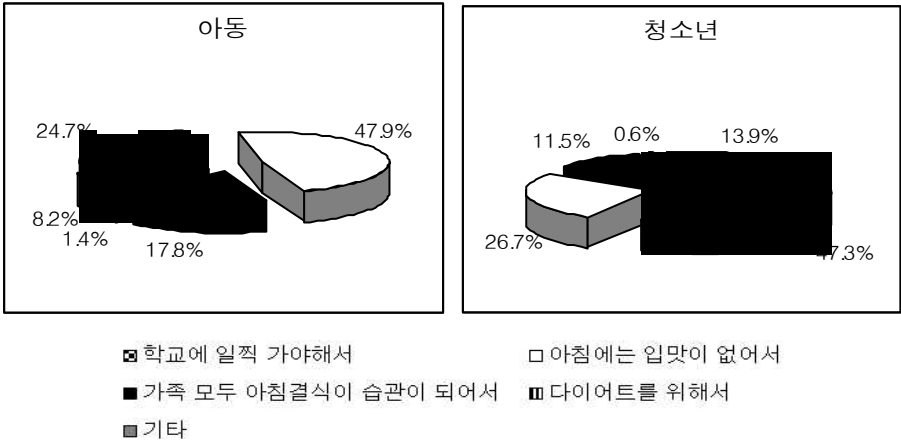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때 아침결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 합친 값 기준). 학업성적별로 보면, 학업성적이 상위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이 하위수준인 집단의 경우 ‘거의’ 혹은 ‘전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36%로 상위집단의 14.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침식사 결식률은 서머타임제 시행 초기, 한 시간 일찍 이루어지는 기상과 학교 등교에 따라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1> 아침식사 여부

(단위 : %)

구 분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하는 편이다	거의 하지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않는 편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52.6	23.7	15.5	8.2	100(1012)	
교급	초	56.6	25.1	14.0	4.3	100(399)	36.267***
	중	52.2	26.4	15.0	6.4	100(314)	
	고	47.5	19.1	18.1	15.4	100(299)	
부 학력	중졸이하	58.0	14.5	11.6	15.9	100(69)	13.759*
	고졸	51.2	22.5	17.1	9.2	100(445)	
	대졸이상	55.1	24.9	13.7	6.3	100(461)	
모 학력	중졸이하	40.6	18.8	23.4	17.2	100(64)	15.863*
	고졸	52.8	23.7	14.6	8.9	100(562)	
	대졸이상	56.9	23.4	14.0	5.7	100(350)	
학업 성적	하	40.6	23.2	22.1	14.0	100(271)	46.872***
	중	53.9	23.5	14.5	8.1	100(408)	
	상	62.2	23.5	11.4	2.9	100(315)	

이러한 우려는 아래 그림의 아침식사 결식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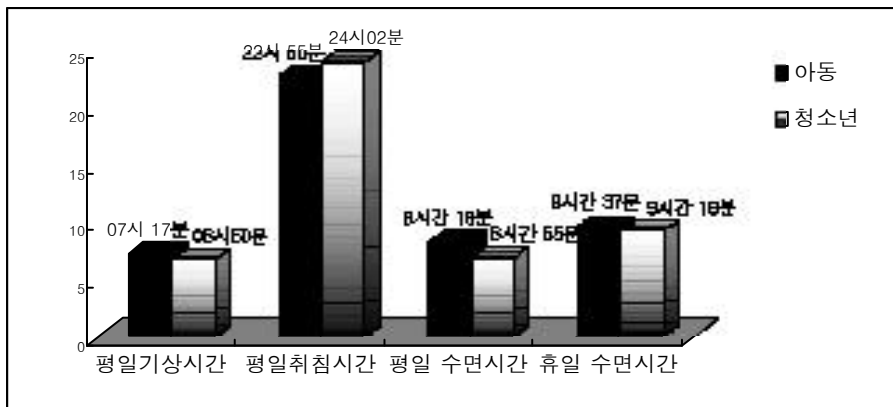
전체 응답 항목 중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40.3%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아동은 24.7%였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47.3%가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교(24.7%)이나 중학생(38.8%)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라 한 시간 일찍 등교하게 될 때 이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I-2-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족 모두 아침결식이 습관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0.3	33.2	13.4	0.8	12.2	100(238)	
교급	초	24.7	47.9	17.8	1.4	8.2	100(73)	22.053**
	중	38.8	35.8	10.4	0.0	14.9	100(67)	
	고	53.1	20.4	12.2	1.0	13.3	100(98)	
지역	군/면	22.7	40.9	13.6	9.1	13.6	100(22)	22.830**
	중소도시	40.8	33.8	15.5	0.0	9.9	100(71)	
	대도시	42.8	31.7	12.4	0.0	13.1	100(145)	

<표 III-2-3>는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기상·취침시간과 평일과 휴일의 수면시간, 등교시간 및 귀가시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기상 및 취침시간과 수면시간을 보면([그림 III-2-3], <표 III-2-3>),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수면시간은 8시간 16분, 중학생은 7시간 47분이었으며, 고등학생은 6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상 시간을 보면, 아동은 7시 17분, 중학생은 7시 8분, 고등학생은 6시 33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 시간 앞당겨지는 서머타임제 시행 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6시대에, 그리고 고등학생은 5시대에 기상하게 되어, 빨라진 기상시간에 신체리듬을 적응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림 III-2-3] 기상·취침시간 및 평균 수면시간

또한 평일 취침시간을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는 밤 10시 55분으로 거의 11시에 가깝고, 중학생은 11시 30분, 고등학생은 밤 12시 33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늦은 취침시간으로, 현재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데, 만약 서머타임 시행 시 한 시간 빠른 취침시간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이른 기상시간과 맞물려 수면시간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표 III-2-3> 평균 수면시간 및 등교·귀가시간 개요

구 분		평일기상 시간	평일취침 시간	평일수면 시간	휴일수면 시간	등교시간	귀가시간
아동		07시17분	22시55분	8시간16분	9시간37분	08시09분	16시03분
청소년	전체	06시50분	24시02분	6시간55분	9시간16분	07시54분	18시
	중학생	07시08분	23시30분	7시간47분	9시간33분	08시07분	16시27분
	고등학생	06시33분	24시33분	5시간59분	8시간58분	07시40분	19시36분

※ 평일수면시간과 휴일 수면시간 중 극단치(예 1시간 수면)를 보인 데이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등교시간은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평균적으로 오전 7시 40분에서 8시 10분 정도에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닌 실제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동의 경우 오후 4시 정도였고, 중학생은 4시 30분경으로 낮 시간에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7시 30분경으로 나타나, 이 경우에는 서머타임제 도입 시 충분히 일몰시간 전 귀가가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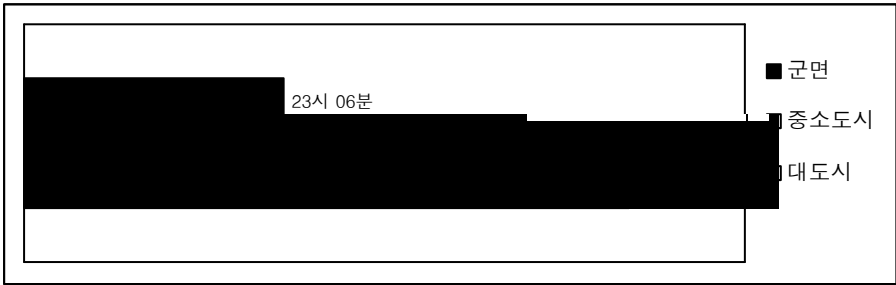
세부 변인별로 평일 기상시간을 살펴보면, <표 II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훨씬 일찍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4> 평일 기상시간 평균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07시00분	39분	774		
성별	남	07시05분	42분	379	3.774***	
	여	06시55분	35분	395		
교급	초	07시17분	31분	288	123.364***	1 > 2 > 3
	중	07시08분	31분	237		
	고	06시33분	39분	249		
지역	군/면	06시55분	34분	113	1.664	
	중소도시	07시03분	35분	244		
	대도시	07시00분	42분	417		
학업성적	하	06시55분	40분	218	5.004**	3 > 1 3 > 2
	중	06시57분	42분	304		
	상	07시06분	33분	235		

세부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아동·청소년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상위집단보다는 하위집단의 아동·청소년이 더 일찍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 취침시간의 경우([그림 Ⅲ-2-4], <표 Ⅲ-2-5>)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훨씬 늦은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취침시간이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4] 지역에 따른 평일 취침시간 평균비교

<표 Ⅲ-2-5> 평일 취침시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23시37분	1시08분	768		
성별	남	23시34분	1시07분	376	0.945	
	여	23시39분	1시10분	392		
교급	초	22시55분	50분	288	217.508***	3 > 2 > 1
	중	23시30분	1시	235		
	고	24시33분	54분	245		
지역	군/면	23시06분	1시05분	112	16.113***	3 > 1 2 > 1
	중소도시	23시35분	1시08분	244		
	대도시	23시46분	1시07분	412		
학업성적	하	23시38분	1시13분	217	0.175	
	중	23시35분	1시10분	303		
	상	23시37분	1시02분	231		



[그림 Ⅲ-2-5] 지역에 따른 평일 수면시간 평균비교

평일 수면시간을 세부변인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군/면 지역보다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그림 Ⅲ-2-5]), 또 학업성적이 중상위인 집단보다 하위집단인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6>).

<표 Ⅲ-2-6> 평일 수면시간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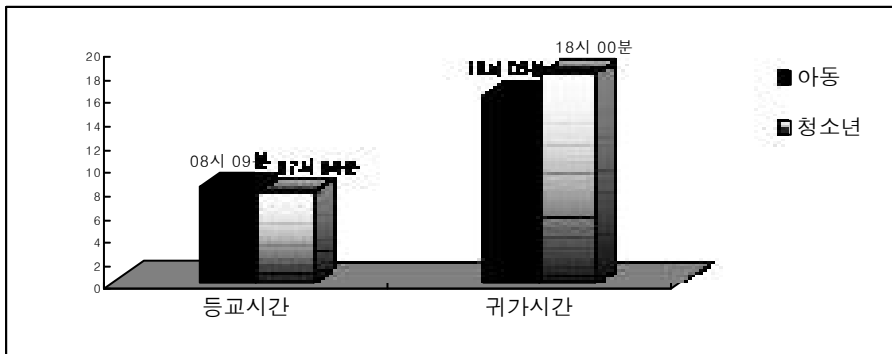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7시간27분	1시간34분	1005		
성별	남	7시간31분	1시간40분	495	1.206	
	여	7시간24분	1시간28분	510		
교급	초	8시간16분	1시간15분	400	305.205***	1 > 2 > 3
	중	7시간47분	1시간23분	313		
	고	5시간59분	1시간03분	292		
지역	군/면	7시간51분	1시간25분	149	5.768**	1 > 2 1 > 3
	중소도시	7시간24분	1시간22분	286		
	대도시	7시간22분	1시간41분	570		
학업성적	하	7시간15분	1시간32분	270	3.277*	
	중	7시간31분	1시간40분	404		
	상	7시간32분	1시간28분	313		

휴일의 수면시간 경우에는 전체 변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초등학생이 중학생의 고등학생보다 약 40분 정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표 Ⅲ-2-7>).

<표 III-2-7> 휴일 수면시간 평균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9시간25분	1시간45분	964		
성별	남	9시간11분	1시간45분	475	3.967	
	여	9시간38분	1시간44분	489		
교급	초	9시간37분	1시간32분	384	12.741***	1 > 3 2 > 3
	중	9시간33분	1시간43분	296		
	고	8시간58분	1시간59분	284		
지역	군/면	9시간20분	1시간36분	146	0.525	
	중소도시	9시간30분	1시간48분	274		
	대도시	9시간23분	1시간46분	544		
학업성적	하	9시간24분	1시간46분	250	0.102	
	중	9시간26분	1시간46분	393		
	상	9시간22분	1시간43분	305		

평일 등교시간은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가 시간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그림 III-2-6] 평균 등교·귀가시간

특히 변인별로 보면, 교급, 지역, 학업성적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표 III-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군/면지역이나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학업성적이 하위집단인 아동·청소년이 중상위집단보다 더 일찍 등교하고 있었다.

<표 III-2-8> 평일 등교시간 평균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08시00분	24분	994		
성별	남	07시59분	25분	489	0.209	
	여	08시00분	23분	505		
교급	초	08시09분	19분	387	209.947***	1 > 3 2 > 3
	중	08시07분	18분	309		
	고	07시40분	23분	298		
지역	군/면	08시05분	19분	146	7.194**	1 > 3 2 > 3
	중소도시	08시02분	22분	288		
	대도시	07시57분	26분	560		
학업성적	하	07시56분	23분	265	4.409*	2 > 1
	중	08시01분	24분	402		
	상	08시00분	24분	312		

귀가시간의 경우(<표 III-2-9>),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더 늦게 귀가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군/면 지역과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의 아동·청소년이 더 늦게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귀가 시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17시14분	2시39분	994		
성별	남	17시04분	2시40분	487	1.987	
	여	17시24분	2시37분	507		
교급	초	16시03분	1시51분	390	261.256***	3 > 2 > 1
	중	16시27분	1시25분	307		
	고	19시36분	2시58분	297		
지역	군/면	17시47분	2시19분	148	5.484**	1 > 3
	중소도시	17시22분	3시00분	286		
	대도시	17시01분	2시31분	560		
학업성적	하	17시34분	2시41분	266	2.481	
	중	17시08분	2시38분	404		
	상	17시08분	2시38분	310		

평일 방과 후 아동·청소년의 시간대별 활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2-10>

와 같이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즉 일몰시간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를 통한 학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집에서 공부하거나 식사정도로 나타났다. 일몰시간 이후에는 식사나 TV시청이 많았고, 10시 이후에는 취침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오후 5시부터 일몰 이후인 오후 9시까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학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 평일 방과 후 시간대별 주요 활동 (복수응답)

구 분	아동(초등학생)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오후 5시	학원/과외 (222)	집에서 혼자공부(66)	학원/과외 (106)	게임/인터넷 (60)	학교 (204)	식사 (29)
6시	학원/과외 (175)	식사 (72)	학원/과외 (153)	식사 (53)	학교 (157)	식사 (80)
7시	학원/과외 (141)	식사 (122)	학원/과외 (154)	식사 (63)	학교 (150)	학원/과외 (59)
8시	식사 (86)	TV시청 (82)	학원/과외 (122)	TV시청(47), 식사(47)	학교 (149)	학원/과외 (70)
9시	TV시청 (119)	집에서 혼자공부(91)	학원/과외 (93)	게임/인터넷(54), TV시청(54)	학교 (140)	학원/과외 (61)
10시	취침 (126)	TV시청 (124)	TV시청 (97)	학원/과외 (75)	학교 (102)	TV시청 (72)
11시	취침 (267)	TV시청 (47)	취침 (123)	TV시청 (80)	TV시청 (72)	집에서 혼자공부(61)
12시	취침 (314)	아무것도 안함(11)	취침 (181)	TV시청 (28)	취침 (116)	집에서 혼자공부(56)
오전 1시			취침 (202)	TV시청 (7)	취침 (182)	집에서 혼자공부(30)

※ 괄호 안은 빈도수

고등학생의 경우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활동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식사,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학원/과외여서 고등학생의 대부분은 식사를 제외하고는 밤 10시까지 학교, 학원, 과외에서의 학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시간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이러한 결과는 평일의 경우 서머타임이 시행될 경우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운동

이나 여가활동, 실외활동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머타임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평일 시간활용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는데(<표 Ⅲ-2-11>, <표 Ⅲ-2-12>, <표 Ⅲ-2-13>),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5%~6% 미만의 적은 수가 실외활동을 포함한 문화 및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11> 평일 오후5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9.4	16.9	3.9	9.8	100(987)	
성별	남	64.3	21.0	4.4	10.4	100(482)	13.488**
	여	74.3	13.1	3.4	9.3	100(505)	
교급	초	73.9	15.8	4.5	5.8	100(398)	46.542***
	중	56.5	25.2	4.3	14.0	100(301)	
	고	76.7	9.7	2.4	11.1	100(288)	
학업성적	하	60.2	22.8	3.9	13.1	100(259)	21.282**
	중	71.1	16.7	4.7	7.5	100(401)	
	상	75.6	12.2	2.9	9.3	100(312)	

<표 Ⅲ-2-12> 평일 오후6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3.0	16.7	4.4	15.9	100(982)	
교급	초	60.3	19.7	6.4	13.6	100(390)	25.994***
	중	60.5	19.4	4.3	15.8	100(304)	
	고	69.4	9.7	1.7	19.1	100(288)	
지역	군/면	53.4	20.5	3.4	22.6	100(146)	12.834*
	중소도시	67.6	15.7	2.8	13.9	100(281)	
	대도시	63.2	16.2	5.4	15.1	100(555)	
경제수준	하	51.3	23.7	5.3	19.7	100(76)	15.536*
	중	61.9	17.6	4.0	16.5	100(683)	
	상	72.1	10.4	5.5	11.9	100(201)	
학업성적	하	53.1	21.7	5.9	19.3	100(254)	18.652**
	중	64.8	16.8	4.5	14.0	100(400)	
	상	69.0	12.1	3.2	15.7	100(3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도적 다수가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 학업, 과외 등을 통해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교급별로 보면, 초·중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학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 아동·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하위집단일수록, 또 경제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학업보다는 TV시청 및 컴퓨터 게임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3> 평일 오후7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58.7	18.9	4.6	17.8	100(984)	
교급	초	44.9	26.7	5.1	23.3	100(390)	70.076***
	중	60.5	19.1	5.3	15.1	100(304)	
	고	75.5	8.3	3.1	13.1	100(290)	
지역	군/면	45.8	29.2	4.2	20.8	100(144)	15.626*
	중소도시	60.1	18.2	4.2	17.5	100(286)	
	대도시	61.4	16.6	4.9	17.1	100(554)	
경제수준	하	50.6	29.9	5.2	14.3	100(77)	15.168*
	중	57.6	19.7	4.7	18.0	100(684)	
	상	67.2	11.4	4.5	16.9	100(201)	
학업성적	하	49.0	25.1	5.1	20.8	100(255)	21.677**
	중	59.6	16.1	4.7	19.6	100(403)	
	상	66.2	17.0	4.2	12.5	100(311)	

특히 하절기 일몰이 시작되는 7시경의 주요 평일 활동을 보면, 역시 학업이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고등학생의 비율은 75.5%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군/면지역의 경우 학업은 45.8%, TV/게임은 29.2%인데 반해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응답자들은 학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TV/게임 비율의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하위집단에서 학업과 TV/게임의 응답률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중상위집단에서는 격차가 컸다. 이러한 차이는 학업성적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학업성적이 상위인 집단의 경우 학업의 비율은 66.2%인데 반해 하위집단은 49%였고, 반대로 TV/게임의 응답비율은 학업성적 상위인 집단은

17%인데 반해, 하위집단에서는 25%의 응답률을 보였다.

휴일 시간활용과 주요활동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2-14>와 같다.

<표 III-2-14>휴일(토/일/공휴일) 방과 후 시간대별 주요 활동 (복수응답)

구 분	아동(초등학생)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오후 5시	게임/인터넷 (107)	TV시청 (98)	TV시청 (101)	게임/인터넷(9 4)	TV시청 (103)	게임/인터넷 (69)
6시	TV시청 (113)	게임/인터넷 (98)	TV시청 (107)	게임/인터넷(8 9)	TV시청 (121)	게임/인터넷 (53), 식사(53)
7시	TV시청 (119)	식사 (116)	TV시청 (120)	식사 (79)	TV시청 (105)	식사(63)
8시	TV시청 (110)	게임/인터넷 (83)	TV시청 (100)	게임/인터넷 (84)	TV시청 (96)	게임/인터넷 (62)
9시	TV시청 (135)	게임/인터넷 (82)	TV시청 (103)	게임/인터넷 (75)	TV시청 (91)	게임/인터넷 (77)
10시	TV시청 (126)	취침 (115)	TV시청 (120)	게임/인터넷 (62)	TV시청 (102)	게임/인터넷 (73)
11시	취침 (244)	TV시청 (53)	취침 (110)	TV시청 (80)	TV시청 (85)	게임/인터넷 (71)
12시	취침 (305)	아무것도 안함(9), 게임/인터넷(9)	취침 (180)	TV시청 (32)	취침 (135)	게임/인터넷 (53)
오전 1시			취침 (183)	게임/인터넷 (14)	취침 (177)	게임/인터넷 (29)

※ 괄호 안은 빈도수

<표 III-2-1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 전 연령대에서 오후 5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TV 시청과 게임 및 인터넷 사용’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휴일에조차도 실외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간활용이 아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하절기 일몰시간인 7시경에도 우선적으로 TV시청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변인별로 휴일의 오후 및 저녁시간활용(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을 살펴보면, <표 III-2-15>, <표 III-2-16>, <표 III-2-17>와 같이, 평일과는 달리, 학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 연령대에서 과반수 혹은 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TV나 게임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활동 및 문화/취미활동의 경우 평일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2-15> 휴일 오후5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7.0	49.4	8.4	15.2	100(986)	
교급	초	26.1	44.4	9.0	20.6	100(399)	19.972**
	중	25.4	55.5	6.7	12.4	100(299)	
	고	29.9	50.0	9.4	10.8	100(288)	
지역	군/면	21.4	51.7	6.2	20.7	100(145)	16.907*
	중소도시	22.4	50.3	11.9	15.4	100(286)	
	대도시	30.8	48.3	7.2	13.7	100(555)	
학업성적	하	21.0	50.6	8.9	19.5	100(257)	19.087**
	중	26.7	47.8	8.2	17.3	100(404)	
	상	31.9	50.5	8.6	8.9	100(313)	

<표 III-2-16> 휴일 오후6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9.3	52.0	9.4	19.3	100(985)	
성별	남	23.0	52.4	8.9	15.7	100(483)	13.225**
	여	15.7	51.6	10.0	22.7	100(502)	
지역	군/면	10.5	58.7	7.0	23.8	100(143)	23.568**
	중소도시	14.4	55.4	9.1	21.1	100(285)	
	대도시	24.1	48.5	10.2	17.2	100(557)	
경제수준	하	12.7	49.4	7.6	30.4	100(79)	12.692*
	중	18.2	53.1	9.4	19.4	100(682)	
	상	24.4	50.2	10.2	15.1	100(205)	

<표 III-2-17> 휴일 오후7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9.0	48.3	7.9	24.8	100(979)	
교급	초	17.1	43.5	9.2	30.2	100(391)	18.741**
	중	18.2	54.7	5.1	22.0	100(296)	
	고	22.3	48.3	8.9	20.5	100(292)	

2) 여가시간활용

평일과 휴일의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 III-2-18>에서와 같이 앞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초·중·고학생 모두 평일과 휴일 모두 1순위는 TV시청, 2순위는 음악 듣기나 컴퓨터 및 온라인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응답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III-2-18>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주요 활동

구 분			주요활동		
			1순위	2순위	3순위
평일	아동		TV시청 (104)	TV시청 (80)	TV시청 (52)
	청소년	중	TV시청 (121)	TV시청 (51)	특별한활동없이 휴식 (39)
		고	TV시청 (99)	음악듣기(CD, MP3등) (57)	특별한 활동없이 휴식 (39)
휴일	아동		TV시청 (117)	컴퓨터게임, 온라인게임 (82)	TV시청 (50)
	청소년	중	TV시청 (117)	컴퓨터게임, 온라인게임 (61)	컴퓨터게임, 온라인게임 (35)
		고	TV시청 (110)	인터넷사용(49)	친구 만나기 (35)

※ 괄호 안은 빈도수

평일여가시간에 가장 빈도가 높은 활동인 TV시청에 대한 세부변인별 차이를 보면(<부표 III-2-6>), 아동의 경우 군/면 혹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간인 집단에서, 또 용돈수준도 중간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업성적 역시 중간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TV시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군/면지역 혹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TV시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 및 용돈수준, 학업수준에서는 아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중간집단에서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여가활동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TV시청을 2번째로 많이 하고 있

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음악듣기가 많았는데(<부표 III-2-7>), 남자고 등학생, 대도시 거주, 중간수준의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의 청소년에게서 더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휴일여가시간에도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순위인 TV시청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부표 III-2-11>), 아동과 청소년 모두 군/면지역 혹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용돈수준에서 중간인 경우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평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III-2-19>), 전체적으로 ‘동성친구’와 보내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휴일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동성친구’, ‘혼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급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9>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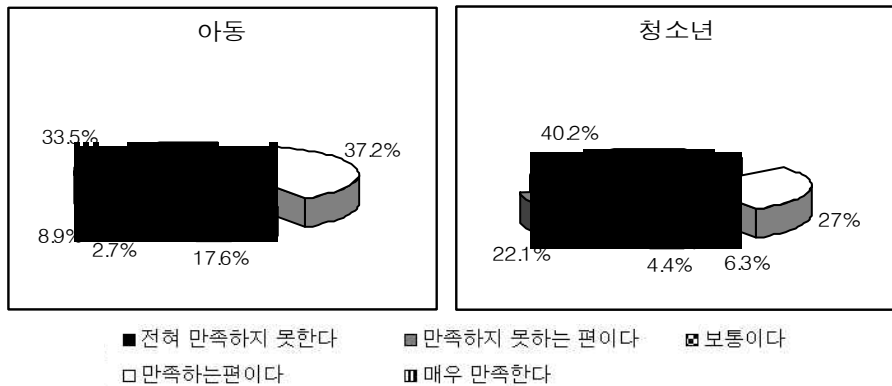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혼자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선후배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평일	전체	33.6	26.7	35.8	1.4	0.5	2.1	100(1001)	
	교급	초	31.4	29.9	34.2	0.3	0.0	100(398)	34.074***
		중	34.8	26.9	34.1	3.0	0.7	100(305)	
		고	35.2	22.1	39.6	1.3	0.7	100(298)	
		고	35.2	22.1	39.6	1.3	0.7	100(298)	
휴일	전체	14.1	53.6	27.3	2.2	0.7	2.1	100(1000)	
	성별	남	14.3	48.0	32.6	2.7	0.4	100(488)	17.546**
		여	13.9	59.0	22.3	1.8	2.1	100(512)	
	교급	초	13.6	60.1	22.7	0.3	3.3	100(396)	44.574***
		중	11.8	55.1	27.9	2.3	1.3	100(305)	
		고	17.1	43.5	32.8	4.7	1.3	100(299)	
		고	17.1	43.5	32.8	4.7	1.3	100(299)	

평일의 경우, 초등학생은 ‘동성친구’(34.2%), ‘혼자’(31.4%), ‘가족’(29.9%)의 순이었고, 중학생은 ‘혼자’(34.8%)와 ‘동성친구’(34.1%)의 응답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은 ‘동성친구’(39.6%)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고, 반대로 ‘가족’(22.1%)과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43.5%)에는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

는 응답이 초등학생(60.1%)과 중학생(55.1%)보다 현격히 낮았고, 반대로 동성친구와 보낸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2-7]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은(‘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20%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Ⅲ-2-7] 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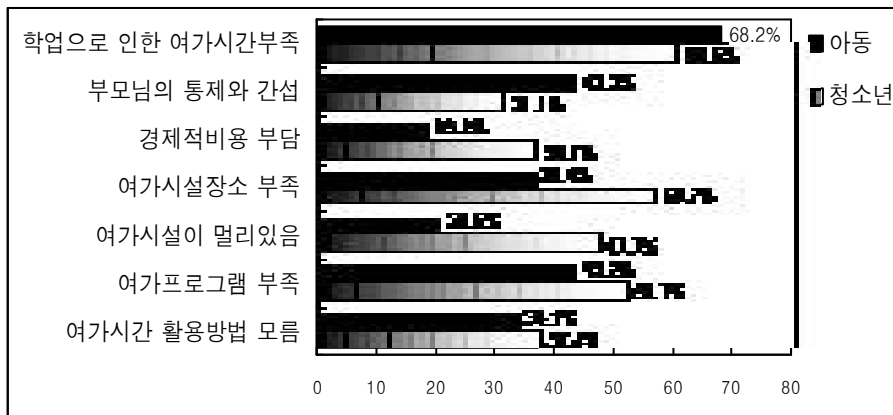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표 Ⅲ-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집단의 아동·청소년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표 Ⅲ-2-20>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8	16.8	37.5	31.1	10.8	100(1010)	
성별	남	4.0	17.1	32.5	33.7	12.7	100(496)	12.286*
	여	3.5	16.5	42.4	28.6	8.9	100(514)	
교급	초	2.7	8.9	33.5	37.2	17.6	100(403)	86.583***
	중	2.9	17.6	38.8	32.9	7.8	100(307)	
	고	6.0	26.7	41.7	21.0	4.7	100(300)	
경제 수준	하	7.3	14.6	47.6	19.5	11.0	100(82)	47.364***
	중	3.1	18.7	39.2	31.2	7.7	100(701)	
	상	4.3	10.1	29.5	35.3	20.8	100(207)	

여가시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그림 III-2-8] 에서 보듯이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이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을 보였고(62.3%) 그 다음으로 ‘여가시설 및 장소부족’(52.1%), ‘여가 프로그램 부족’(49.7%), ‘여가시설이 멀리 있기 때문’(41.4%),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름’(36.6%),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33.9%), ‘경제적 비용 부담’(32.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일광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들이 그 시간동안 여가활동을 갖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2-8]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세부 변인별 집단간 차이를 보면 (<표 III-2-21>)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군/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이 높아, 도시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이 중고생보다 많은 43.2%였으나, ‘여가시설 장소 부족’, ‘근거리 여가시설 부재’, ‘여가 프로그램 부족’ 등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시 준비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고등학생의 경우,

일광시간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여가시간의 활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비용이 부담 된다’는 항목에는 경제수준이 하위집단에서 중상위 집단보다 2배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2-21>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전체		7.9	11.0	18.8	33.0	29.3	100(191)	18.529*
	지역	군/면	20.8	12.5	33.3	20.8	12.5	100(24)	
		중소도시	8.0	16.0	8.0	32.0	36.0	100(50)	
		대도시	5.1	8.5	20.5	35.9	29.9	100(117)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전체		18.2	25.0	22.9	19.3	14.6	100(192)	20.970**
	교급	초	25.0	6.8	25.0	27.3	15.9	100(44)	
		중	21.7	18.3	23.3	16.7	20.0	100(60)	
		고	12.5	38.6	21.6	17.0	10.2	100(88)	
경제적 비용이 부담됨	전체		18.3	20.9	28.3	24.6	7.9	100(191)	18.837*
	교급	초	34.1	18.2	29.5	15.9	2.3	100(44)	
		중	20.3	25.4	20.3	22.0	11.9	100(59)	
		고	9.1	19.3	33.0	30.7	8.0	100(88)	
	경제 수준	하	0.0	16.7	27.8	44.4	11.1	100(18)	17.844*
		중 상	17.3	22.3	30.2	21.6	8.6	100(139)	
여가시설 장소 부족	전체		10.4	13.0	24.5	33.3	18.8	100(192)	29.982***
	교급	초	20.5	22.7	20.5	25.0	11.4	100(44)	
		중	16.7	10.0	33.3	21.7	18.3	100(60)	
		고	1.1	10.2	20.5	45.5	22.7	100(88)	
여가시설이 멀리있음	전체		15.7	23.0	19.9	19.4	22.0	100(191)	18.339*
	교급	초	22.7	27.3	29.5	11.4	9.1	100(44)	
		중	22.0	23.7	15.3	20.3	18.6	100(59)	
		고	8.0	20.5	18.2	22.7	30.7	100(88)	
여가 프로그램 부족	전체		10.6	14.3	25.4	31.7	18.0	100(189)	20.538**
	교급	초	15.9	18.2	22.7	27.3	15.9	100(44)	
		중	16.9	18.6	30.5	27.1	6.8	100(59)	
		고	3.5	9.3	23.3	37.2	26.7	100(86)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름	전체		24.1	16.8	22.5	24.6	12.0	100(191)	

3)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서머타임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서머타임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27.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제도 도입 전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22> 서머타임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7.8	72.2	100(993)	
성별	남	31.4	68.6	100(487)	6.248*
	여	24.3	75.7	100(506)	

서머타임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들어봤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 들어봤다는 응답(28.5%)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각각 39.7%, 59.3%), 인지경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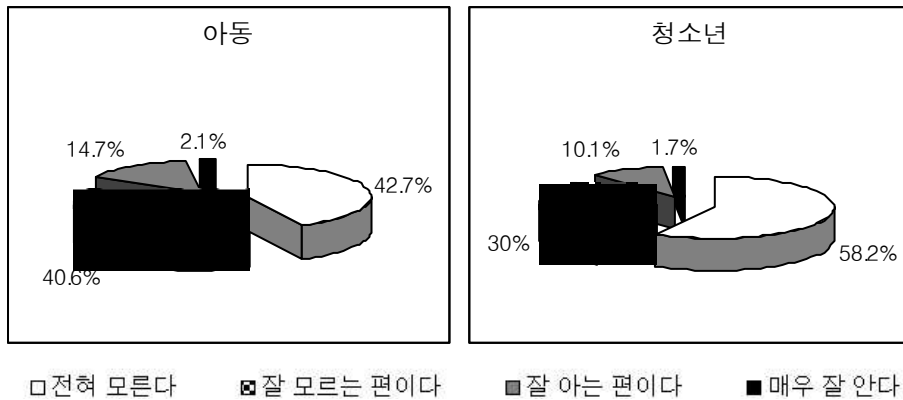
<표 III-2-23> 서머타임제 인지경로

(단위 : %)

구 분		학교	가정	대중매체	기타	전체(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8.5	13.0	40.4	18.1	100(270)	
교급	초	39.6	9.0	27.0	24.3	100(111)	45.085***
	중	19.2	28.2	39.7	12.8	100(78)	
	고	22.2	3.7	59.3	14.8	100(81)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2-9]와 같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도

34.3%여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대다수는 서머타임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잘 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안다’)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9]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세부변인별로는 아동보다 청소년들이 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표 III-2-24>). 초등학교의 경우 16.8%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중학생은 13%, 고등학생은 불과 10.6%만이 ‘잘 아는 편이다’ 혹은 ‘매우 잘 안다’라고 응답해 서머타임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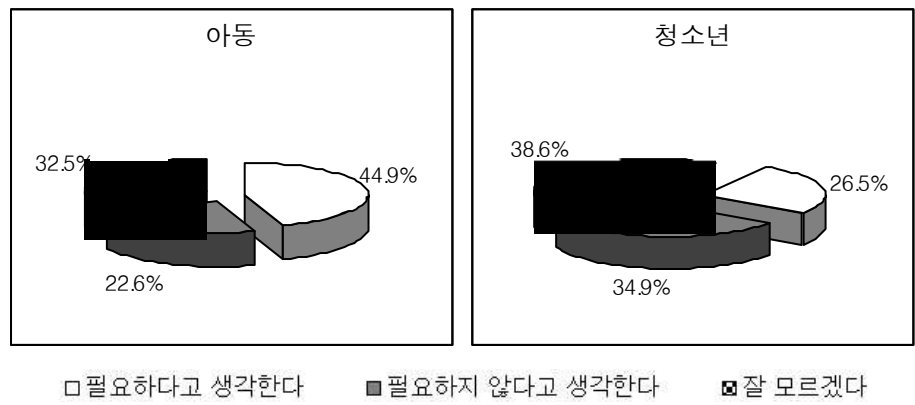
<표 III-2-24>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52.0	34.3	11.9	1.9	100(966)	
교급	초	42.7	40.6	14.7	2.1	100(389)	23.665**
	중	57.0	30.0	11.3	1.7	100(293)	
	고	59.5	29.9	8.8	1.8	100(284)	

[그림 III-2-10]에서 보듯이, 서머타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약 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약

30%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6%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0]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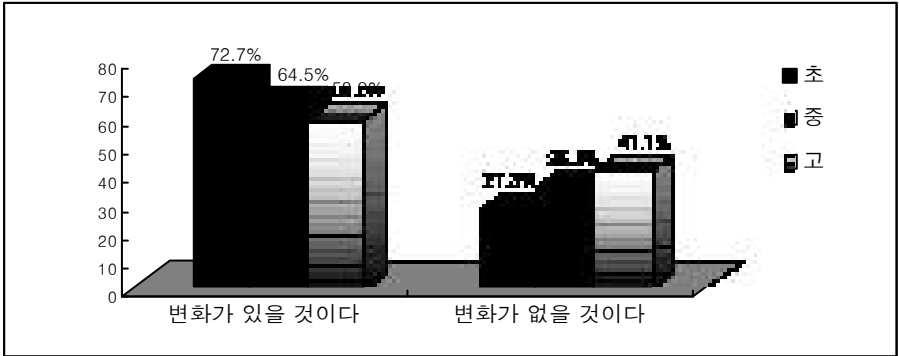
아래 표의 배경변인별 집단간 차이를 보면, 청소년보다는 아동이 서머타임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초=44.9%, 중=28.1%, 고=24.9%),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는 군/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Ⅲ-2-25>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3.9	29.9	36.1	100(999)	
교급	초	44.9	22.6	32.5	100(403)	39.741***
	중	28.1	33.1	38.8	100(299)	
	고	24.9	36.7	38.4	100(297)	
지역	군/면	39.6	22.1	38.3	100(149)	15.202**
	중소도시	32.4	25.5	42.1	100(290)	
	대도시	33.2	34.3	32.5	100(560)	

서머타임제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66%로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III-2-11]).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표 III-2-26>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 III-2-1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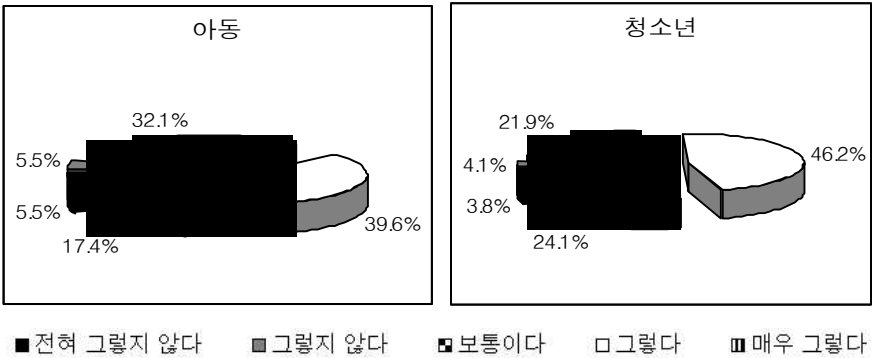
<표 III-2-26>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단위 : %)

구 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6.1	33.9	100(1003)	
교급	초	72.7	27.3	100(403)	15.199**
	중	64.5	35.5	100(301)	
	고	58.9	41.1	100(299)	
부학력	중졸이하	65.2	34.8	100(69)	9.908**
	고졸	61.3	38.7	100(445)	
	대졸이상	71.2	28.8	100(46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12]에서 보듯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활리듬에 영향을 주어서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의 64.4%가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보였고, 적응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은 불과 10% 미만에 그

쳤다.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26.4%로 나타나 서머타임제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12]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적응의 어려움

세부변인별로는 초등학생(57%)보다는, 중학생(65%)과 고등학생(76.2%)이, 그리고 거주지역 규모가 클수록(군/면=54.4%, 중소도시=63.2%, 대도시=67.7%), 학업성적이 상위집단일수록(하=57.4%, 중=64.3%, 상=70.6%) 더 적응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2-27>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적응의 어려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5	4.7	26.4	43.3	21.1	100(663)	
교급	초	5.5	5.5	32.1	39.6	17.4	100(293)	24.883**
	중	6.2	5.7	23.2	45.4	19.6	100(194)	
	고	1.1	2.3	20.5	47.2	29.0	100(176)	
지역	군/면	7.9	6.9	30.7	38.6	15.8	100(101)	16.864*
	중소도시	4.1	5.7	26.9	48.2	15.0	100(193)	
	대도시	3.8	3.5	24.9	42.0	25.7	100(369)	
학업 성적	하	7.1	6.5	29.0	37.3	20.1	100(169)	24.017**
	중	2.5	5.4	27.9	48.2	16.1	100(280)	
	상	5.2	2.4	21.8	41.7	28.9	10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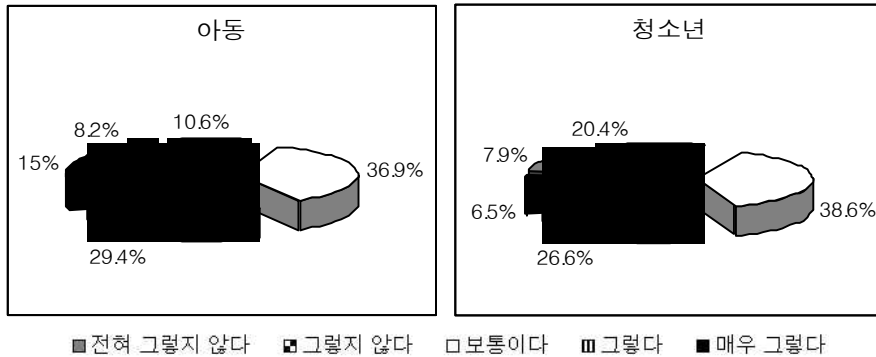
<표 Ⅲ-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에너지(전기)가 절약될 것이라는 응답은 33.2%(‘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2.4%,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4%로 나타나, 서머타임제 도입의 에너지 절약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변인별로는 남자 아동·청소년보다는(30.4%), 여자인 경우(35.8%)가 더 높았고, 지역별로는 군/면지역의 응답자들이(40.6%) 다른 지역보다(중소도시=31.1%, 대도시=32.3%),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이거나 상위인 집단이(각각 38%, 36.9%), 중간집단보다(31.8%) 더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2-28>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에너지 절약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5	17.9	42.4	25.8	7.4	100(663)	
성별	남	9.2	19.9	40.5	21.5	8.9	100(316)	14.615**
	여	4.0	16.1	44.1	29.7	6.1	100(347)	
지역	군/면	2.0	9.9	47.5	36.6	4.0	100(101)	21.373**
	중소도시	5.7	16.1	47.2	23.3	7.8	100(193)	
	대도시	8.1	21.1	38.5	24.1	8.1	100(369)	
경제 수준	하	4.0	18.0	40.0	22.0	16.0	100(50)	16.088*
	중	6.1	18.8	43.3	26.6	5.2	100(462)	
	상	9.2	14.9	39.0	24.8	12.1	100(141)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몰시간이 늦어지면서 야간범죄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38.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Ⅲ-2-29>). [그림 Ⅲ-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44.4%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청소년의 경우는 불과 33.1%만이 응답해,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야간범죄 피해감소에 대한 견해는 청소년들에게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3]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야간범죄 피해감소

변인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표 Ⅲ-2-29>), 남자아동·청소년(34.3%)보다는 여자집단(41.5%)에서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교급 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44.4%)이 중고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변인별로는 경제수준이 하위집단에게서 야간범죄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9>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야간범죄 피해감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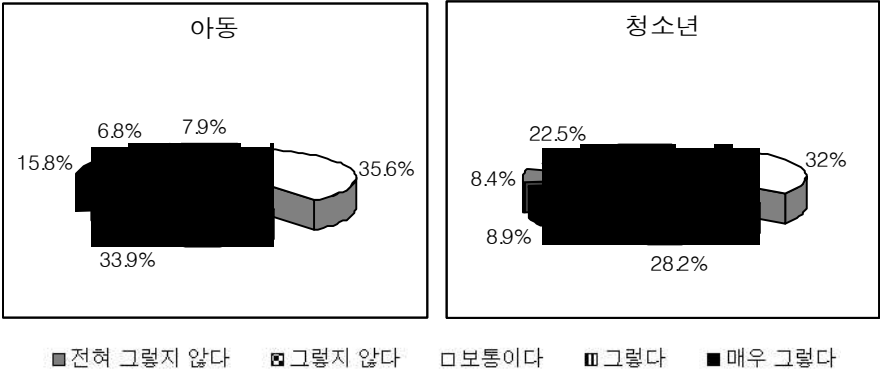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8.0	16.0	37.8	27.8	10.3	100(661)	
성별	남	10.5	16.9	38.2	23.2	11.1	100(314)	9.872*
	여	5.8	15.3	37.5	32.0	9.5	100(347)	
교급	초	8.2	10.6	36.9	29.4	15.0	100(293)	26.465**
	중	7.8	18.7	43.0	23.3	7.3	100(193)	
	고	8.0	22.3	33.7	30.3	5.7	100(175)	
경제 수준	하	8.0	18.0	32.0	22.0	20.0	100(50)	16.250*
	중	7.4	17.5	38.7	28.6	7.8	100(462)	
	상	10.0	11.4	35.0	27.9	15.7	100(140)	

또한 조사대상의 과반수 가까이(48.7%)가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그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3.5%). 남자아동·청소년(40.6%)보다는 여자 응답자들의 경우 수면시간 감소에 대해 더 높은 응답(56%)을 보였다.

<표 III-2-30>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수면시간의 감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7.3	16.2	27.8	31.8	16.9	100(661)	24.909***
성별	남	11.4	17.5	30.5	27.3	13.3	100(315)	
	여	3.5	15.0	25.4	35.8	20.2	100(346)	

한편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23.7%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표 III-2-31>). 부정적인 응답을 보면,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는데([그림 III-2-14]), 초등학생(14.7%)보다는 중학생(29.4%)과 고등학생(32.6%)이,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이 하위집단일수록 더 높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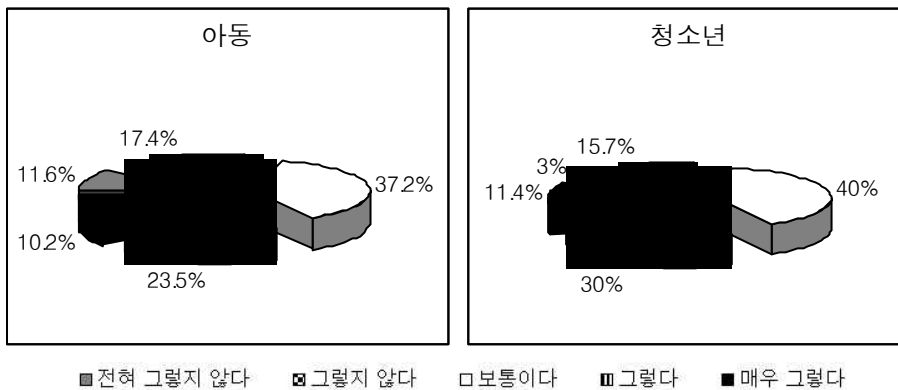


[그림 III-2-14]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표 Ⅲ-2-3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7.7	16.0	33.6	30.7	12.0	100(661)	
교급	초	6.8	7.9	35.6	33.9	15.8	100(292)	33.486***
	중	8.8	20.6	33.0	26.8	10.8	100(194)	
	고	8.0	24.6	30.9	29.7	6.9	100(175)	
경제 수준	하	10.0	22.0	34.0	20.0	14.0	100(50)	15.667*
	중	6.7	18.0	32.3	32.3	10.6	100(461)	
	상	10.7	7.9	35.7	30.0	15.7	100(140)	

또한 응답자의 38%는 서머타임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2%로 나타났다으며 아동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Ⅲ-2-15). <표 Ⅲ-2-32>에서 보듯이, 성별, 교급, 어머니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36.7%)보다는 여자 아동·청소년이(39.2%), 초등학생(33.7%)보다는 중·고생(각각 39.7%와 43.2%)이,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46.1%)일 때,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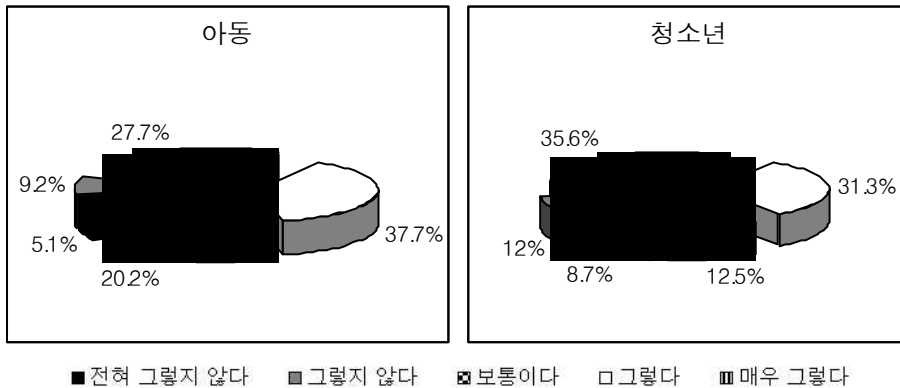
[그림 Ⅲ-2-15]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로시간 증가

<표 III-2-32>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로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8	16.4	38.8	27.1	10.9	100(663)	
성별	남	10.4	17.7	35.1	26.3	10.4	100(316)	14.821**
	여	3.5	15.3	42.1	28.0	11.2	100(347)	
교급	초	11.6	17.4	37.2	23.5	10.2	100(293)	21.757**
	중	3.1	16.0	41.2	28.9	10.8	100(194)	
	고	2.8	15.3	38.6	31.3	11.9	100(176)	
모학력	중졸이하	5.1	10.3	38.5	28.2	17.9	100(39)	25.108**
	고졸	3.6	16.2	44.6	25.3	10.3	100(359)	
	대졸이상	12.0	18.0	31.6	28.0	10.4	100(250)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과반수는 서머타임제로 인해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고, ‘보통이다’는 약 32%,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17.9%로 나타났다. [그림 III-2-16]에서 보듯이, 청소년보다는 아동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는데 초등학교(57.9%)이 중·고생보다(각각 42.5%와 45.1%), 그리고 도시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할수록(군/면=54.5%, 중소도시=50.5% 대도시=48.5%) 실외활동이나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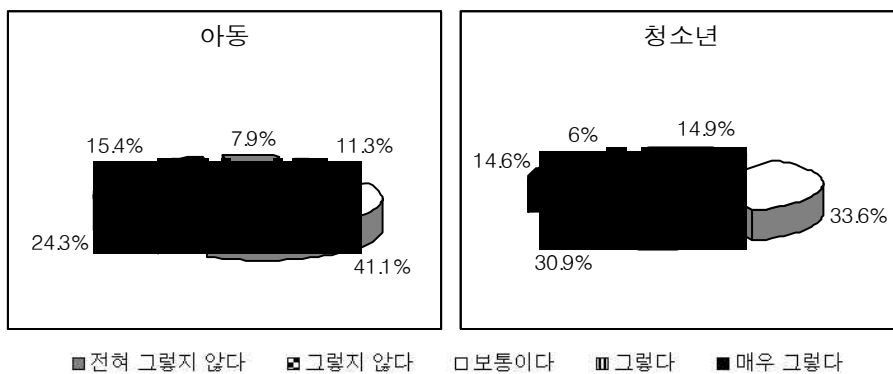
[그림 III-2-16]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실외·여가활동 증가

<표 Ⅲ-2-33>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실외·여가활동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7.1	10.8	32.1	34.1	15.9	100(660)	
성별	남	9.6	9.9	29.9	31.2	19.4	100(314)	12.421*
	여	4.9	11.6	34.1	36.7	12.7	100(346)	
교급	초	5.1	9.2	27.7	37.7	20.2	100(292)	16.510*
	중	8.8	11.4	37.3	29.0	13.5	100(193)	
	고	8.6	12.6	33.7	33.7	11.4	100(175)	
지역	군/면	3.0	9.9	32.7	40.6	13.9	100(101)	18.369*
	중소도시	3.6	7.8	38.0	32.8	17.7	100(192)	
	대도시	10.1	12.5	28.9	33.0	15.5	100(367)	

[그림 Ⅲ-2-17]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이 서머타임제 시행 시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은 43%였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6.9%,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은 약 20%정도에 그쳤다. 이는 상당수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일광시간의 증가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Ⅲ-2-17]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원·독서실 시간 증가

특히 학원 및 독서실에서의 시간 증가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과반수 이상 (51.7%)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모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나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III-2-34>).

<표 III-2-34>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원·독서실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8	13.3	36.9	28.0	15.0	100(661)	
성별	남	10.5	14.3	34.6	24.4	16.2	100(315)	16.484**
	여	3.5	12.4	39.0	31.2	13.9	100(346)	
교급	초	7.9	11.3	41.1	24.3	15.4	100(292)	16.946*
	중	8.3	18.1	33.7	26.9	13.0	100(193)	
	고	3.4	11.4	33.5	35.2	16.5	100(176)	
부학력	중졸이하	4.4	20.0	37.8	24.4	13.3	100(45)	20.469**
	고졸	4.0	9.9	41.5	32.0	12.5	100(272)	
	대졸이상	9.5	15.2	31.7	25.9	17.7	100(328)	
모학력	중졸이하	5.1	10.3	43.6	20.5	20.5	100(39)	16.124*
	고졸	5.9	11.2	39.9	31.0	12.0	100(358)	
	대졸이상	8.8	16.5	30.9	25.7	18.1	100(249)	

또한 노래방 등의 유흥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은 36.7%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28.1%)보다는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남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34.7%)보다 여자·아동·청소년(38.7%)에게서 유흥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5>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유흥시설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0.3	17.8	35.1	23.5	13.2	100(370)	
성별	남	15.9	15.3	34.1	19.9	14.8	100(176)	14.141**
	여	5.2	20.1	36.1	26.8	11.9	100(194)	

이러한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생활변화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II-2-36>와 같이 나타났다. 생활변화와 관련한 여러 항목 중에서 특히 시행 초기에 적응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항목은 다른 항목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면시간이 줄어든 것이라는 항목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317) 나타나 서머타임제 시행초기 적응하는데 있어 수면시간 감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낮 시간 증가에 따른 야간 범죄피해 감소 항목은 에너지절약 항목(.457)과,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 증가 항목(.407), 그리고 학생들의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351)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항목은 학생들의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와도 상관성(.473)을 보였다. 이외의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대부분 상관계수가 .3미만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2-36> 서머타임제 적용 후 생활의 변화의 각 항목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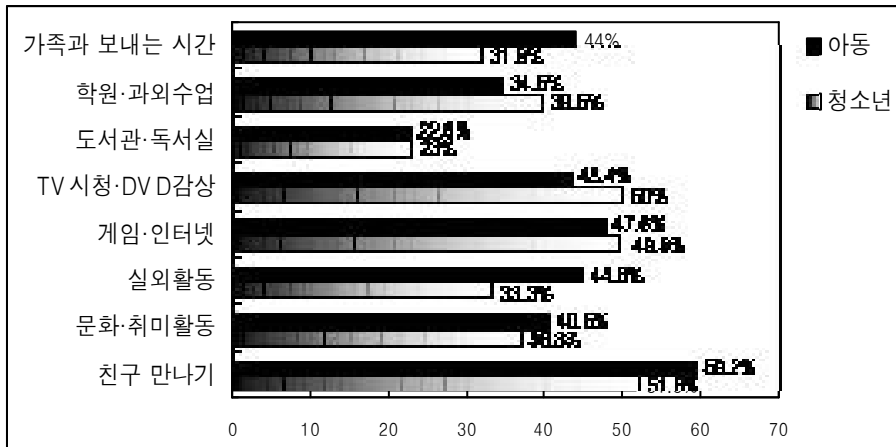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	1								
2	-.003	1							
3	-.093*	.457**	1						
4	.317**	.026	.072	1					
5	-.144**	.339	.407**	-.097*	1				
6	.188**	.061	.077*	.271**	-.016	1			
7	-.082*	.323	.351**	-.038	.473**	-.005	1		
8	.194**	.175	.176**	.194**	.174**	.273**	.225**	1	
9	.117*	-.059	.087	.114*	.090	.110*	.125*	.295**	1

1. 시행초기에는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생활리듬에 영향을 줘서)
2. 에너지(전기)가 절약될 것이다
3. 낮 시간이 늘어나서 야간 범죄피해가 줄어든 것이다
4. 수면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5.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6. 부모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7. 학생들의 실외활동(스포츠,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8.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9. 학생들의 노래방, 비디오방, 호프집 등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4) 일광시간증가에 따라 예측되는 시간 활용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로 예측되는 시간활용과 활동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전체적인 긍정적인 응답률(‘늘어날 것이다’와 ‘매우 늘어날 것이다’응답의 합친 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친구만나기’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게임·인터넷’(48.8%), ‘TV시청·DVD감상’(47.3%), ‘문화·취미활동’(38.2%), ‘실외활동’(37.8%), ‘학원·과외수업’(37.5%), ‘가족과 보내는 시간’(36.7%), ‘도서관·독서실’(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간 응답차이를 보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실외활동, 문화·취미활동, 친구만나기 등 서머타임제로 인한 긍정적 기대 항목들에서는 아동이 청소년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반면에, 학원·과외수업, 도서관·독서실, TV시청·DVD감상, 게임·인터넷사용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비록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일광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실외활동이나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낮았다.



※ ‘늘어날 것이다’와 ‘매우 늘어날 것이다’의 합친 값 기준

[그림 III-2-1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예측되는 시간활용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표 Ⅲ-2-37>), 먼저 식사, 대화, 여가시간 등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늘어날 것이다’와 ‘매우 늘어날 것이다’)은 전체 36.7%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늘어나지 않을 것이다’와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은 23.8%로 나타나, 긍정적인 견해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아동·청소년보다 여자집단에서, 그리고 고등학생(28.7%)과 중학생(34.9%)보다는 초등학생(44%)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이고, 학업성적도 상위일 때 서머타임제 도입 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2-37>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8.4	15.4	39.5	31.6	5.1	100(865)	
성별	남	10.3	17.2	36.4	29.2	6.9	100(418)	14.026**
	여	6.7	13.6	42.5	33.8	3.4	100(447)	
교급	초	5.8	11.4	38.8	33.8	10.2	100(343)	43.999***
	중	9.2	18.8	37.2	32.6	2.3	100(261)	
	고	11.1	17.2	42.9	27.6	1.1	100(261)	
모학력	중졸이하	14.3	7.1	51.8	25.0	1.8	100(56)	20.273**
	고졸	6.8	16.5	41.5	31.6	3.5	100(484)	
	대졸이상	9.9	13.9	35.4	33.1	7.6	100(302)	
경제 수준	하	12.8	21.8	44.9	16.7	3.8	100(78)	23.139**
	중	9.0	15.4	40.0	31.3	4.2	100(597)	
	상	4.6	11.4	36.0	40.6	7.4	100(175)	
학업 성적	하	11.4	13.5	41.5	28.8	4.8	100(229)	19.537*
	중	5.8	15.9	44.7	30.3	3.5	100(347)	
	상	9.6	16.0	31.7	35.6	7.1	100(281)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학원이나 과외수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37.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학원이나 과외수업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2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22.9%에 불과했고,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남자아동·청소년보다는 여자집단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서머타임제로 인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학원·과외 수업/
도서관·독서실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 값
학원, 과외 수업	전체	11.6	13.8	37.2	28.7	8.8	100(864)	11.120*
	성별							
	남	14.6	15.1	34.4	26.3	9.6	100(418)	
	여	8.7	12.6	39.7	30.9	8.1	100(446)	
도서관, 독서실	전체	15.8	19.0	42.3	18.3	4.6	100(863)	13.510**
	성별							
	남	18.7	21.6	38.8	15.6	5.3	100(417)	
	여	13.0	16.6	45.5	20.9	4.0	100(446)	
	부 학력	중졸이하	18.3	15.0	50.0	15.0	100(60)	17.301*
		고졸	18.4	20.5	42.5	15.5	100(381)	
		대졸이상	12.6	18.3	41.0	21.4	100(398)	
	학업 성적	하	19.3	17.1	40.4	16.7	100(228)	15.859*
		중	11.6	20.8	47.1	17.3	100(346)	
		상	17.8	17.8	38.4	21.0	100(281)	

<표 III-2-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TV시청이나 DVD 감상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늘어날 것이다’와 ‘매우 늘어날 것이다’)은 전체의 47.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2%여서 일광시간 증가와 관계없이 대표적 실내 활동인 TV시청, DVD감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과반수

(48.8%)에 가까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나 인터넷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표 III-2-3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TV시청·DVD감상/
게임·인터넷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 값	
TV 시청/ DVD 감상	전체		5.7	10.5	36.4	39.0	8.3	100(863)	14.256**
	성별	남	5.5	13.5	39.2	33.7	8.2	100(416)	
		여	5.8	7.8	33.8	44.1	8.5	100(447)	
	지역	군/면	2.9	6.6	33.6	46.0	10.9	100(137)	28.140***
		중소도시	7.6	6.0	32.3	44.6	9.6	100(251)	
		대도시	5.5	14.1	39.4	34.1	6.9	100(475)	
게임, 인터넷	전체		7.4	11.0	32.8	37.9	10.9	100(863)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한 실외활동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37.8%의 아동·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부정적인 응답(‘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도 2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표 III-2-40>). 세부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아동·청소년보다는 여자 응답자들이, 그리고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이 실외활동 증가에 대한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문화·취미활동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외활동도 매우 비슷한 비율로 긍정 및 부정의 응답률을 보였고, 남자(31.8%) 보다는 여자아동·청소년(44.3%)들이 훨씬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II-2-40>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실외활동/문화·취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실외 활동	전체	6.5	13.9	41.7	29.8	8.0	100(861)	11.839*
	성별	남	7.9	13.6	41.4	26.6	100(418)	
		여	5.2	14.2	42.0	33.0	100(443)	
	교급	초	5.9	12.3	37.0	33.1	100(341)	19.334
		중	7.3	16.5	45.4	26.9	100(260)	
		고	6.5	13.5	44.2	28.5	100(260)	
문화· 취미 활동	전체	7.0	13.1	41.7	29.9	8.3	100(863)	24.023***
	성별	남	9.8	15.8	42.6	23.9	100(418)	
		여	4.3	10.6	40.9	35.5	100(445)	

서머타임제가 시작되면, 친구만나기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54.6%)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13.6%에 불과하였다(<표 III-2-41>). 남자보다는 여자응답자들이, 그리고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또 군/면이나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의 응답자들이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친구만나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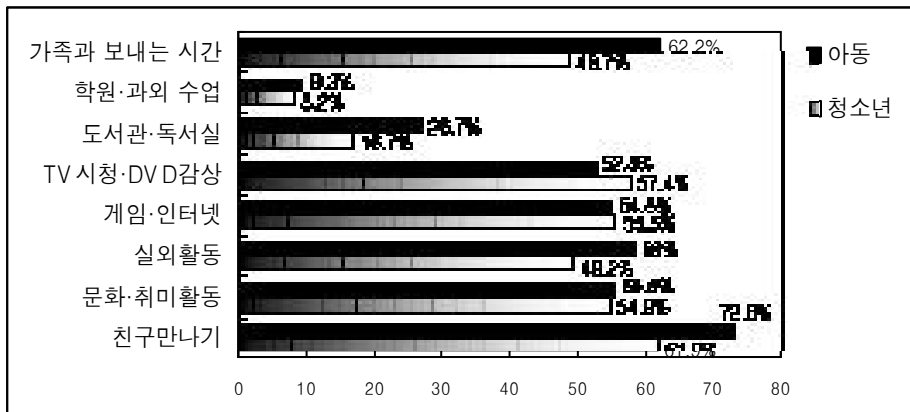
<표 III-2-41>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친구 만나기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1	7.5	31.8	36.0	18.6	100(865)	10.096*
성별	남	7.2	8.4	35.4	32.3	16.7	100(418)	
	여	5.1	6.7	28.4	39.4	20.4	100(447)	
교급	초	7.3	7.9	25.7	37.3	21.9	100(343)	17.075*
	중	5.7	7.3	38.7	30.3	18.0	100(261)	
	고	5.0	7.3	33.0	39.8	14.9	100(261)	
지역	군/면	6.6	3.6	37.2	31.4	21.2	100(137)	17.414*
	중소도시	5.3	10.3	31.3	34.7	18.5	100(476)	
	대도시	7.5	4.4	29.8	40.9	17.5	100(252)	

5) 희망하는 시간활용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일광시간이 증가할 경우 선호하는 활동이나 시간활용을 빈도순으로 보면, ‘친구만나기’가 66.3%(‘선호하는 편이다’와 ‘매우 선호한다’)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TV시청·DVD감상’(55.4%), ‘게임·인터넷’(55.2%), ‘문화·취미활동’(55.1%), ‘가족과 보내는 시간’(54.1%), ‘실외활동’(52.7%)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과반수를 넘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도서관·독서실’(20.6%), ‘학원·과외수업’ 등은 (8.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선호하는 시간활용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차이를 보면, [그림 III-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은 모든 항목에서 청소년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도서관·독서실, 실외활동, 친구 만나기에서 청소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인터넷 사용에서만 아동보다 약간 더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늘어날 것이다’와 ‘매우 늘어날 것이다’의 합친 값 기준

[그림 III-2-1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III-2-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된 일광시간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생(61.9%)이 중·고생 보다(각각 50.8%와 46.5%)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상위수준이고, 학업 성적도 상위집단인 응답자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용돈수준변인의 경우에는 하위집단의 응답자들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2>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9	5.1	36.9	38.8	15.3	100(993)	
교급	초	2.0	3.8	32.0	40.3	21.9	100(397)	40.939***
	중	6.7	5.0	37.5	37.1	13.7	100(299)	
	고	3.7	7.1	42.8	38.4	8.1	100(297)	
모학력	중졸이하	6.6	4.9	47.5	36.1	4.9	100(61)	27.808**
	고졸	2.7	4.5	40.4	39.9	12.6	100(557)	
	대졸이상	4.9	5.7	30.3	38.0	21.1	100(350)	
부직업	유	4.1	4.6	37.1	38.7	15.4	100(945)	11.034*
	무	0.0	16.7	30.0	43.3	10.0	100(30)	
경제 수준	하	8.4	7.2	30.1	42.2	12.0	100(83)	25.157**
	중	3.5	4.8	40.3	38.4	13.0	100(690)	
	상	3.4	4.9	29.1	38.8	23.8	100(206)	
용돈 수준	하	3.3	5.2	33.3	35.2	22.9	100(210)	18.322*
	중	3.9	3.4	38.6	40.5	13.6	100(464)	
	상	4.9	7.2	36.6	39.2	12.1	100(265)	
학업 성적	하	5.7	5.7	39.8	35.6	13.3	100(264)	23.210**
	중	2.2	5.6	41.2	37.8	13.2	100(410)	
	상	4.8	3.5	29.2	42.9	19.6	100(312)	

‘학원과 과외를 통한 학업’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특히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또 경제적으로 하위집단인 경우 선호도(‘선호하는 편이다’와 ‘매우 선호한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표 III-2-43>). 역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도서관과 독서실에서 시간보내기’는 남자아동·청소년 집단에서,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

제적으로 상위 수준일 때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용돈변인의 경우에는 용돈수준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았다(<표 III-2-44>).

<표 III-2-43>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학원·과외 수업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5.6	29.2	36.5	6.7	2.0	100(991)	
부학력	중졸이하	32.3	21.5	43.1	3.1	0.0	100(65)	16.341*
	고졸	26.2	33.5	33.3	5.7	1.4	100(442)	
	대졸이하	23.8	26.2	39.5	8.1	2.4	100(458)	
모학력	중졸이하	26.7	26.7	45.0	1.7	0.0	100(60)	18.090*
	고졸	25.3	32.0	36.4	4.8	1.4	100(557)	
	대졸이상	26.1	24.9	36.7	10.0	2.3	100(349)	
경제 수준	하	34.9	22.9	31.3	8.4	2.4	100(83)	36.371***
	중	25.8	31.8	36.9	4.6	0.9	100(689)	
	상	21.5	24.4	37.1	12.7	4.4	100(205)	

<표 III-2-44>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도서관·독서실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5.7	23.0	40.6	15.8	4.8	100(991)	
성별	남	19.0	26.0	38.0	13.2	3.7	100(484)	18.260**
	여	12.6	20.1	43.0	18.3	5.9	100(507)	
교급	초	14.4	21.0	37.9	18.9	7.8	100(396)	21.835**
	중	18.8	23.8	42.3	12.4	2.7	100(298)	
	고	14.5	24.9	42.4	15.2	3.0	100(297)	
모학력	중졸이하	19.7	26.2	37.7	13.1	3.3	100(61)	19.115*
	고졸	13.5	25.6	42.7	15.1	3.1	100(555)	
	대졸이상	17.7	18.9	38.3	17.7	7.4	100(350)	
모직업	유	17.7	23.2	37.7	17.0	4.3	100(671)	11.694*
	무	11.7	22.7	46.4	13.3	5.8	100(308)	
경제 수준	하	15.7	26.5	37.3	18.1	2.4	100(83)	22.132**
	중	15.7	24.2	42.5	14.1	3.5	100(689)	
	상	16.0	18.4	35.4	20.9	9.2	100(206)	
용돈 수준	하	11.4	20.0	41.9	18.6	8.1	100(210)	15.821*
	중	16.0	25.5	38.9	15.8	3.9	100(463)	
	상	19.2	21.9	41.9	13.6	3.4	100(265)	

TV시청·DVD감상(55.4%)와 게임·인터넷(55.2%)항목은 과반수가 넘는 비슷한 수준의 높은 선호도(‘선호하는 편이다’와 ‘매우 선호한다’)를 보였으며, 특히 게임·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아동·청소년 집단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집단일수록 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5>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TV시청·DVD감상/게임·인터넷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 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TV시청· DVD감상	전체		2.9	4.4	37.3	41.2	14.2	100(993)	
	전체		3.7	6.4	34.6	36.2	19.0	100(994)	
게임· 인터넷	성별	남	3.7	4.7	29.0	37.2	25.3	100(486)	32.995***
		여	3.7	8.1	40.0	35.2	13.0	100(508)	
	경제 수준	하	6.0	3.6	33.7	32.5	24.1	100(83)	17.121*
		중	2.6	6.2	34.7	38.9	17.5	100(691)	
		상	6.3	8.7	34.8	29.0	21.3	10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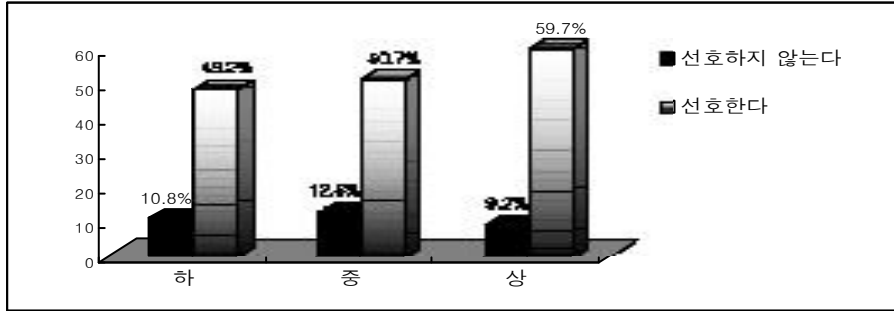
역시 과반수가 넘는 선호도를 보인 실외활동에 대해서는 <표 III-2-46>에서 보듯이, 교급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일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6>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실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6	7.3	35.4	34.3	18.4	100(991)	
모학력	중졸이하	6.6	11.5	45.9	26.2	9.8	100(61)	19.648*
	고졸	3.4	6.8	37.1	36.9	15.8	100(556)	
	대졸이상	5.2	7.4	31.8	32.1	23.5	100(349)	
경제 수준	하	6.0	4.8	41.0	26.5	21.7	100(83)	22.102**
	중	4.7	7.8	36.8	35.9	14.8	100(688)	
	상	3.9	5.3	31.1	32.0	27.7	100(206)	

실외활동 선호도에 대한 경제수준별 집단 간 차이는 [그림 III-2-20]에서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에서 실외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호하지 않는다 =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와 “선호하지 않는편이다”의 합친 값
선호한다 = “선호하는 편이다”와 “매우 선호한다” 합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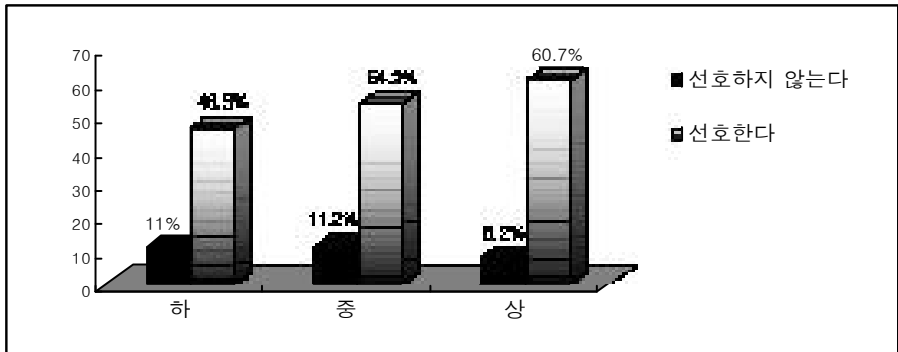
[그림 III-2-20] 경제수준에 따른 실외활동시간 선호도

문화·취미활동의 경우에도 교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2-47>).

<표 III-2-47>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문화·취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6	7.1	34.1	34.9	20.2	100(990)	
성별	남	5.8	7.9	38.2	29.1	19.0	100(484)	27.298***
	여	1.6	6.3	30.2	40.5	21.3	100(506)	
부학력	중졸이하	4.6	3.1	46.2	26.2	20.0	100(65)	28.240***
	고졸	3.6	8.9	36.4	36.8	14.3	100(440)	
	대졸이상	2.4	5.9	31.4	34.0	26.4	100(459)	
모학력	중졸이하	4.9	3.3	50.8	26.2	14.8	100(61)	33.037***
	고졸	3.1	8.8	35.9	36.3	15.9	100(554)	
	대졸이상	2.6	4.9	30.0	34.3	28.3	100(350)	
경제수준	하	6.1	4.9	42.7	25.6	20.7	100(82)	18.290*
	중	3.2	8.0	34.6	36.6	17.6	100(688)	
	상	2.9	5.3	31.1	32.5	28.2	100(206)	
용돈수준	하	2.4	9.1	32.5	30.1	25.8	100(209)	20.656**
	중	4.8	8.7	34.6	34.0	18.0	100(462)	
	상	1.5	3.4	35.8	38.1	21.1	100(265)	

남자보다는 여자아동·청소년집단에서,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경제적으로 상위수준이고, 용돈도 높은 수준으로 받는 응답자 집단에서 문화·취미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취미활동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수준이 상위집단에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2-21]).



※ 선호하지 않는다 =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와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의 합친 값
선호한다 = “선호하는 편이다”와 “매우 선호한다” 합친 값

[그림 Ⅲ-2-21] 경제수준에 따른 문화·취미활동시간 선호도

<표 Ⅲ-2-4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친구 만나기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2.8	3.5	27.4	38.0	28.3	100(993)	
성별	남	3.9	4.1	29.9	36.9	25.2	100(485)	10.779*
	여	1.8	3.0	25.0	39.0	31.3	100(508)	
교급	초	2.8	4.3	20.2	36.3	36.5	100(397)	31.418***
	중	3.3	2.7	30.8	40.1	23.1	100(299)	
	고	2.4	3.4	33.7	38.0	22.6	100(297)	
부학력	중졸이하	3.0	3.0	40.9	30.3	22.7	100(66)	16.780*
	고졸	2.5	4.5	28.5	40.0	24.4	100(442)	
	대졸이상	2.6	2.4	24.8	37.3	32.9	100(459)	
모학력	중졸이하	4.9	4.9	45.9	24.6	19.7	100(61)	22.957**
	고졸	2.2	3.2	28.9	39.7	26.0	100(557)	
	대졸이상	3.1	3.4	22.3	37.7	33.4	100(350)	
경제수준	하	6.0	7.2	31.3	27.7	27.7	100(83)	36.166***
	중	2.8	2.3	29.1	41.0	24.8	100(690)	
	상	1.5	5.8	19.9	33.5	39.3	100(206)	

서머타임제 도입 시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에 가장 선호하는 시간활용으로 나타난 ‘친구만나기’항목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아동청소년집단이,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인 경우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48>).

이러한 서머타임제 도입 시 선호하는 시간활용 및 활동들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II-2-49>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항목들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모든 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실외활동(운동, 산책, 등산 등)’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319)를 보여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표 III-2-4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선호하는 시간활용의 각 항목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	.126**	1						
3	.257**	.493**	1					
4	.200**	-.064*	-.004	1				
5	.101**	-.150**	-.139**	.562**	1			
6	.319**	.086**	.237**	.194**	.151**	1		
7	.284**	.077*	.190**	.244**	.153**	.471**	1	
8	.264**	-.022	.026	.339**	.314**	.354**	.375**	1

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식사, 대화, 여가시간 등)

3. 도서관이나 독서실가기

5. 게임이나 인터넷하기

7. 문화취미활동(영화보기, 악기연주, 만들기 등)

8. 친구만나기

2. 학원이나 과외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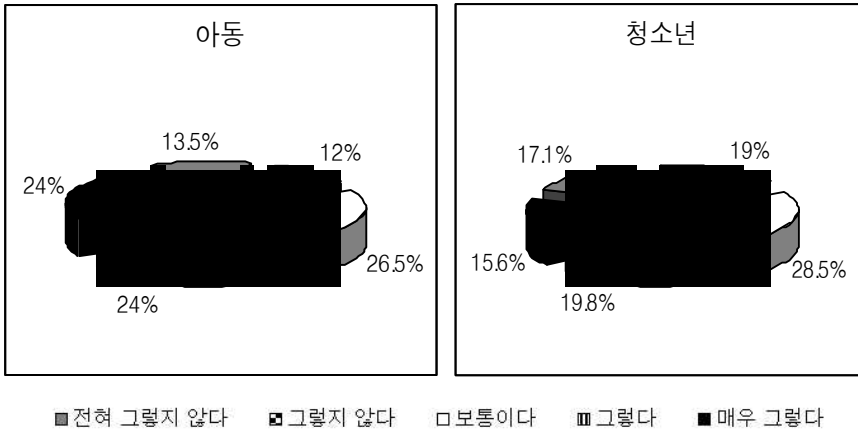
4. TV시청/DVD 감상

6. 실외활동(운동, 산책, 등산 등)

‘학원이나 과외수업’ 항목은 ‘도서관이나 독서실가기’와 높은 상관관계(.493)를 보였으며, ‘TV시청/DVD감상’은 ‘게임이나 인터넷 하기’ (.562)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대체로 ‘TV시청/DVD감상’, ‘게임이나 인터넷

하기’, ‘친구만나기’ 항목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활동’은 ‘문화·취미활동’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471)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아침기상과 등교시간 등이 한 시간 당겨지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아침식사를 더 거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식사 급식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0.5%가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보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그보다 약 10% 적은 30.9%로 나타났다.



[그림 Ⅲ-2-22]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세부변인별로 보면(<표 Ⅲ-2-50>), 성별, 교급,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아동·청소년보다는 남자아동·청소년들이 그리고 중·고생보다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 또 경제적으로 하위이거나 중간인 집단의 응답자들이 아침급식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0>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5.7	16.2	27.7	21.5	19.0	100(996)	
성별	남	18.3	13.8	26.3	20.9	20.7	100(487)	9.960*
	여	13.2	18.5	29.1	22.0	17.3	100(509)	
교급	초	13.5	12.0	26.5	24.0	24.0	100(400)	28.926***
	중	15.7	18.1	28.4	17.7	20.1	100(299)	
	고	18.5	19.9	28.6	21.9	11.1	100(297)	
모직업	유	13.9	16.4	26.7	22.2	20.7	100(675)	9.970*
	무	19.8	15.9	29.9	19.5	14.9	100(308)	
경제 수준	하	9.6	15.7	31.3	16.9	26.5	100(83)	18.132*
	중	15.3	16.5	29.5	22.3	16.5	100(692)	
	상	18.9	15.5	20.4	20.4	24.8	100(206)	

또한 서머타임제가 시행되면 한 시간 일찍 하루의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점심식사 시간 역시 당겨질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과반수가 넘는 52.2%의 아동·청소년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아동·청소년들이 더 필요성을 높게 나타냈다.

<표 Ⅲ-2-51>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9	11.6	29.2	31.1	21.1	100(996)	
성별	남	8.9	13.2	26.8	29.1	22.1	100(485)	10.666*
	여	5.1	10.2	31.5	33.1	20.2	100(511)	

3. 학부모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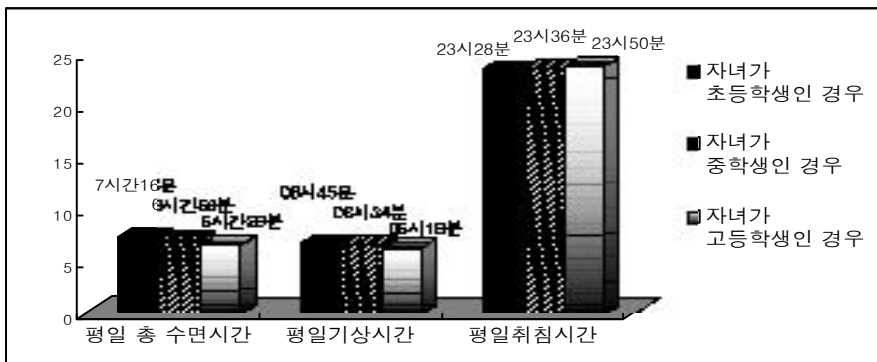
1) 생활시간과 건강

서머타임제는 도입초기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수면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어머니의 평균 수면 및 취침시간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표 Ⅲ-3-1>와 같이, 평일에 평균적으로 6시간 49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기상시간은 아침 6시 30분, 취침시간은 저녁 11시 40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시간 49분의 평균수면 시간은 충분한 성인의 수면시간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서머타임제 도입 초기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체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3-1> 평균 수면 및 기상·취침시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일수면시간	6시간49분	11시간	3시간30분
평일기상시간	6시30분	10시	04시
평일취침시간	23시40분	03시	20시30분

특히 자녀의 교급별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수면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등을 살펴보면, [그림 Ⅲ-3-1]에서와 같이,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면을 가장 적게 취했고, 일찍 기상했으며, 또 가장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1] 자녀교급에 따른 평균 수면시간 및 기상·취침 시간

평일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표 III-3-2>),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와 자녀의 교급별,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교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 때 수면을 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평일 총 수면시간 평균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6시간49분	1시간07분	504		
연령	30대	7시간02분	1시간02분	126	3.870*	
	40대	6시간46분	1시간08분	327		
	50세이상	6시간34분	1시간00분	34		
자녀교급	초등학생	7시간16분	1시간08분	119	22.922***	1 > 3 2 > 3
	중학생	6시간58분	1시간01분	162		
	고등학생	6시간29분	1시간05분	223		
학력	중졸이하	6시간56분	1시간13분	25	3.782*	2 > 3
	고졸	6시간56분	1시간10분	278		
	대졸이상	6시간39분	1시간01분	196		
직업	유	6시간52분	1시간09분	355	1.598	
	무	6시간42분	1시간04분	149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6시간53분	1시간11분	102	2.222	
	201~400만원	6시간53분	1시간07분	208		
	401만원이상	6시간38분	1시간03분	130		

<표 III-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 기상시간은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급이 높을수록, 또 학력이 낮을수록 아침에 더 일찍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간의 경우에도 자녀교급이 높을수록 늦게 취침하고 있었고, 더불어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침시간도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평일 기상시간 평균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6시30분	48분	506		
연령	30대	6시42분	43분	126	6.189**	1 > 2 1 > 3
	40대	6시26분	50분	327		
	50세이상	6시16분	37분	34		
자녀 교급	초등학생	6시45분	42분	119	13.352***	1 > 3 2 > 3
	중학생	6시34분	44분	163		
	고등학생	6시18분	51분	224		
학력	중졸이하	6시10분	1시02분	25	3.102*	
	고졸	6시28분	50분	280		
	대졸이상	6시34분	43분	196		
직업	유	6시31분	50분	357	0.991	
	무	6시27분	43분	149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6시23분	53분	102	1.959	
	201~400만원	6시28분	48분	210		
	401만원이상	6시35분	46분	130		

<표 III-3-4> 평일 취침시간 평균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	t/F	Scheffe
전체		23시40분	1시00분	504		
연령	30대	23시40분	58분	126	0.039	
	40대	23시41분	59분	327		
	50세이상	23시42분	58분	34		
자녀 교급	초등학생	23시28분	1시00분	119	5.863**	3 > 1
	중학생	23시36분	1시00분	162		
	고등학생	23시50분	58분	223		
학력	중졸이하	23시14분	50분	25	11.287***	3 > 1 3 > 2
	고졸	23시33분	1시00분	278		
	대졸이상	23시55분	57분	196		
직업	유	23시39분	1시01분	355	-0.957	
	무	23시44분	58분	149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23시30분	1시01분	102	7.643**	3 > 1 3 > 2
	201~400만원	23시36분	59분	208		
	401만원이상	23시57분	56분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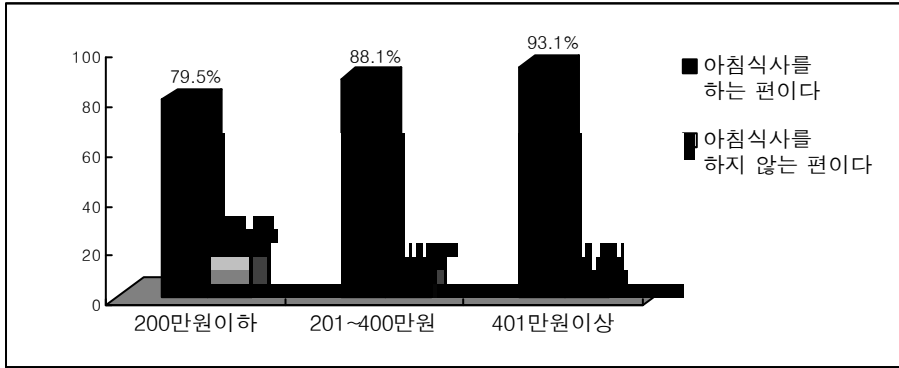
아침식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성인과 자녀 모두 매일 혹은 보통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표 Ⅲ-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86.6%, 86.4%로 거의 유사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변인별로 보면, 자녀의 교급이 올라갈수록 결식률이 높았는데, 아침식사를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는 항목에 대해 초등학생은 7.6%, 중학생은 11%, 고등학생은 18.8%가 응답해 고등학생의 결식률은 초등학생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아침식사 여부

(단위 : %)

구 분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하는 편이다	거의 하지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않는 편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가족 중 성인		60.3	26.3	12.5	1.0	100(506)	
가족 중 자녀		61.5	24.9	12.3	1.4	100(506)	
자녀 교급	초등학생	71.4	21.0	7.6	0.0	100(119)	15.092*
	중학생	59.5	29.4	10.4	0.6	100(163)	
	고등학생	57.6	23.7	16.1	2.7	100(224)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52.0	27.5	16.7	3.9	100(102)	20.576**
	201~400만원	63.8	24.3	11.9	0.0	100(210)	
	401만원이상	66.2	26.9	6.9	0.0	100(130)	

가구소득별 차이를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결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6%로 200~400만원인 가구(11.9%)의 2배, 400만원 이상인 가구(6.9%)의 3배 이상의 결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수준별 아침식사 여부는 [그림 Ⅲ-3-2]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 하는 편이다 = “매일 하는 편이다”와 “보통 하는 편이다”의 합친 값
 하지 않는 편이다 =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 합친 값

[그림 Ⅲ-3-2] 가구소득에 따른 아침식사 여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표 Ⅲ-3-6>), ‘가족들이 일찍 등교, 출근해서’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맛이 없어서’,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의 순으로 나타나,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식사 결식은 실제로 더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Ⅲ-3-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가족들이 일찍 등교, 출근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족 모두 아침을 안먹는 습관	기타	전체 (빈도)
전체	36.5	31.1	24.3	8.1	100(74)

2) 서머타임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조사대상 어머니들에게 서머타임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Ⅲ-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74.1%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에 비해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이고, 자녀가 초등학생인 어머니가 서머타임제를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대중매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7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8.8%), 가정(1.9%)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표 III-3-7> 서머타임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74.1	25.9	100(506)	
연령	30대	82.5	17.5	100(126)	6.176*
	40대	71.3	28.7	100(327)	
	50세이상	76.5	23.5	100(34)	
자녀교급	초등학생	86.6	13.4	100(119)	35.630***
	중학생	82.8	17.2	100(163)	
	고등학생	61.2	38.8	100(224)	

<표 III-3-8> 서머타임제 인지경로

(단위 : %)

구 분		회사	가정	대중매체	기타	전체(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8.8	1.9	76.0	13.3	100(375)	
자녀교급	초등학생	5.8	0.0	71.8	22.3	100(103)	15.557*
	중학생	11.1	3.7	76.3	8.9	100(135)	
	고등학생	8.8	1.5	78.8	10.9	100(137)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어머니의 대다수인 80.6%가 잘 알고 있는 것(‘잘 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안다’)으로 나타났다(<표 III-3-9>).

<표 III-3-9>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전체(빈도)
전체	0.3	19.2	67.5	13.1	100(375)

서머타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III-3-10>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의 30.8%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45.7%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응답자에게서 서머타임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30.8	45.7	23.5	100(119)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29.4	38.2	32.4	100(102)	16.905**
	201~400만원	27.1	51.9	21.0	100(210)	
	401만원이상	40.8	45.4	13.8	100(130)	

3)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자녀의 생활 및 생활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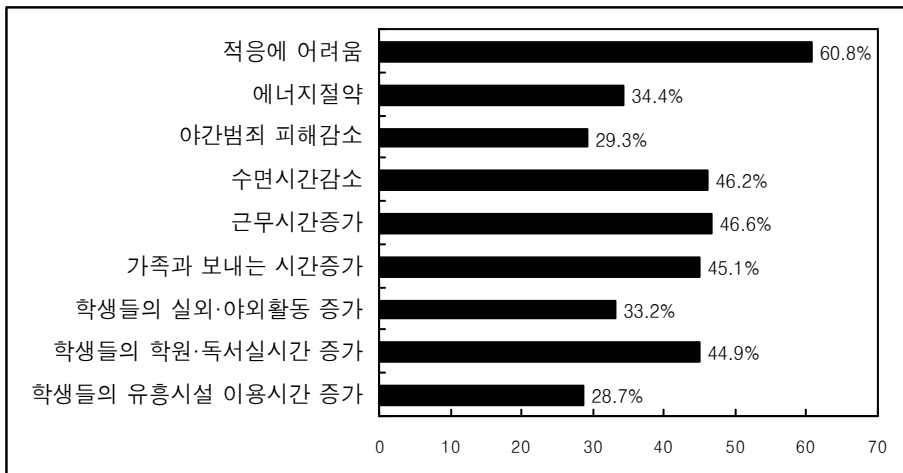
서머타임제 도입 시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과 자녀의 생활 및 생활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표 III-3-11>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어머니의 66.2%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머타임제로 인해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III-3-1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단위 : %)

구 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6.2	33.8	100(506)	
학력	중졸이하	56.0	44.0	100(25)	13.477**
	고졸	60.0	40.0	100(280)	
	대졸이상	75.5	24.5	100(196)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57.8	42.2	100(102)	6.609*
	201~400만원	65.7	34.3	100(210)	
	401만원이상	73.8	26.2	100(130)	

[그림 Ⅲ-3-3]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생활변화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0.8%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12%만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34.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38.6%, 부정적인 응답은 2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보다 30대~40대의 응답자들에게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3-3]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야간범죄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9.3%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3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6.2%가 수면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사한 비율인 46.6%의 응답자는 근무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3-12>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적응에 어려움	전체	2.4	9.6	27.2	47.0	13.8	100(334)		
에너지 절약	전체	4.5	22.5	38.6	29.3	5.1	100(334)	19.110*	
	연령	30대	1.1	30.0	34.4	27.8	6.7		100(90)
		40대	6.2	20.1	43.1	25.8	4.8		100(209)
		50세이상	4.5	9.1	22.7	59.1	4.5		100(22)
야간범죄 피해감소	전체	4.5	33.5	32.6	26.0	3.3	100(334)		
수면시간 감소	전체	1.5	22.8	29.4	40.8	5.4	100(333)		
근무시간 증가	전체	3.3	21.2	29.0	42.1	4.5	100(335)	15.760*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0.0	16.9	37.3	42.4	3.4		100(59)
		201~400만원	5.1	21.7	26.8	44.2	2.2		100(138)
		401만원이상	1.0	26.0	26.0	37.5	9.4		100(96)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33.2%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26%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40.9%에 달했다. 학생들의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5.3%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고졸이나 대졸이상일 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3-13> 서머타임제로 인한 가족과 자녀의 생활의 변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증가	전체	2.4	23.6	40.9	27.8	5.4	100(335)		
학생들의 실외·여가 활동 증가	전체	2.1	19.7	33.1	40.3	4.8	100(335)	17.430*	
	학 력	중졸이하	7.1	7.1	64.3	21.4	0.0		100(14)
		고졸	0.0	20.8	32.7	42.9	3.6		100(168)
		대졸이상	4.1	19.6	30.4	39.2	6.8		100(148)

<표 Ⅲ-3-14>에서 보듯이 서머타임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약 4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은 21%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거나 대졸이상일 때 중졸이하 학력의 응답자보다 학생들의 학원 및 독서실 이용시간 증가 가능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3-14> 서머타임제로 인한 자녀생활과 생활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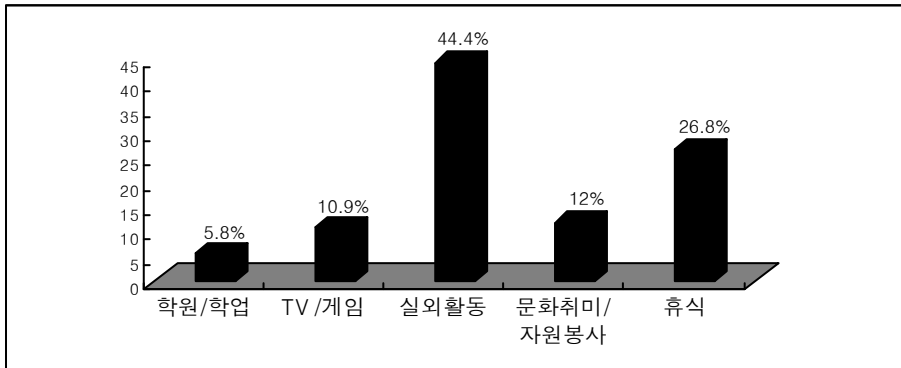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 값
학원·독서 실 시간 증가	전체	3.3	17.7	34.1	39.8	5.1	100(334)	17.389*
	학력	중졸이하	14.3	7.1	50.0	28.6	0.0	100(14)
		고졸	1.2	22.8	29.3	41.9	4.8	100(167)
		대졸이상	4.7	13.5	37.8	37.8	6.1	100(148)
유흥시설 이용시간 증가	전체	7.2	34.1	29.9	25.4	3.3	100(334)	11.731*
	직업	유	8.1	30.2	29.4	29.8	2.6	100(235)
		무	5.1	43.4	31.3	15.2	5.1	100(99)

또한 학생들의 유흥시설 이용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이 28.7%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41.3%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어머니들은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광시간 증가가 학생들의 유흥시설 이용시간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은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유흥시설의 이용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각각 32.4%, 20.3%).

4) 희망하는 시간 활용

늘어나는 일광시간 동안 가족들 혹은 자녀들의 시간활용으로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을 조사하였다. [그림 Ⅲ-3-4]와 <표 Ⅲ-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희망하는 가족들의 평일 시간활용으로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Ⅲ-3-4]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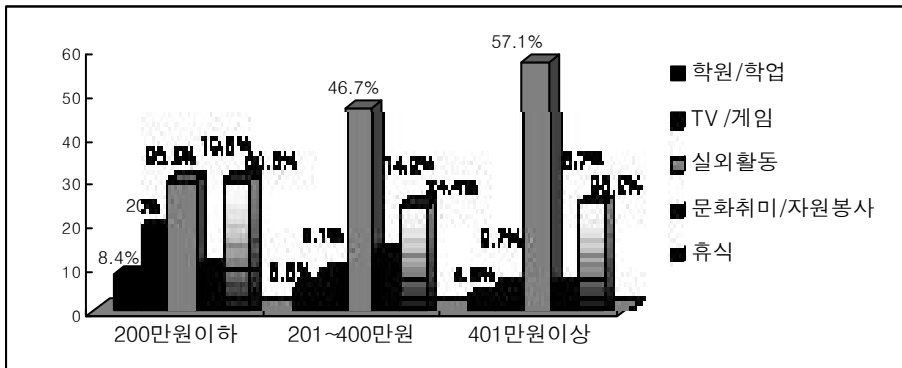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가족들의 시간활용으로 ‘휴식’이 26.8%였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취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선호도는 12%였고, ‘TV/게임’도 비슷한 수준인 10.9%로 나타났다.

<표 Ⅲ-3-15>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단위 : %)

구 분		학원/학업	TV/게임	실외활동	문화취미/자원봉사	휴식	전체(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5.8	10.9	44.4	12.0	26.8	100(466)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8.4	20.0	30.5	10.5	30.5	100(95)	24.220**
	201~400만원	5.6	9.1	46.7	14.2	24.4	100(197)	
	401만원이상	4.2	6.7	57.1	6.7	25.2	100(119)	

특히 [그림 III-3-5]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경우 ‘실외활동’과 ‘휴식’이 30.5%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매우 적은 응답률을 보인 ‘TV/게임’ 등의 시간활용에 대해 20%의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 실외활동 중심의 적극적인 일광시간활용보다는 실내에서의 소극적인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3-5]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가구소득별 비교

휴일에 늘어나는 일광시간 동안 가족들의 희망 시간활용으로 응답자의 37.3%가 문화취미/자원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실외활동(28.2%), 휴식(23.6%), TV/게임(6.7%), 학업/학업(4.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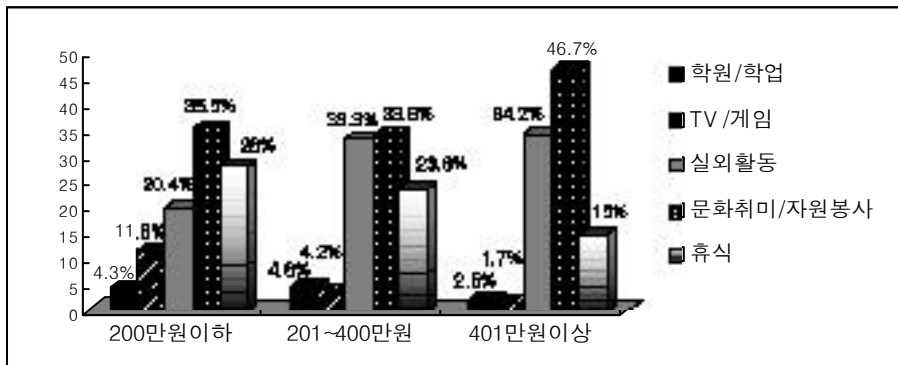
<표 III-3-16>에서와 같이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자녀의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실외활동과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활동이 비슷한 수준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녀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청소년연령인 경우에는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활동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머니 응답자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도 실외활동이나 문화·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TV/게임, 실외활동, 휴식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활동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II-3-16> 휴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단위 : %)

구 분		학원/ 학업	TV/ 게임	실외 활동	문화취미/ 자원봉사	휴식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4.1	6.7	28.2	37.3	23.6	100(461)	
자녀 교급	초등학생	3.6	8.2	38.2	37.3	12.7	100(110)	15.961*
	중학생	5.5	4.1	24.0	37.7	28.8	100(146)	
	고등학생	3.4	7.8	25.9	37.1	25.9	100(205)	
학력	중졸이하	8.0	20.0	28.0	12.0	32.0	100(25)	20.503**
	고졸	4.7	6.6	24.6	39.5	24.6	100(256)	
	대졸이상	1.7	5.1	34.1	38.6	20.5	100(176)	
직업	유	4.0	6.5	25.2	36.9	27.4	100(325)	10.159*
	무	4.4	7.4	35.3	38.2	14.7	100(136)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4.3	11.8	20.4	35.5	28.0	100(93)	23.901**
	201~400만원	4.8	4.2	33.3	33.9	23.8	100(189)	
	401만원이상	2.5	1.7	34.2	46.7	15.0	100(120)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활동과 휴식의 비율이 높았으나,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실외활동과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활동이 선호하는 시간활용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 200만원미만인 가구와 200만원~400만원인 가구보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실외활동과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시간활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6] 휴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가족의 시간활용:
가구소득별 비교

조사대상 어머니가 희망하는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의 자녀의 시간활용을 살펴보면 <표 III-3-17>와 같다. 평일의 경우 자녀가 아동인 경우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학원이나 과외수업의 응답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다음으로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응답했으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 역시 유사한 항목인 도서관/독서실을 높게 응답했다. 휴일의 늘어난 일광시간 자녀의 활동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에서 1순위로 문화, 취미활동을, 2순위로는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구 분			자녀의 시간활용		
			1위	2위	3위
평일	아동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34)	학원이나 과외수업 (25)	도서관/독서실이용 (16)
	청소년	중	학원이나 과외수업 (42)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28)	도서관/독서실이용 (22)
		고	학원이나 과외수업 (60)	도서관/독서실이용 (49)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28)
휴일	아동		문화, 취미활동 (32)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21)	도서관/독서실이용(15) 컴퓨터게임/인터넷사용(15)
	청소년	중	문화, 취미활동 (40)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32)	특별한 활동없이 휴식 (27)
		고	문화, 취미활동 (55)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32)	특별한 활동없이 휴식 (30)

※ 괄호 안은 빈도수

※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기준으로 빈도수에 따라 순위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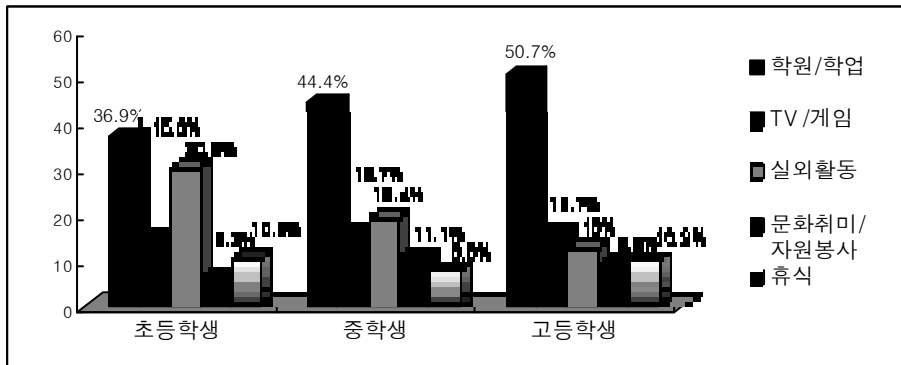
<표 III-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평일 시간활용으로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학업을 응답자들의 과반수 가까이 응답해 가장 선호하는 시간활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8>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변인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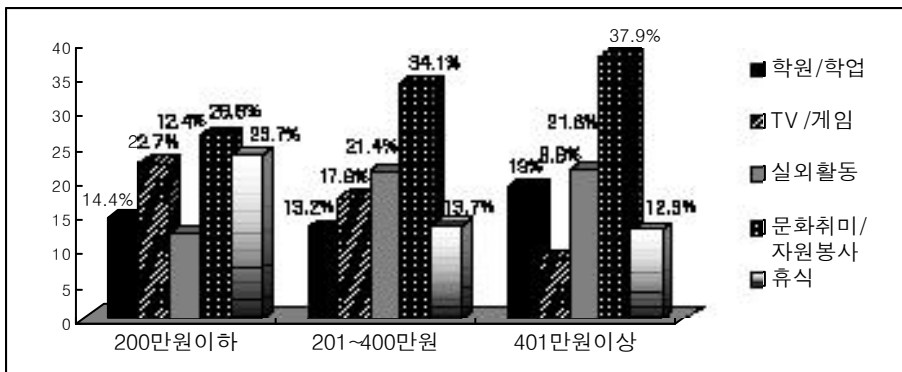
구 분		학업	TV/ 게임	실외 활동	문화취미 자원봉사	휴식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평일	전체		45.5	16.4	19.1	9.1	9.8	100(470)	17.126*
	자녀 교급	초등학생	36.9	15.3	30.6	6.3	10.8	100(111)	
		중학생	44.4	16.7	19.4	11.1	8.3	100(144)	
		고등학생	50.7	16.7	13.0	9.3	10.2	100(215)	
	직업	유	43.6	18.5	17.0	11.2	9.7	100(330)	11.773*
		무	50.0	11.4	24.3	4.3	10.0	100(140)	
휴일	전체		15.0	18.1	18.7	32.6	15.6	100(454)	18.487*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14.4	22.7	12.4	26.8	23.7	100(97)	
		201~400만원	13.2	17.6	21.4	34.1	13.7	100(182)	
		401만원이상	19.0	8.6	21.6	37.9	12.9	100(116)	

그 다음으로서는 실외활동(19.1), TV/게임(16.4%), 휴식(9.8%), 문화·취미·자원봉사 활동(9.1%)순이었다. 평일 시간활용은 특히 자녀의 교급 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그림 Ⅲ-3-7]), 학업에 대한 선호도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외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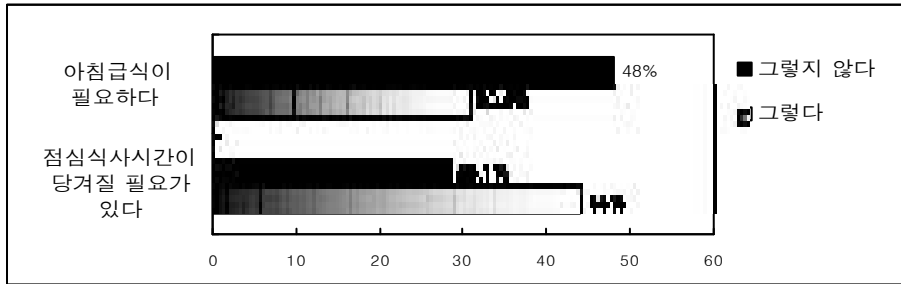
[그림 Ⅲ-3-7] 평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자녀교급별 비교

또한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에 학업에 대한 선호도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휴일에 가장 선호하는 시간활용으로는 문화·취미·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높은 32.6%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간활용은 15%~18%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한 [그림 III-3-8]에서와 같이 가구소득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취미·자원봉사 활동에 선호도가 높았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가장 상위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리고 TV/게임이나 휴식 등의 비교적 소극적인 시간활용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하위인 집단에서 다른 가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그림 III-3-8] 휴일 늘어난 일광시간동안 희망하는 자녀의 시간활용: 가구소득별 비교

서머타임 시행 시 아침급식의 필요성과 점심급식의 시간을 당기는 것에 대해 어머니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III-3-9]와 같다. 아침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반면, 점심식사 시간이 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합친 값 기준
 그렇다 =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값 기준

[그림 Ⅲ-3-9] 아침급식 필요 및 점심식사시간 조정 필요 여부

서머타임 시행 시 아침급식이 필요하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어머니의 30.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48%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표 Ⅲ-3-19>).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가구소득별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가장 하위인 집단에서는 3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침급식 필요성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3-19>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13.0	35.0	21.6	20.6	9.9	100(486)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9.0	20.0	32.0	26.0	13.0	100(100)	32.718***
	201~400만원	13.1	36.2	21.1	21.1	8.5	100(199)	
	401만원이상	16.9	49.2	11.3	16.9	5.6	100(124)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Ⅲ-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4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약 2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경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고졸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그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3-20>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체		6.0	22.1	27.9	37.6	6.4	100(502)	
학력	중졸이하	0.0	8.3	62.5	12.5	16.7	100(24)	32.431***
	고졸	6.1	19.4	27.3	42.8	4.3	100(278)	
	대졸이상	6.7	27.7	24.1	33.3	8.2	100(195)	

IV.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 적응 및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방안

1. 조사결과 요약
2. 논의 및 정책 제언

IV.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 적응 및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방안

1. 조사결과 요약

1)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요약

(1) 건강과 생활시간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한 시간 일찍 기상하는 것은 아침식사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23.7%가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생의 결식비율이 33.5%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결식이유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역시 고등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한 시간 일찍 등교하게 될 때 아동·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업성적이 하위인 집단과 어머니가 직업이 있고, 경제적으로 하위수준일 때 아침식사 결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식사 급식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0.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남자아동·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 또 경제적으로 하위집단에서 아침 급식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 시간도 한 시간 당겨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평균취침시간은 매우 늦은 시간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11시에 가까웠고, 중학생은 11시 30분, 고등학생은 밤 12시 33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은 평균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기상 시간은 6시 30분대로 나타나 서머타임 시행으로 한 시간 더 일찍 기상하게

된다면 충분한 수면과 신체리듬 적응이 관건이 될 수 있다. 귀가시간을 보면 초등학생은 오후 4시 정도였고, 중학생은 4시 30분경으로 비교적 낮 시간에 귀가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은 평균적으로 7시 30분경이어서, 서머타임제 도입 시 충분히 일광시간 내 귀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평일 방과 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즉 일몰시간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학교를 통한 학업으로 나타나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실외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휴일 주요 시간활용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오후 5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TV 시청과 게임 및 인터넷 사용’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하절기 일몰시간 이전인 7시경에도 TV시청이 많았다. 실외활동 및 문화/취미활동의 경우 평일보다는 높지만 대체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여가시간활용

평일과 휴일의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주요활동의 1순위는 TV시청, 2순위는 음악 듣거나 컴퓨터 및 온라인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시청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대도시 거주 지역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학업수준에서 모두 중간수준의 집단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주로 ‘동성친구’와 보내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일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교급이 높을수록 가족과 보내는 비율보다는 동성친구와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를 보면, 특히 고등학생에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집단의 아동·청소년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6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여가시설 및 장소부족’(52.1%), ‘여가 프로그램 부족’(49.7%), ‘근거리 여가시설 부재’(41.4%),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름’(36.6%),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33.9%), ‘경제적 비용 부담’(32.5%)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도시지역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응답률이 중고생보다 높았다. ‘여가시설 장소 부족’, ‘근거리 여가시설 부재’, ‘여가 프로그램 부족’ 등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광시간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반 여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서머타임제의 인지도 및 인식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은 서머타임제에 대해 불과 13.8%의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여, 제도 도입 전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약 30%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라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66%로 높은 수준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생활리듬에 영향을 주어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의 64.4%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특히 고등학생이, 그리고 대도시지역과 학업성적이 상위인 응답자들이 더 적응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33.2%의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일몰시간이 늦어지면서 야간범죄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38.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과반수 가까이(48.7%)가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4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38%의 응답자들은 서머타임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과반수는 서머타임제로 인해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그리고 도시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할수록 실외활동이나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은 전체의 43%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약 20%정도에 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일광시간이 증가하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36.7%는 노래방 등의 유흥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4) 일광시간증가에 따른 시간활용에 대한 예측과 선호도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일광시간 증가로 예측되는 시간활용을 보면, ‘친구만나기’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게임·인터넷’(48.8%), ‘TV시청·DVD감상’(47.3%), ‘문화·취미활동’(38.2%), ‘실외활동’(37.8%), ‘학원·과외수업’(37.5%), ‘가족과 보내는 시간’(36.7%), ‘도서관·독서실’(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광시간이 증가할 경우 선호하는 시간활용으로 ‘친구만나기’가 6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TV시청·DVD감상’(55.4%), ‘게임·인터넷’(55.2%), ‘문화·취미활동’(55.1%), ‘가족과 보내는 시간’(54.1%), ‘실외활동’(52.7%)등의 순으로 모두 과반수를 넘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또 예측되는 시간활용과 유사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독서실’(20.6%), ‘학원·과외수업’(8.7%)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변인별 차이를 보면, 특히 증가된 일광시간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있으며, 또 경제적으로 상위수준이고, 학업성적도 상위집단인 응답자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실외활동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일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문화·취미활동의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아동·청소년집단에서,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상위수준이며, 용돈도 높은 수준일 때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조사결과

(1) 건강과 생활시간

조사대상 어머니의 평일 수면시간은 평균 6시간 49분으로, 기상은 아침 6시 30분, 취침은 저녁 11시 40분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교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 때 수면을 덜 취하고 있었다. 자녀의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았는데, 아침식사를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는 항목에 대해 초등학생은 7.6%, 중학생은 11%, 고등학생은 18.8%가 응답해 고등학생의 결식률은 초등학생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찍 등교, 출근해서’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서머타임 시행 시 아침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48%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가장 하위인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다.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2) 서머타임제 인식 및 가족·자녀의 생활 및 생활시간 변화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80.6%는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서머타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8%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45.7%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머타임제 도입시 일광시간 증가로 인한 가족과 자녀의 생활 및 생활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66.2%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60.8%의 응답자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34.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38.6%, 부정적인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야간범죄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29.3%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38%의 응답자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6.2%가 수면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사하게 46.6%는 근무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

에 대해서는 33.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26%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40.9%에 달했다. 학생들의 실외활동 및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5.3%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고졸이나 대졸이상일 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머타임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약 4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은 21%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거나 대졸이상일 때 중졸이하 학력의 응답자보다 학생들의 학원 및 독서실 이용시간 증가 가능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상당수는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광시간 증가가 학생들의 유흥시설 이용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3) 희망하는 시간 활용

늘어나는 일광시간 동안 희망하는 가족들의 평일 시간활용으로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4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가족들의 시간활용으로 ‘휴식’이 26.8%였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실외활동 중심의 적극적인 일광시간활용보다는 실내에서의 소극적인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일에 늘어나는 일광시간 동안 가족들의 희망 시간활용으로 응답자의 37.3%가 문화취미/자원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실외활동(28.2%), 휴식(23.6%), TV/게임(6.7%), 학업/학업(4.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실외활동과 문화·취미 및 자원봉사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시간활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머니가 희망하는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의 자녀의 시간활용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자녀가 아동인 경우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학원이나 과외수업의 응답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자는 자신의 중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그 다음 순으로 응답했으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 역시 유사한 항목인 도서관/독서실을 높은 비율로 선호하였다. 휴일의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 자녀의 활동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에서 1순위로 문화, 취미활동을, 2순위로 는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2. 논의 및 정책 제안

1)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제 적응과 생활시간 조정

(1)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제 적응을 위한 논의

서머타임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즉, 사회적 요구나 필요성으로 인해 일광 시간이 긴 여름에 외부 시계를 한 시간씩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시간의 변화는 특히 서머타임 시행 초기 인간의 생체 시계와 불일치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생체리듬과 건강,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일례로 서머타임 시행 초기에는 늦게 자고 일찍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간 졸음증을 호소할 수 있으며, 한 시간의 시간차라고 하더라도 인체 내의 생체리듬이 변화된 시차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박윤희 외, 2009).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64.4%가, 그리고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약 61%가 서머타임제 도입 시 생활리듬에 영향을 주어서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서머타임 적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건강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서머타임제와 관련하여 과거 생체리듬 및 건강 관련 연구들은 수면부족과 이에 따른 생활부적응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있어 균형 있는 식사가 매우 중요하고, 더구나 아침결식이 잦은 한국아동·청소년의 현실에서는 한 시간 일찍 기상하는 것은 아침결식의 빈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영양과 수면시간 등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로 한국아동·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이 상당히 높고 결식 이유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을 보면, 서머타임제로 인해 한 시간 일찍 일어나 등교하게 될 때, 아침식사를 더 자주 결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건

강과 학업 등의 인지적 활동에 미치는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볼 때,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가능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침식사 결식 증가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아침 일찍 등교하는 고등학생의 아침식사결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중 학업성적이 하위인 집단과 어머니가 직업이 있고, 경제적으로 하위수준일 때 아침식사 결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점심급식 뿐 아니라 아침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식사 급식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0.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남자아동·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 또 경제적으로 하위집단에서 아침급식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침식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아침급식 제공은 매우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점심식사 급식처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아침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아침급식 제공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머타임 시행 시 생활시간이 한 시간 당겨지면서 생체리듬도 역시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영양과 관련해서 점심식사시간을 당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상당히 긴 공복시간을 겪게 되므로 학업집중도와 기타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조사결과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 시간도 한 시간 당겨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경우에서도 아침급식의 필요성보다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일상생활, 특히 학업 및 일의 능률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성장 및 학업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

년에게 적절한 양질의 수면은 매우 중요하다. 서머타임제가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의 평균취침시간은 매우 늦은 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11시에 가까웠고, 중학생은 11시 30분, 고등학생은 밤 12시 33분이었고, 특히 고등학생은 평균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기상시간은 6시 30분대로 나타나 서머타임 시행으로 한 시간 일찍 기상하게 된다면 충분한 수면과 신체리듬의 적응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의 과반수 가까이(48.7%)가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외국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감안할 때(김영지·김희진, 2008; 박윤형 외, 2009) 서머타임제 도입이 수면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면습관 교정 및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과 교육, 그리고 서머타임제 도입 시 적정수면시간 확보 및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머타임제 도입시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부족한 수면시간 뿐 아니라 상당수 청소년의 수면패턴이 종달새 형(아침형: 일찍 취침, 일찍 기상)이 아닌 올빼미 형(저녁형: 늦은 취침, 늦은 기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늦은 취침시간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맞벌이,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학원 등의 사교육,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학업, TV시청, 인터넷과 게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올빼미 국가 중 우리나라가 3위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밤 12시 이후에 늦게 자는 올빼미 형 수면습관을 갖고 있다는 보고에서 보듯이(박윤형 외, 2009),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올빼미 형의 수면패턴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면습관을 고려할 때 서머타임 도입 시 아동·청소년의 수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무엇보다 수면부족은 낮 시간 졸음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한 수면부족 등 생체리듬 적응에 관련한 기존 서구의 연구결과를 보면 서머타임 시작 시 30분에서 1시간의 수면 단축은 있으나 대체로 1주일 정도면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onk et al, 1976; Kantermann et al, 2007; Lahti, et al, 2006). Lahti와 동료들의 연구(2006)(박윤희 외, 200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서머타임제 도입시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서머타임으로 인해 수면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지만, 반대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더 나빠진다고 예측하였고, Kantermann과 동료들의 연구(2007)(박윤희 외, 2009에서 재인용)에서는 아침형 인간은 1주일 이내에 쉽게 적응하는 반면 저녁형 인간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사람들의 수면패턴을 고려했을 때 서머타임 시행이 수면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Schneider와 Randler(2009)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머타임제 시행 시 나이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아침형의 수면 패턴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보다 저녁형인 청소년일수록 주간에 졸림 증세를 더 겪고 있으며, 이러한 증세는 3주까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또 늦게 취침하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서머타임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적응에도 더 어려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동·청소년들이 수면부족을 겪지 않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생활 실천 방안의 제시가 필요로 된다. 먼저 서머타임제 도입 초기에는 시차적응에 따른 수면부족과 주간 졸림 증세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며 서머타임제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사전시간을 갖고 홍보를 함으로써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Schneider와 Randler(2009)가 제안한 바와 같이, 서머타임제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주간에는 중요한 시험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졸림증과 같은 생체리듬 부적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와 학교, 가정 등의 다양한 통로를 통한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가족구성원들이 서머타임제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머타임제가 수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수면습관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 내용은 서구의 수면전문가들의 서머타임시 시차적응을 위한 조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인데,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서머타임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생활실천방안들이 더욱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머타임제 시행 시 시차적응을 위한 실천 Tips⁹⁾

- 시계를 보면서 지금이 예전에 비해 한 시간 당겨졌거나 늦추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부모들은 자녀들의 한 시간 수면시간 손실시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
- 서머타임 시작 전 일요일에는 낮잠을 피해야 한다.
- 일요일 저녁 수면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예전시간과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 수면시간은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목요일 밤부터 15분씩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된다면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일요일 밤에는 적응이 보다 쉬울 것이다.
-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이 양질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
-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지 말고 평상시 수면시간을 유지한다
-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인터넷이나 비디오게임을 피하고 가능한 긴장을 풀고 잠들 준비를 해야 한다.

9) Breus, M. (2008. 9). Helping Children Adjust to Daylight-Saving Time

<http://back2003.en.epochtimes.com/news/8-3-9/67037.html>

Hitti, M. (2009. 2). Daylight Saving Time: 8 Tips to Prepare

<http://www.webmd.com/sleep-disorders/features/daylight-saving-time-tips-to-prepare>

Iannelli, V. (2009. 8). Kids Sleep and Daylight Saving Time

http://pediatrics.about.com/cs/spring/a/daylight_svg.htm

(2) 서머타임제가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생리적 적응과 건강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늦어진 일몰시간을 통해 확보된 한 시간의 일광시간은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절기와 달리 하절기에 한 시간 일찍 기상하고 등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떻게 생활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확보된 한 시간의 일광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효과로서 늦어진 일몰시간에 따라 범죄노출 억제를 통한 야간 범죄 발생률 감소 효과를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2009)에 따르면, 서머타임제에 의해 오후 일광시간이 길어질 경우, 일몰 전에 귀가하는 인구를 증가시켜 범죄노출 억제가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범죄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들은 보통 오후 5시 정도에는 귀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간은 서머타임제와 상관없이 일광시간 내에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서머타임제를 통해 이들의 범죄피해로 부터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평균 오후 7시 30분 정도로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머타임제 도입 시 저녁 9시 가까이에 일몰이 된다고 할 때 충분히 일광시간 내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의 추가 학업 때문에 더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지만 일몰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이들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에 약간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증가한 일광시간은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야간 범죄의 위험성을 벗어나 더 많은 실외활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귀가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오후 4시 정도였고, 중학생은 4시 30분경으로 비교적 낮 시간에 귀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몰이 이루어지는 저녁 8시 이후까지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 및 실외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늦은 귀가시간은 일광시간 이동과 귀가에 약간의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 외에 실외 활동을 포함한 여가시간의 활용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일광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조차도 실외활동 등으로 시간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평일 방과 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즉 일몰시간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학원/과외/학교를 통한 학업으로 나타나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외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휴일에도 전 연령대에서 오후 5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TV 시청과 게임 및 인터넷 사용’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하절기 일몰시간 이전인 7시경에도 우선적으로 TV시청이 많았다. 실외활동 및 문화/취미활동의 경우 평일보다는 높지만 대체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아동·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패턴은 국제비교결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평일 학교외 학습시간이 4시간 55분으로 가장 길었고, 교급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관련 시간은 증가하고 있었다(김기현 외, 2009). 반면, 이들 비교대상 국가 중,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은 가장 짧은 반면,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시간은 가장 길었는데, 공휴일의 컴퓨터 사용과 TV시청 시간은 평일의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미 및 여가시간은 평일은 0.29시간, 공휴일에는 0.54시간으로 낮은 수준에 멈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결국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학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고, 그나마 주어진 자유 시간에는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의 적극적인 여가시간 활용이 아닌 TV시청이나 게임 및 인터넷 등의 컴퓨터 사용이 대부분이어서, 늘어난 일광시간을 아동·청소년의 건강 뿐 아니라 발달상에 유익한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서머타임제 도입 시 여가활동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지만,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큰 한국사회에서의 일광시간 증가는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표면화되었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43%가 서머타임제 도입은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상당수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일광시간이 증가하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조사대상 어머니들 역시 서머타임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아동·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인 약 4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1%였다. 또한 어머니들 조사에서 늘어난 일광시간 동안 자녀의 시간활용으로 희망하는 항목들을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경우에는 운동이나 산책 등의 실외활동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학원이나 과외수업의 응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어, 서머타임 시행 시 늘어난 일광시간을 아동·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이 실외활동을 포함한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휴일의 경우에는 자녀의 희망활동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에서 1순위로 문화, 취미활동을, 2순위로는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가장 많이 응답해 서머타임제 도입 시 아동·청소년들은 휴일에는 늘어난 일광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서머타임제로 인한 일광시간 증가가 학습시간(학원과 과외 등을 통한)을 더 늘이는 데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어난 일광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와 학교 및 가정의 의식전환 및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¹⁰⁾.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인 “2)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여가시간 활용 방안”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들만이 이러한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가족전체의 생활시간 활용패턴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는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함으로써, 하루의 남은 일광시간을 건강하게 가족 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와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38%가, 그리고 조사대상 어머니는 과반수 가까이가 서머타임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보듯이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특히 이와 관 련한 정부와 기업의 캠페인, 홍보, 교육과 같은 실천적 노력이 매우 필요하 다. 덧붙여,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서머타임제에 대한 아동·청소년 들의 낮은 인지도와 낮은 수준의 서머타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볼 때, 서머타임제 시행 전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 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여가시간 활용 방안¹¹⁾

서머타임제 도입 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여가활동 증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지만,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부담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늘어 난 일광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증가한 일광 시간조차 학교와 사교육에 의한 학업시간으로 할애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서머타임제로 인해 확보된 일 광시간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

서머타임제 시행 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이들의 여가시간은 삶을 여유롭고 유익하게 바꾸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머타임제의 실시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여가시간의 증가가 곧바로

11) “생활시간 조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활용 방안”은 외부집필진(김정주: 모든 학교 체험활동연구소장)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학습과 학원 등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서머타임의 실시로 증가된 방과후 시간이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으로 활용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추고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서머타임의 시행이 아동·청소년 학습시간의 증가나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학원이나 과외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데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그 다음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로 유사한 항목인 도서관/독서실 이용에 높게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서 서머타임으로 인해 늘어나는 평일 날의 여가시간을 학습에 활용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늘어난 일광시간활용이 여가활동보다는 학습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서머타임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아동·청소년이 가족 및 성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머타임제의 도입으로 성인들의 경우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서 운동·산책, 야외활동, 쇼핑, 연극영화, 가족친교, 교육활동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진미정, 2009).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조사에서 일광시간이 증가할 경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간활용으로 ‘친구 만나기’가 6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TV시청·DVD감상’(55.4%), ‘게임·인터넷’(55.2%), ‘문화·취미활동’(55.1%), ‘가족과 보내는 시간’(54.1%), ‘실외활동’(52.7%)등의 순으로 모두 과반수를 넘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도서관·독서실’(20.6%), ‘학원·과외수업’(8.7%)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를 보면, 성인과 아동·청소년들 모두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실외활동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일광절약시간을 가족이나 성인들과 연계하여 보내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머타임제의 시행이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학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6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가시설 및 장소부족’(52.1%), ‘여가 프로그램 부족’(49.7%), ‘근거리 여가시설 부재’(41.4%),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름’(36.6%),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33.9%), ‘경제적 비용 부담’(32.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서머타임제를 통하여 여가시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여가시설 및 장소, 여가 프로그램, 근거리 여가시설부재,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경제적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머타임제로 청소년들의 여가 및 야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여가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서머타임제를 계기로 아동·청소년들의 여가생활과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성인들과 비교해보면 의무 활동 시간이 성인보다 매우 많고 여가시간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 통계청(2005)에서 실시한 2004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성인들의 하루생활시간에서 일, 가사노동, 학습, 이동 등 의무 활동 시간은 8.05시간인데 비하여 초·중·고·대학생 등 학생들의 의무 활동 시간은 8.46시간이었으며, 그중에서 고등학생은 10시간 42분으로 성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가활동시간은 20세 이상 성인들이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인데 비하여 청소년들은 평균 4시간 39분이었으며 그 중에서 고등학생은 3시간 33분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건강을 위해서 학습활동 이외에도 많은 신

체활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달단계를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성인보다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머타임제로 인해 늘어나는 시간을 학습이 아닌 운동과 문화 예술 활동 등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①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통계청(2005)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하여 매우 많은 학습 등 의무 활동 시간을 보내고 매우 적은 여가시간을 쓰고 있다. 성인들의 경우에 여가시간을 자기개발이나 건강관리, 문화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학습이나 단순한 컴퓨터게임, TV시청 등과 같은 시간 소비형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정서적·사회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로서 많은 신체적 활동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회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가시간을 신체적 활동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성인기보다 오히려 청소년기에서 더 중요한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학습 이외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여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학교 주5일제나 서머타임제가 시행되면서 늘어나는 여가시간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학습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진학 등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많은데 비하여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나친 우려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서머타임제의 도입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여가활동, 삶의 질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성장과 정서 및 사회성의 발달에 필요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발달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개입전략의 개발,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제도의 마련, 부모와 성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여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개입전략 개발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학교 내의 학습시간과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경우 평일 날 일상생활은 거의 학습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머타임제로 늘어난 일광시간이 청소년들에게 학습이나 사교육의 시간으로 활용된다면 청소년의 여가생활과 자기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머타임제의 도입 취지대로 현재의 학업중심의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학습과 여가의 균형 있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과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및 자기개발 시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의 학습활동 이외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바라는 여가와 자기개발과 관련된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수준과 여가활동에 대

한 과학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전략을 개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학부모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다.

③ 체계화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제도 확대

아동·청소년의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한 조사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이 대부분 컴퓨터 게임이나 TV시청 등과 같이 개별적인 실내 활동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도 가장 높은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별화되고 게임과 오락 중심의 실내 여가활동이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화된 실내중심의 여가활동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공동체적이고 신체 활동성이 높은 실외 여가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여가활동에 대해 사회적인 인정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거나 도입 준비 중에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와 창의체험활동 정보시스템의 실효성확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경험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 국가성취포상제를 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의 체계화된 여가활동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들이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개별화되고 소극적인 실내 활동 중심의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화된 공동체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력 뿐만 아니라 사회성, 창의성, 도전정신 등과 같은 능력과 자질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확충

① 집 근처 근린공원 등으로 찾아가는 여가 프로그램 제공

서머타임제의 시행으로 늘어나는 시간이 아동·청소년들의 학원 등 사교육 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머타임제 시행기간 동안 방과 후 일광 시간 내에 아동·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통한 방과 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조직간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시설 및 근린시설을 활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도록 한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과 후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체육·복지·환경·근린 시설과 기관들이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 제공과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학교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시간에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여가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사회 조직에서 파견한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조직에서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요구나 선호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자를 파견하여 학교운동장, 체육관, 학교 및 마을 근처의 공원, 근린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가족 단위 여가활동 활성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서머타임의

실시로 이후에 가족단위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성인이나 부모, 아동·청소년들 모두 서머타임제의 도입으로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교육체험지향활동과 취미지향활동은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체험활동을 통해 가족은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낮은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대처할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 취미지향적인 활동을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가족의 공통 관심사를 유발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이민아·조윤숙, 2007).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동시에 가족단위 여가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나 이동에 부담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학교, 근린시설 등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집 근처의 근린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단위로 개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방법과 사례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시설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한다.

여가활동은 크게 자녀와 부모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평일 날의 오후 및 저녁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평일 프로그램과 주말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단순한 취미강좌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체험 활동, 취미지향활동, 가족봉사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인프라의 확충

① 근린 여가활동 인프라의 확충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인프라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권인 근린시설이라기보다는 주로 도시 근교나 농촌지역 등과 같이 주말활동에 적합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머타임제의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권내의 근린 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나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스포츠시설, 공원,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근린 여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몇몇 사람이나 회원들만이 사용하는 폐쇄적인 운영보다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스포츠 시설 등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린시설의 확보에서는 단순한 시설의 설치와 개방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들이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배치, 여가활동 시설물의 보완, 체계화된 여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과 같

은 운영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비용 지원제도 시행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바우처 제도 및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적 지원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TV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등 보다 소극적이고 개별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가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여가 불만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가활동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가활동 시설의 이용이나 프로그램의 참여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료 감면이나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문화예술시설, 스포츠시설 등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과 시설활용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여 부담하고, 각종 사회공헌재단들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비용의 무료화를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에 따른 여가활동 제약을 해소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무료화 정책의 시행이 한계가 있다면, 지역단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정된 횟수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쿠폰을 발행하여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여가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외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일반적으로 서머타임제의 실시로 일광시간에 귀가함으로써 교통사고감소

와 범죄발생을 감소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한다(이정일 외, 2009). 그러나 귀가 후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실외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저녁시간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며, 특히 근린공원 등에서 운동이나 산책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가운데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사회에 설치된 각종 여가활동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시설, 놀이시설, 공원의 여가시설, 공공시설의 각종 활동시설 등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점검과 안전시설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의 야외 여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린공원이나 야외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의 순찰 및 방범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들 사이의 다툼이나 폭행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공공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필수화하여 유사시 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이 보상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고선주·조영미·김유나·김혜영·류연규·이완정·조영태·진미정(2006). 2007~2010 서울특별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울여성가족재단.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이경상(2006).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승권(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III-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홍(2009).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진(2009).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서머타임 도입 계획. 녹색성장시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자료집.
- 김호순(2005).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선호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 남재화·최미란(2007). 가족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와 세대간 커뮤니케이션 및 가족건강성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3-16.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시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서울: 녹색성장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모상현·김희진(200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생존권·보호권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박운형·권호장·양광익·임선미·김은정·박관준(2009).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방안 개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방안 개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삼성경제연구소(2009). 삶과 환경을 바꾸는 녹색생활-서머타임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Issue Paper,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신정식(2009), 서머타임제의 도입 효과 및 성공적 도입 방안,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2009. 8.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2009).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
- 양광익(2009). 서머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녹색성장시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자료집.
- 여운재·윤지현·심재은(2009). 초·중·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에 따른 하루식사의 질 평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1), 1-11.
- 오만석(2005). 한국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하루 사용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 생애주기별 접근」 성남: 한국학 중앙연구원
- 유영주(1997).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윤소영(2009). 서머타임제와 가족 및 여가생활. 녹색성장시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자료집.
- 이가진·윤지현·추운정·정산진·권영혜(2009). 학교 아침급식이 남자 중학생의 아침식사 및 아침급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3), 277-285.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2009).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아·조운숙(2007),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 제10호. pp.1-17
- 이보숙·양일선(2006). 초·중·고학생의 아침식사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1(1), 25-28.
- 이성근·안재호·안영환·정경화(2006). 서머타임제 시행과 에너지절약 효과.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정일·강희찬·신창목·이상후·이성호·이태환·정권택(2009), 삶과 환경을 바꾸는 녹색생활: 쉼머타임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Issue Paper. 2009. 11. 2, 삼성경제연구소.
- 장호중·김경목 (2009), 가족관광 참여자의 관여도와 가족건강성 및 가족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3), 7-17.
- 진미정(2007).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중단석 분석. 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

- 구 최종보고서. 미간행.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중단적 분석. 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 보고서.
- 진미정(2009). 서머타임제도 도입: 여성과 가족의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05).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2005.5월 보도자료.
- 통계청(2005). 2004 국민생활시간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8). 2008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천혜정(2004).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1-13.
- 최은진(2009).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정숙·전혜경·정금주·남희정(2003). 고등학생의 식습관과 학업성취도, 주관적 건강상태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4), 627-63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6 여가백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미발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5).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reus, M. (2008). Helping Children Adjust to Daylight-Saving Time (2008. 9)
<http://back2003.en.epochtimes.com/news/8-3-9/67037.html>
- Carskadon MA, Wolfson AR, Acebo C, Tzischinsky O, & Seifer R(1998). Adolescent sleep patterns, circadian timing, and sleepiness as a transition to early school days. Sleep, 21, 871-81.
- Dahl, R. E. (1999). The Consequences of Insufficient Sleep for Adolescents: Links between Sleep and Emotional Regulation. In K. L. Wahlstrom (ed.) Adolescent Sleep Needs and School Start Times.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International Foundation.
- Hitti, M. (2009). Daylight Saving Time: 8 Tips to Prepare (2009, 2)
<http://www.webmd.com/sleep-disorders/features/daylight-saving-time-tips-to-prepare>
- Hofferth, S. L., & Sandberg, J. F. (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295-308.

- Iannelli, V. (2009). Kids Sleep and Daylight Saving Time (2009. 8)
http://pediatrics.about.com/cs/spring/a/daylight_svg.htm
- Kantermann, T., Juda M., Merrow, M., Roenneberg, T., & Biol, C. (2007). The human circadian clock's seasonal adjustment is disrupted by daylight saving time.
- Kim S, Dueker GL, Hasher LU, & Goldstein DU(2002). Children's time of day preference. age,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83-0.
- Monk, T. H. (1976). Adjusting to the changes to and from Daylight Saving Time. Nature, 24:261(5562): 688-9.
- Lahti, T. A., Leppämäki, S., Lönnqvist, J., & Partonen, T. (2006). Transition to daylight saving time reduces sleep duration and sleep efficiency of the deprived sleep. Neuroscience Letters, 406, 3, 174-177.
- Larson, M., & Richards, M. (1989). The changing life space of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01-509.
- Robertson, B. J. (1999). Leisure and Family: Perspectives of Male Adolescence Engaging in Delinquent Activity a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4), 335-358.
- Sadeh, A., Dahl, R. E., Shahar, G., Rosenblatstein, S. (2009). Sleep and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Sleep, 32(12), 1602-1609.
- Schneider, A-M., & Randler, C. (2009). Daytime Sleepiness during Transition into Daylight Saving Time in Adolescents: Are Owls Higher at Risk? Sleep Medicine, 10(9), 1047-1050.
- 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2003). The Importance of Family Dinners. Columbia University.
- 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2009). The Importance of Family Dinners V. Columbia University.

<신문기사>

- 경향뉴스. 2007. 7. 24일자 기사: [흐름과 소통] '서머타임제' 도입할 것인가
 문화일보. 2009. 8. 1일자 기사: 서머타임제 도입되나?
 서울신문. 2009. 7. 30일자 기사: 서머타임 도입 효과 어느 쪽이 좋을까
 연합뉴스. 2009. 8. 19일자 기사: '서머타임 여성 여가활동 다양화할 것'
 한국일보, 2008. 7. 17일자 기사: 서머타임제, 고유가 시대에 이득? 손실?

부 록

1. 부록(아동·청소년설문지, 학부모설문지)
2.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표
3. 학부모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표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국가의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식과 생활시간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문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이름을 밝히지 않고)으로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12) 본 설문지는 중·고등학생용 설문지이며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일부 단어와 문장을 쉽게 바꾼 아동용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일 하는 편이다 ② 보통 하는 편이다
(①, ②번 응답자는 ☞ 3번으로 가세요)
③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

1-1. **(1번문항에서) ③, ④번에 응답하신 경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②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③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④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⑤ 다이어트를 위해서 ⑥ 기타 ()

2.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2-1.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2-2. 잠드는 시간 (보통 시 분)

3. 평일과 휴일(토/일/공휴일)의 수면시간은 몇 시간 몇 분입니까?

3-1. 평일 수면시간 (보통 시 분)

3-2. 휴일 수면시간 (보통 시 분)

4. 학교에 등교, 하교하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4-1. 등교시간 (보통 시 분)

4-2. 귀가시간 (보통 시 분)

5. 다음은 **평일** 방과 후 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과 후 (오후 5시 이후)에 각 시간대별로 주로 하는 활동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에 한해서 중복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시간 \ 활동	학교	학원 / 과외	집에서 혼자 공부	도서관 / 독서실	게임 / 인터넷 사용	TV 시청	실외활동 (운동, 산책 등)	문화* 취미 활동	식사	친구와 교제	쇼핑 하기	아무것도 안함	취침
오후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오전 1시													

※ 문화취미활동은 영화보기, 음악회·전시회가기, 악기연주, 만들기 등 문화와 취미와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6. 다음은 **휴일 (토/일/공휴일)** 오후 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 각 시간대별로 주로 하는 활동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에 한해서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시간 \ 활동	학교	학원 / 과외	집에서 혼자 공부	도서관 / 독서실	게임 / 인터넷 사용	TV 시청	실외활동 (운동, 산책 등)	문화 취미 활동	식사	친구와 교제	쇼핑 하기	아무것도 안함	취침
오후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오전 1시													

7.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보기 중 평일과 휴일로 나눠 주로 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순서대로** 세가지씩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밖에 없을 경우, 1개만 응답)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비용이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시설과 장소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여가시설과 장소가 집이나 학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들어본 적이 없다면 12번으로 가세요)

11.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였습니까?

① 학교

② 가정

③ 대중매체 (TV, 인터넷 등)

④ 기타

12. '서머타임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잘 아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안다

13. 아래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머타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동안(4~9월)에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겨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을 늘이는 제도입니다.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여름에는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며, 따라서 낮시간(일광시간)도 한시간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해 지는 시간이 저녁 8시경인데, 서머타임 도입 시 그 시간은 9시 정도가 됩니다.

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잘모르겠다

14. ‘서머타임제’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변화가 있을 것이다 ②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15번으로 가세요)

14.1. 14번의 ①번 응답하신 경우 변화가 있다면 아래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행초기에는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 (생활리듬에 영향을 줘서)	①	②	③	④	⑤
2. 에너지(전기)가 절약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낮 시간이 늘어나서 야간 범죄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수면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 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들의 실외활동(스포츠,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노래방, 비디오방, 호프집 등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본인의 경우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낮 시간이 한 시간 길어진
다면 다음의 시간활용이나 활동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식사, 대화, 여가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2. 학원이나 과외수업	①	②	③	④	⑤
3. 도서관이나 독서실가기	①	②	③	④	⑤
4. TV시청/DVD 감상	①	②	③	④	⑤
5. 게임이나 인터넷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실외활동(운동, 산책, 등산 등)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취미활동(영화보기, 악기연주,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8. 친구만나기	①	②	③	④	⑤

16. **본인의 경우**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낮 시간이 한시간 길어진다면 다음의 활동이나 시간활용에 대해 어느정도로 **선호하십니까?**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 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식사, 대화, 여가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2. 학원이나 과외수업	①	②	③	④	⑤
3. 도서관이나 독서실가기	①	②	③	④	⑤
4. TV시청/DVD 감상	①	②	③	④	⑤
5. 게임이나 인터넷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실외활동(운동, 산책, 등산 등)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취미활동(영화보기, 악기연주,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8. 친구만나기	①	②	③	④	⑤

17. ‘서머타임제’ 시행 시 다음의 학교 급식과 점심식사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침 급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점심식사시간이 조금 당겨질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1. 본인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본인의 학교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계고등학교 ④ 전문계고등학교
⑤ 종합고등학교

(※ 진학반은 일반계로, 취업반은 전문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모님께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는 해당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
1. 아버지	①	②	③
2. 어머니	①	②	③

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5. 본인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본인의 한달 평균 용돈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달 평균 (_____)원

7. 본인의 학업성적(2009년)은 반에서 대략 어디쯤 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 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반성적	①	②	③	④	⑤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의 응답은 통계적 자료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서머타임제 시행이 가족생활과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2. ○○○께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이신가요?
 (※ 자녀가 복수인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응답)
 ① 초등학교 4~6학년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1. ○○님의 가족은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부모를 포함한 성인가족 (), 자녀 ()

- ① 매일 하는 편이다 ② 보통 하는 편이다
 (①, ②번 응답자는 ☞ 2번으로 가세요)
 ③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

- 1-1. (1번 문항에서 ③, ④번에 응답하신 경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들이 일찍 등교하거나 출근해서 ②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③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④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⑤ 다이어트를 위해서 ⑥ 기타 ()

2. ○○님이 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 2-1.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2-2. 잠드는 시간 (보통 시 분)

3. ○○님께서는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들어본 적이 없으면 4번으로 가세요)

- 3-1. 서머타임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였습니까?

- ① 회사 ② 가정 ③ 대중매체 (TV, 인터넷 등) ④ 기타

3-2..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잘 아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안다

4. '서머타임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머타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동안(4~9월)에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겨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을 늘이는 제도입니다.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여름에는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며, 따라서 낮시간(일광시간)도 한시간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해 지는 시간이 저녁 8시경인데, 서머타임 도입 시 그 시간은 9시 정도가 됩니다.

- 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5. ○○님께서는 '서머타임제'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변화가 있을 것이다 ②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6번으로 가세요)

5-1. 5번의 ①번 응답자만 변화가 있다면 아래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리듬에 영향을 줘서 시행초기에는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에너지(전기)가 절약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낮 시간이 늘어나서 야간 범죄피해가 줄어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수면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들의 야외활동(스포츠,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들의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노래방, 비디오방, 호프집 등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4월부터 9월까지 한 시간의 낮 시간을 더 갖게 된다면, ○○님은 가족과 자녀의 시간활용으로써 보기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6-1. [가족]

평일 () 휴일(공휴일) ()

6-2. [자녀]

평일 () 휴일(공휴일) ()

보기	① 학원이나 과외수업	② 도서관/독서실 이용
	③ TV 시청	④ 컴퓨터 게임·인터넷 사용
	⑤ 운동, 산책 등의 실외활동	⑥ 문화·취미활동
	⑦ 자원봉사활동	(영화·전시회관람, 악기연주 등)
	⑨ 기타 _____	⑧ 특별한 활동 없이 휴식

7. ○○님은 ‘서머타임제’ 시행 시 다음의 학교 급식과 점심식사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침 급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점심식사시간이 조금 당겨질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문항을 여쭙고 마칠 것입니다

1) 실례지만, ○○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해당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이상 ④ 잘 모름/무응답

2) ○○님은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실례지만, 귀 태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200만원
 ③ 201만원 ~ 300만원 ④ 301만원 ~ 400만원
 ⑤ 401만원 ~ 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⑦ 모름/무응답

오랜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 록 2.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표

<부표 Ⅲ-2-1> 아침식사 여부

(단위 : %)

구 분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하는 편이다	거의 하지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않는 편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54.1	23.0	13.6	9.2	100(499)	4.129
	여	51.1	24.4	17.3	7.2	100(513)	
지역	군/면	54.4	30.2	10.7	4.7	100(149)	8.714
	중소도시	53.6	22.0	15.8	8.6	100(291)	
	대도시	51.6	22.9	16.6	8.9	100(572)	
부직업	유	53.2	23.3	15.3	8.2	100(952)	0.324
	무	54.8	25.8	12.9	6.5	100(31)	
모직업	유	50.7	24.2	16.0	9.1	100(681)	7.112
	무	59.0	22.1	13.0	5.9	100(307)	
경제수준	하	45.8	24.1	19.3	10.8	100(83)	8.752
	중	51.1	24.2	16.6	8.0	100(698)	
	상	60.5	21.0	11.2	7.3	100(205)	

<부표 Ⅲ-2-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족아침 결식습관	다이어 트를 위해서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 값
성별	남	38.1	32.7	15.9	0.0	13.3	100(113)	3.296
	여	42.2	33.6	11.2	1.6	11.2	100(125)	
부학력	중졸이하	36.8	21.1	10.5	5.3	26.3	100(19)	13.928
	고졸	44.4	35.9	10.3	0.9	8.5	100(117)	
	대졸이상	36.7	31.1	17.8	0.0	14.4	100(90)	
모학력	중졸이하	57.7	15.4	3.8	0.0	23.1	100(26)	11.882
	고졸	35.9	36.6	16.0	0.8	10.7	100(131)	
	대졸이상	44.1	32.4	11.8	1.5	10.3	100(68)	
부직업	유	39.6	33.3	14.0	0.9	12.2	100(222)	3.601
	무	50.0	16.7	0.0	0.0	33.3	100(6)	
모직업	유	38.5	38.5	11.2	1.2	10.7	100(169)	8.411
	무	43.1	20.7	19.0	0.0	17.2	100(58)	
경제수준	하	60.0	24.0	12.0	0.0	4.0	100(25)	14.687
	중	39.8	29.8	14.6	0.6	15.2	100(171)	
	상	32.4	51.4	8.1	2.7	5.4	100(37)	
학업 성적	하	39.8	26.5	13.3	2.0	18.4	100(98)	11.003
	중	38.9	37.8	15.6	0.0	7.8	100(90)	
	상	46.7	35.6	8.9	0.0	8.9	100(45)	

<부표 Ⅲ-2-3> 평일 오후5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69.2	15.1	6.2	9.6	100(146)	6.037
	중소도시	72.7	16.8	2.8	7.7	100(286)	
	대도시	67.7	17.5	3.8	11.0	100(555)	
경제수준	하	67.5	16.9	3.9	11.7	100(77)	7.481
	중	68.0	18.6	3.5	9.9	100(684)	
	상	75.5	11.8	4.9	7.8	100(204)	

<부표 Ⅲ-2-4> 평일 오후6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64.7	16.5	3.5	15.2	100(479)	2.161
	여	61.4	16.9	5.2	16.5	100(503)	

<부표 Ⅲ-2-5> 평일 오후7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60.9	18.6	3.3	17.2	100(483)	4.257
	여	56.7	19.2	5.8	18.4	100(501)	

<부표 Ⅲ-2-6> 아동·청소년이 평일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순위:
TV 시청

(단위 : %)

구분		아동		청소년	
		TV 시청	전체(빈도)	TV 시청	전체(빈도)
성별	남	41.3	100(104)	47.3	100(220)
	여	58.7		52.7	
지역	군/면	15.4	100(104)	15.5	100(220)
	중소도시	29.8		34.5	
	대도시	54.8		50.0	
경제수준	하	2.9	100(103)	10.1	100(217)
	중	74.8		77.4	
	상	22.3		12.4	
용돈수준	하	29.0	100(100)	18.2	100(209)
	중	59.0		48.8	
	상	12.0		33.0	
학업성적	하	19.2	100(104)	30.3	100(218)
	중	47.1		41.3	
	상	33.7		28.4	

<부표 Ⅲ-2-7> 고등학생이 평일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2순위:
음악듣기

(단위 : %)

구 분		음악듣기	전체(빈도)
전체(빈도)		100(57)	
성별	남	52.6	100(57)
	여	47.4	
지역	군/면	3.5	100(57)
	중소도시	33.3	
	대도시	63.2	
경제수준	하	15.8	100(57)
	중	70.2	
	상	14.0	
용돈수준	하	18.2	100(55)
	중	20.0	
	상	61.8	
학업성적	하	31.6	100(57)
	중	45.6	
	상	22.8	

<부표 Ⅲ-2-8> 휴일 오후5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28.4	50.8	8.5	12.2	100(482)	6.610
	여	25.6	48.0	8.3	18.1	100(504)	
경제수준	하	16.5	53.2	11.4	19.0	100(79)	9.389
	중	26.4	50.1	7.8	15.7	100(682)	
	상	31.7	46.3	9.8	12.2	100(205)	

<부표 Ⅲ-2-9> 휴일 오후6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17.8	48.9	10.4	22.9	100(393)	7.070
	청소년	20.3	54.1	8.8	16.9	100(592)	
학업성적	하	15.3	55.2	10.0	19.5	100(261)	11.173
	중	18.3	49.5	10.3	22.0	100(400)	
	상	23.7	52.6	8.0	15.7	100(312)	

<부표 Ⅲ-2-10> 휴일 오후7시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교/학업	TV/게임	실외/ 문화취미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21.5	48.2	6.5	23.8	100(479)	5.807
	여	16.6	48.4	9.2	25.8	100(500)	
지역	군/면	13.1	54.5	6.9	25.5	100(145)	11.454
	중소도시	15.1	50.7	7.9	26.3	100(278)	
	대도시	22.5	45.5	8.1	23.9	100(556)	
경제수준	하	15.2	46.8	5.1	32.9	100(79)	11.637
	중	17.7	50.4	8.3	23.6	100(678)	
	상	25.7	42.6	6.9	24.8	100(202)	
학업성적	하	16.5	50.0	7.5	26.0	100(254)	6.395
	중	19.0	46.8	10.0	24.3	100(400)	
	상	21.5	48.4	5.8	24.4	100(312)	

<부표 Ⅲ-2-11> 아동·청소년이 휴일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1순위:
TV 시청

(단위 : %)

구 분		아동		청소년	
		TV 시청	전체(빈도)	TV 시청	전체(빈도)
성별	남	40.2	100(117)	40.5	100(227)
	여	59.8		59.5	
지역	군/면	16.2	100(117)	19.4	100(227)
	중소도시	29.1		34.8	
	대도시	54.7		45.8	
경제수준	하	1.7	100(116)	8.4	100(225)
	중	78.4		76.9	
	상	19.8		14.7	
용돈수준	하	32.4	100(111)	17.2	100(215)
	중	61.3		46.0	
	상	6.3		36.7	
학업성적	하	17.9	100(117)	25.9	100(224)
	중	41.0		44.6	
	상	41.0		29.5	

<부표 Ⅲ-2-12> 아동과 중학생이 휴일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2순위: 컴퓨터·온라인 게임

(단위 : %)

구 분		아동		청소년	
		컴퓨터·온라인 게임	전체(빈도)	컴퓨터·온라인 게임	전체(빈도)
성별	남	63.4	100(82)	65.6	100(61)
	여	36.6		34.4	
지역	군/면	15.9	100(82)	16.4	100(61)
	중소도시	28.0		23.0	
	대도시	56.1		60.7	
경제수준	하	1.3	100(79)	6.8	100(59)
	중	79.7		74.6	
	상	19.0		18.6	
용돈수준	하	35.0	100(80)	19.0	100(58)
	중	56.3		55.2	
	상	8.8		25.9	
학업성적	하	25.9	100(81)	25.4	100(59)
	중	40.7		47.5	
	상	33.3		27.1	

<부표 Ⅲ-2-13> 고등학생이 휴일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2순위:

TV 시청

(단위 : %)

구 분		TV 시청	전체(빈도)
전체(빈도)		100(49)	
성별	남	36.7	100(49)
	여	63.3	
지역	군/면	6.1	100(49)
	중소도시	34.7	
	대도시	59.2	
경제수준	하	8.2	100(49)
	중	81.6	
	상	10.2	
용돈수준	하	6.8	100(44)
	중	27.3	
	상	65.9	
학업성적	하	34.7	100(49)
	중	40.8	
	상	24.5	

<부표 Ⅲ-2-14> 평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단위 : %)

구 분		혼자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선후배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36.6	24.6	34.5	1.2	0.6	2.5	100(487)	5.463
	여	30.7	28.6	37.0	1.6	0.4	1.8	100(514)	

<부표 Ⅲ-2-15>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5.3	12.6	37.1	31.8	13.2	100(151)	6.459
	중소도시	3.4	15.5	40.5	30.9	9.6	100(291)	
	대도시	3.5	18.7	36.1	31.0	10.7	100(568)	
학업 성적	하	4.4	20.0	38.9	27.4	9.3	100(270)	14.781
	중	3.6	17.0	39.8	31.1	8.5	100(412)	
	상	3.5	14.2	33.5	33.9	14.9	100(316)	

<부표 Ⅲ-2-16>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학업으로 여가시간 부족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7.1	9.1	13.1	34.3	36.4	100(99)	7.995
	여	8.7	13.0	25.0	31.5	21.7	100(92)	
교급	아동	9.1	9.1	13.6	31.8	36.4	100(44)	2.115
	청소년	7.5	11.6	20.4	33.3	27.2	100(147)	
학업 성적	하	15.5	12.1	22.4	24.1	25.9	100(58)	13.800
	중	7.3	11.0	20.7	32.9	28.0	100(82)	
	상	0.0	10.0	12.0	42.0	36.0	100(50)	

<부표 Ⅲ-2-17>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19.2	23.2	24.2	19.2	14.1	100(99)	0.544
	여	17.2	26.9	21.5	19.4	15.1	100(93)	
지역	군/면	29.2	8.3	12.5	25.0	25.0	100(24)	9.608
	중소도시	19.6	27.5	25.5	17.6	9.8	100(51)	
	대도시	15.4	27.4	23.9	18.8	14.5	100(117)	
부학력	중졸이하	20.0	33.3	20.0	20.0	6.7	100(15)	9.507
	고졸	24.2	24.2	24.2	16.5	11.0	100(91)	
	대졸이상	9.6	25.3	22.9	22.9	19.3	100(83)	
모학력	중졸이하	18.2	36.4	18.2	18.2	9.1	100(11)	10.521
	고졸	19.6	30.4	22.3	17.0	10.7	100(112)	
	대졸이상	12.5	15.6	25.0	25.0	21.9	100(64)	
부직업	유	18.6	25.7	22.4	19.7	13.7	100(183)	3.206
	무	0.0	16.7	33.3	16.7	33.3	100(6)	
모직업	유	16.5	28.1	22.3	18.0	15.1	100(139)	3.172
	무	21.6	17.6	25.5	23.5	11.8	100(51)	

<부표 Ⅲ-2-18>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경제적 비용 부담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20.4	20.4	26.5	24.5	8.2	100(98)	0.746
	여	16.1	21.5	30.1	24.7	7.5	100(93)	
지역	군/면	20.8	20.8	37.5	16.7	4.2	100(24)	3.092
	중소도시	22.0	22.0	24.0	24.0	8.0	100(50)	
	대도시	16.2	20.5	28.2	26.5	8.5	100(117)	
부직업	유	19.2	21.4	26.9	24.7	7.7	100(182)	4.316
	무	0.0	0.0	50.0	33.3	16.7	100(6)	
모직업	유	20.1	21.6	29.5	20.9	7.9	100(139)	4.763
	무	14.0	18.0	24.0	36.0	8.0	100(50)	

<부표 Ⅲ-2-19>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가시설 장소 부족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13.1	11.1	22.2	32.3	21.2	100(99)	3.167
	여	7.5	15.1	26.9	34.4	16.1	100(93)	
지역	군/면	16.7	16.7	16.7	20.8	29.2	100(24)	9.567
	중소도시	7.8	5.9	29.4	33.3	23.5	100(51)	
	대도시	10.3	15.4	23.9	35.9	14.5	100(117)	

<부표 Ⅲ-2-20>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가시설이 너무 멀리있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18.4	24.5	20.4	17.3	19.4	100(98)	2.164
	여	12.9	21.5	19.4	21.5	24.7	100(93)	
지역	군/면	25.0	20.8	16.7	0.0	37.5	100(24)	12.479
	중소도시	16.0	18.0	20.0	20.0	26.0	100(50)	
	대도시	13.7	25.6	20.5	23.1	17.1	100(117)	

<부표 Ⅲ-2-21>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가 프로그램 부족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14.1	15.2	20.2	31.3	19.2	100(99)	4.987
	여	6.7	13.3	31.1	32.2	16.7	100(90)	
교급	아동	15.9	18.2	22.7	27.3	15.9	100(44)	2.808
	청소년	9.0	13.1	26.2	33.1	18.6	100(145)	
지역	군/면	8.7	17.4	17.4	21.7	34.8	100(23)	9.710
	중소도시	8.0	10.0	22.0	42.0	18.0	100(50)	
	대도시	12.1	15.5	28.4	29.3	14.7	100(116)	

<부표 Ⅲ-2-22>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27.3	13.1	25.3	23.2	11.1	100(99)	3.469
	여	20.7	20.7	19.6	26.1	13.0	100(92)	
교급	아동	31.8	9.1	25.0	15.9	18.2	100(44)	7.128
	청소년	21.8	19.0	21.8	27.2	10.2	100(147)	
지역	군/면	33.3	12.5	25.0	12.5	16.7	100(24)	5.707
	중소도시	19.6	17.6	27.5	21.6	13.7	100(51)	
	대도시	24.1	17.2	19.8	28.4	10.3	100(116)	
부학력	중졸이하	20.0	26.7	6.7	40.0	6.7	100(15)	12.879
	고졸	18.9	13.3	28.9	22.2	16.7	100(90)	
	대졸이상	30.1	18.1	19.3	25.3	7.2	100(83)	
모학력	중졸이하	18.2	36.4	0.0	36.4	9.1	100(11)	11.916
	고졸	18.9	14.4	27.9	26.1	12.6	100(111)	
	대졸이상	32.8	17.2	18.8	20.3	10.9	100(64)	
경제수준	하	22.2	5.6	22.2	27.8	22.2	100(18)	7.453
	중	21.7	18.1	22.5	26.1	11.6	100(138)	
	상	35.7	17.9	25.0	10.7	10.7	100(28)	

<부표 Ⅲ-2-23> 서머타임제 인지도부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28.5	71.5	100(400)	0.166
	청소년	27.3	72.7	100(593)	
지역	군/면	22.5	77.5	100(151)	2.635
	중소도시	27.9	72.1	100(287)	
	대도시	29.2	70.8	100(555)	

<부표 Ⅲ-2-24> 서머타임제 인지경로

(단위 : %)

구 분		학교	가정	대중매체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26.4	13.5	39.9	20.3	100(148)	1.450
	여	31.1	12.3	41.0	15.6	100(122)	
지역	군/면	30.3	15.2	33.3	21.2	100(33)	3.128
	중소도시	29.5	9.0	46.2	15.4	100(78)	
	대도시	27.7	14.5	39.0	18.9	100(159)	

<부표 Ⅲ-2-25>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50.8	33.7	12.7	2.8	100(472)	4.749
	여	53.0	34.8	11.1	1.0	100(494)	
지역	군/면	55.8	31.3	10.9	2.0	100(147)	1.713
	중소도시	52.2	34.4	11.2	2.2	100(276)	
	대도시	50.8	35.0	12.5	1.7	100(543)	

<부표 Ⅲ-2-26>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34.9	31.4	33.7	100(490)	2.599
	여	33.0	28.5	38.5	100(509)	

<부표 Ⅲ-2-27>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단위 : %)

구 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64.4	35.6	100(491)	1.304
	여	67.8	32.2	100(512)	
지역	군/면	66.9	33.1	100(151)	0.117
	중소도시	66.6	33.4	100(290)	
	대도시	65.7	34.3	100(562)	
모학력	중졸이하	61.9	38.1	100(63)	5.535
	고졸	63.9	36.1	100(562)	
	대졸이상	71.0	29.0	100(352)	
부직업	유	66.2	33.8	100(954)	0.002
	무	66.7	33.3	100(30)	
모직업	유	65.8	34.2	100(679)	0.240
	무	67.4	32.6	100(310)	
경제수준	하	60.2	39.8	100(83)	1.657
	중	66.3	33.7	100(697)	
	상	68.1	31.9	100(207)	
학업성적	하	62.8	37.2	100(269)	2.134
	중	68.1	31.9	100(411)	
	상	67.0	33.0	100(315)	

<부표 Ⅲ-2-28>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6.3	5.4	27.8	39.6	20.9	100(316)	7.423
	여	2.9	4.0	25.1	46.7	21.3	100(347)	
부학력	중졸이하	6.7	0.0	24.4	48.9	20.0	100(45)	6.466
	고졸	3.7	4.0	27.1	45.4	19.8	100(273)	
	대졸이상	5.2	5.8	24.6	41.3	23.1	100(329)	
모학력	중졸이하	2.6	0.0	35.9	43.6	17.9	100(39)	9.806
	고졸	3.1	5.6	25.3	45.1	20.9	100(359)	
	대졸이상	6.8	4.4	24.8	41.6	22.4	100(250)	
부직업	유	4.7	4.6	25.9	43.0	21.7	100(632)	3.092
	무	0.0	0.0	35.0	50.0	15.0	100(20)	
모직업	유	4.9	5.6	27.7	41.2	20.6	100(447)	5.557
	무	3.8	2.9	23.0	47.8	22.5	100(209)	
경제수준	하	4.0	0.0	20.0	54.0	22.0	100(50)	12.912
	중	3.2	4.5	27.9	42.9	21.4	100(462)	
	상	7.8	7.1	22.0	41.8	21.3	100(141)	

<부표 Ⅲ-2-29>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에너지 절약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7.5	15.7	43.0	24.2	9.6	100(293)	6.201
	청소년	5.7	19.7	41.9	27.0	5.7	100(370)	
부학력	중졸이하	11.1	26.7	33.3	22.2	6.7	100(45)	11.900
	고졸	4.8	17.6	45.1	27.5	5.1	100(273)	
	대졸이상	7.6	16.4	40.4	25.8	9.7	100(329)	
모학력	중졸이하	12.8	25.6	35.9	20.5	5.1	100(39)	14.368
	고졸	4.5	17.3	46.0	26.2	6.1	100(359)	
	대졸이상	8.8	16.4	38.4	26.4	10.0	100(250)	
부직업	유	6.6	18.0	42.2	25.5	7.6	100(632)	2.567
	무	5.0	20.0	30.0	40.0	5.0	100(20)	
모직업	유	6.3	17.4	40.3	28.9	7.2	100(447)	5.698
	무	7.2	19.1	45.5	20.1	8.1	100(209)	
학업 성적	하	6.5	20.1	42.6	24.9	5.9	100(169)	10.307
	중	4.6	14.3	45.0	27.9	8.2	100(280)	
	상	9.0	21.3	37.9	24.2	7.6	100(211)	

<부표 Ⅲ-2-30>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야간범죄 피해감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3.0	13.9	41.6	29.7	11.9	100(101)	5.457
	중소도시	8.9	17.2	35.4	28.1	10.4	100(192)	
	대도시	9.0	16.0	38.0	27.2	9.8	100(368)	
부학력	중졸이하	11.1	17.8	40.0	24.4	6.7	100(45)	8.310
	고졸	7.0	18.0	39.0	28.7	7.4	100(272)	
	대졸이상	8.5	14.3	36.6	27.4	13.1	100(328)	
모학력	중졸이하	10.3	12.8	33.3	33.3	10.3	100(39)	13.885
	고졸	6.2	18.2	40.1	28.0	7.6	100(357)	
	대졸이상	10.8	12.8	35.2	27.6	13.6	100(250)	
부직업	유	8.1	16.2	37.8	27.9	10.0	100(630)	0.575
	무	5.0	15.0	45.0	25.0	10.0	100(20)	
모직업	유	7.2	16.9	37.8	28.3	9.9	100(445)	2.636
	무	10.0	13.9	37.3	27.3	11.5	100(209)	
학업 성적	하	9.0	18.6	40.1	22.2	10.2	100(167)	6.616
	중	7.1	13.6	37.5	31.8	10.0	100(280)	
	상	8.5	17.5	36.0	27.0	10.9	100(211)	

<부표 Ⅲ-2-3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수면시간의 감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8.6	16.5	28.2	32.0	14.8	100(291)	2.764
	청소년	6.2	15.9	27.6	31.6	18.6	100(370)	
지역	군/면	5.0	15.0	29.0	35.0	16.0	100(100)	5.811
	중소도시	7.9	20.2	27.5	30.6	14.0	100(193)	
	대도시	7.6	14.4	27.7	31.5	18.8	100(368)	
부학력	중졸이하	6.7	6.7	40.0	31.1	15.6	100(45)	9.636
	고졸	5.5	18.8	26.9	32.5	16.2	100(271)	
	대졸이상	9.1	15.5	26.4	30.7	18.2	100(329)	
모학력	중졸이하	5.1	12.8	33.3	28.2	20.5	100(39)	2.701
	고졸	7.3	16.5	27.9	32.7	15.6	100(358)	
	대졸이상	7.6	16.5	26.5	30.5	18.9	100(249)	
부직업	유	7.5	15.9	27.0	32.2	17.5	100(630)	3.395
	무	5.0	15.0	45.0	25.0	10.0	100(20)	
모직업	유	7.6	17.0	26.7	31.8	16.8	100(446)	1.447
	무	6.7	13.9	29.3	32.2	17.8	100(208)	
경제 수준	하	12.0	14.0	30.0	24.0	20.0	100(50)	9.445
	중	6.3	17.6	25.4	34.1	16.5	100(460)	
	상	7.1	12.8	34.0	28.4	17.7	100(141)	
학업 성적	하	9.5	11.8	31.4	31.4	16.0	100(169)	10.445
	중	4.6	18.2	26.1	34.6	16.4	100(280)	
	상	9.1	16.7	26.8	28.7	18.7	100(209)	

<부표 Ⅲ-2-32>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8.6	16.6	30.3	32.2	12.4	100(314)	3.205
	여	6.9	15.6	36.6	29.4	11.5	100(347)	
지역	군/면	6.9	8.9	41.6	27.7	14.9	100(101)	14.120
	중소도시	5.2	14.6	35.4	34.9	9.9	100(192)	
	대도시	9.2	18.8	30.4	29.3	12.2	100(368)	
부학력	중졸이하	8.9	24.4	44.4	22.2	0.0	100(45)	13.524
	고졸	6.3	15.1	34.2	33.1	11.4	100(272)	
	대졸이상	8.5	15.2	31.7	30.5	14.0	100(328)	
모학력	중졸이하	10.3	12.8	43.6	28.2	5.1	100(39)	14.485
	고졸	5.3	17.6	35.5	30.2	11.5	100(358)	
	대졸이상	11.2	13.3	29.3	32.1	14.1	100(249)	
부직업	유	7.8	15.9	33.8	30.5	12.1	100(630)	2.988
	무	5.0	20.0	25.0	45.0	5.0	100(20)	
모직업	유	8.1	15.9	32.3	32.7	11.0	100(446)	4.412
	무	7.2	15.9	36.5	26.0	14.4	100(208)	
학업 성적	하	11.9	14.3	29.8	30.4	13.7	100(168)	8.878
	중	5.4	17.2	33.3	32.3	11.8	100(279)	
	상	7.6	15.6	37.0	28.9	10.9	100(211)	

<부표 Ⅲ-2-33>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로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3.0	18.8	41.6	27.7	8.9	100(101)	7.963
	중소도시	6.2	18.7	36.8	29.5	8.8	100(193)	
	대도시	8.1	14.6	39.0	25.7	12.5	100(369)	
부학력	중졸이하	2.2	6.7	40.0	40.0	11.1	100(45)	14.449
	고졸	4.8	16.5	43.2	25.6	9.9	100(273)	
	대졸이상	9.1	17.3	35.3	26.4	11.9	100(329)	
부직업	유	6.8	16.3	38.8	27.2	10.9	100(632)	1.128
	무	5.0	15.0	50.0	20.0	10.0	100(20)	
모직업	유	6.0	16.1	37.6	29.3	11.0	100(447)	5.552
	모	8.6	16.7	42.6	21.5	10.5	100(209)	
경제 수준	하	6.0	8.0	48.0	20.0	18.0	100(50)	15.448
	중	5.4	18.4	38.3	27.7	10.2	100(462)	
	상	12.1	14.2	38.3	24.8	10.6	100(141)	
학업 성적	하	5.9	13.0	39.1	29.6	12.4	100(169)	5.412
	중	5.7	17.9	40.4	26.1	10.0	100(280)	
	상	9.0	17.5	37.0	26.1	10.4	100(211)	

<부표 Ⅲ-2-34>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실외·여가활동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부학력	중졸이하	11.1	8.9	33.3	31.1	15.6	100(45)	11.480
	고졸	5.9	12.1	34.2	36.4	11.4	100(272)	
	대졸이상	7.6	9.5	30.3	32.4	20.2	100(327)	
모학력	중졸이하	12.8	10.3	30.8	33.3	12.8	100(39)	10.414
	고졸	5.9	10.3	34.6	36.0	13.1	100(358)	
	대졸이상	8.0	10.8	29.3	31.3	20.5	100(249)	
부직업	유	7.2	10.8	32.1	34.5	15.4	100(629)	6.626
	무	5.0	5.0	35.0	20.0	35.0	100(20)	
모직업	유	7.2	9.9	32.1	34.2	16.6	100(445)	1.226
	무	6.7	12.4	32.5	33.5	14.8	100(209)	
경제 수준	하	8.0	8.0	30.0	24.0	30.0	100(50)	13.076
	중	6.9	11.9	32.3	35.1	13.7	100(461)	
	상	6.5	7.2	32.4	34.5	19.4	100(139)	
학업 성적	하	8.4	15.1	32.5	27.1	16.9	100(166)	10.854
	중	5.0	9.3	31.1	37.9	16.8	100(280)	
	상	8.5	9.5	33.2	34.6	14.2	100(211)	

<부표 III-2-35>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원·독서실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7.9	11.3	41.1	24.3	15.4	100(292)	7.533
	청소년	6.0	14.9	33.6	30.9	14.6	100(369)	
지역	군/면	4.0	13.9	42.6	29.7	9.9	100(101)	6.924
	중소도시	5.8	14.7	36.6	28.8	14.1	100(191)	
	대도시	8.1	12.5	35.5	27.1	16.8	100(369)	
부직업	유	6.8	12.9	37.0	28.3	15.1	100(630)	2.586
	무	5.0	25.0	30.0	25.0	15.0	100(20)	
모직업	유	6.5	13.3	36.4	29.7	14.2	100(445)	2.148
	무	7.7	12.9	37.8	24.9	16.7	100(209)	
경제 수준	하	6.0	16.0	40.0	24.0	14.0	100(50)	11.736
	중	7.0	13.9	35.4	30.9	12.8	100(460)	
	상	7.1	10.6	40.4	20.6	21.3	100(141)	
학업 성적	하	7.7	15.4	36.1	29.0	11.8	100(169)	5.652
	중	6.4	14.3	37.1	28.2	13.9	100(280)	
	상	6.7	10.5	37.3	26.8	18.7	100(209)	

<부표 III-2-36>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유흥시설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6.1	20.4	32.7	28.6	12.2	100(49)	3.968
	중소도시	9.5	14.7	37.1	25.9	12.9	100(116)	
	대도시	11.7	19.0	34.6	21.0	13.7	100(205)	
부학력	중졸이하	11.4	20.0	40.0	14.3	14.3	100(35)	11.460
	고졸	6.3	20.1	34.6	28.3	10.7	100(159)	
	대졸이상	14.0	14.5	34.9	20.9	15.7	100(172)	
모학력	중졸이하	10.7	10.7	35.7	28.6	14.3	100(28)	12.166
	고졸	6.6	19.8	34.0	25.9	13.7	100(212)	
	대졸이상	16.7	15.1	37.3	18.3	12.7	100(126)	
부직업	유	10.5	17.3	35.5	23.6	13.1	100(352)	0.750
	무	6.3	18.8	31.3	25.0	18.8	100(16)	
모직업	유	10.2	14.9	37.6	22.7	14.5	100(255)	4.848
	무	10.7	22.3	30.4	25.9	10.7	100(112)	
경제 수준	하	6.1	21.2	33.3	12.1	27.3	100(33)	9.531
	중	10.7	18.1	34.7	25.1	11.4	100(271)	
	상	11.5	13.1	37.7	24.6	13.1	100(61)	
학업 수준	하	9.9	18.2	37.2	16.5	18.2	100(121)	11.680
	중	8.2	17.8	34.9	30.1	8.9	100(146)	
	상	13.7	16.7	33.3	22.5	13.7	100(102)	

<부표 Ⅲ-2-37>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8.0	16.1	34.3	33.6	8.0	100(137)	6.647
	중소도시	9.1	13.9	43.7	28.6	4.8	100(252)	
	대도시	8.2	16.0	38.9	32.6	4.4	100(476)	
부학력	중졸이하	15.0	15.0	48.3	21.7	0.0	100(60)	15.070
	고졸	8.9	15.4	40.8	30.9	3.9	100(382)	
	대졸이상	7.0	14.3	37.3	34.8	6.5	100(399)	
부직업	유	8.8	14.5	39.8	31.7	5.2	100(820)	5.251
	무	3.7	22.2	29.6	44.4	0.0	100(27)	
모직업	유	8.6	14.8	39.7	31.8	5.2	100(582)	0.127
	무	8.5	15.6	39.3	31.9	4.8	100(270)	

<부표 Ⅲ-2-3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학원·과외 수업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13.5	15.2	36.8	26.9	7.6	100(342)	4.137
	청소년	10.3	12.8	37.4	29.9	9.6	100(522)	
지역	군/면	12.4	13.1	46.0	19.7	8.8	100(137)	11.090
	중소도시	12.7	15.1	34.5	31.0	6.7	100(252)	
	대도시	10.7	13.3	36.0	30.1	9.9	100(475)	
부 학력	중졸이하	20.0	10.0	40.0	28.3	1.7	100(60)	15.210
	고졸	12.1	13.1	39.1	28.3	7.3	100(381)	
	대졸이상	9.3	15.3	35.1	29.1	11.3	100(399)	
모 학력	중졸이하	12.5	12.5	48.2	21.4	5.4	100(56)	12.217
	고졸	12.6	14.1	35.8	30.6	6.8	100(483)	
	대졸이상	9.3	14.2	37.1	27.5	11.9	100(302)	
부 직업	유	11.4	13.3	36.9	29.4	9.0	100(819)	4.863
	무	11.1	18.5	51.9	14.8	3.7	100(27)	
모 직업	유	12.4	13.6	37.1	27.8	9.1	100(582)	2.086
	무	9.7	13.8	37.2	31.2	8.2	100(269)	
경제 수준	하	19.2	10.3	35.9	23.1	11.5	100(78)	11.966
	중	11.1	13.6	39.1	28.9	7.4	100(596)	
	상	10.3	15.4	32.6	29.7	12.0	100(175)	
학업 성적	하	14.4	11.4	37.1	30.6	6.6	100(229)	13.406
	중	9.5	13.9	39.9	29.5	7.2	100(346)	
	상	11.4	15.7	34.2	26.3	12.5	100(281)	

<부표 Ⅲ-2-3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도서관·독서실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14.9	17.8	44.4	17.5	5.3	100(342)	1.946
	청소년	16.3	19.8	40.9	18.8	4.2	100(521)	
지역	군/면	19.7	19.0	45.3	11.7	4.4	100(137)	8.442
	중소도시	15.9	20.2	42.9	17.5	3.6	100(252)	
	대도시	14.6	18.4	41.1	20.7	5.3	100(474)	
모학력	중졸이하	16.1	12.5	55.4	10.7	5.4	100(56)	14.996
	고졸	17.2	20.3	41.5	17.8	3.1	100(482)	
	대졸이상	13.2	18.5	40.4	20.9	7.0	100(302)	
부직업	유	15.5	18.8	42.1	18.8	4.8	100(818)	5.412
	무	22.2	14.8	55.6	3.7	3.7	100(27)	
모직업	유	16.9	18.8	41.5	17.7	5.2	100(581)	3.024
	무	13.4	18.6	45.0	19.3	3.7	100(269)	
경제수준	하	21.8	15.4	42.3	11.5	9.0	100(78)	13.862
	중	14.8	19.8	43.5	18.6	3.4	100(596)	
	상	16.6	16.6	40.6	18.9	7.4	100(175)	

<부표 Ⅲ-2-40>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TV시청·DVD감상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7.0	12.0	37.5	36.7	6.7	100(341)	5.765
	청소년	4.8	9.6	35.6	40.6	9.4	100(552)	
부학력	중졸이하	5.0	10.0	31.7	45.0	8.3	100(60)	5.103
	고졸	4.5	9.2	36.4	41.1	8.9	100(382)	
	대졸이상	6.5	11.8	37.0	36.5	8.1	100(397)	
모학력	중졸이하	5.4	10.7	37.5	37.5	8.9	100(56)	12.944
	고졸	3.7	9.3	35.2	42.4	9.3	100(483)	
	대졸이상	8.3	12.3	37.5	34.9	7.0	100(301)	
부직업	유	5.6	10.9	35.9	39.0	8.6	100(818)	3.871
	무	3.7	0.0	44.4	44.4	7.4	100(27)	
모직업	유	5.3	9.6	35.2	40.7	9.1	100(582)	4.133
	무	6.3	12.3	38.4	35.8	7.1	100(268)	
경제수준	하	6.4	9.0	38.5	32.1	14.1	100(78)	8.480
	중	5.0	9.7	37.2	40.4	7.6	100(596)	
	상	6.9	13.2	32.8	37.9	9.2	100(174)	
학업성적	하	5.7	8.8	39.9	36.4	9.2	100(228)	9.789
	중	4.0	9.8	38.0	40.3	7.8	100(347)	
	상	7.5	12.9	31.1	40.0	8.6	100(280)	

<부표 Ⅲ-2-41>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게임·인터넷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8.2	13.2	30.9	35.3	12.5	100(417)	8.256
	여	6.7	9.0	34.5	40.4	9.4	100(446)	
교급	아동	9.1	9.6	33.6	37.4	10.2	100(342)	3.403
	청소년	6.3	11.9	32.2	38.2	11.3	100(521)	
지역	군/면	6.6	7.3	35.8	35.0	15.3	100(137)	13.113
	중소도시	6.0	10.0	29.1	42.6	12.4	100(251)	
	대도시	8.4	12.6	33.9	36.2	8.8	100(475)	
부 학력	중졸이하	10.0	15.0	31.7	33.3	10.0	100(60)	5.293
	고졸	6.8	10.5	30.6	39.5	12.6	100(382)	
	대졸이상	7.3	10.8	35.2	37.2	9.5	100(398)	
모 학력	중졸이하	8.9	10.7	35.7	37.5	7.1	100(56)	8.484
	고졸	6.0	11.0	30.4	40.0	12.6	100(483)	
	대졸이상	9.0	11.0	35.9	35.2	9.0	100(301)	
부 직업	유	7.6	11.0	32.7	37.5	11.2	100(819)	1.966
	무	3.7	7.4	33.3	48.1	7.4	100(27)	
모 직업	유	6.9	10.5	32.2	37.5	12.9	100(581)	7.267
	무	8.9	11.9	34.1	38.1	7.0	100(270)	
경제 수준	하	11.5	12.8	30.8	29.5	15.4	100(78)	11.888
	중	6.4	10.6	32.2	41.0	9.9	100(597)	
	상	9.8	12.1	33.9	31.6	12.6	100(174)	
학업 성적	하	8.3	11.4	32.9	36.0	11.4	100(228)	9.392
	중	4.6	10.1	34.9	39.5	11.0	100(347)	
	상	10.3	11.7	29.5	37.7	10.7	100(281)	

<부표 Ⅲ-2-42>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실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6.6	11.8	41.9	30.9	8.8	100(136)	6.387
	중소도시	5.2	11.6	46.6	29.5	7.2	100(251)	
	대도시	7.2	15.8	39.0	29.7	8.2	100(474)	
부학력	중졸이하	6.7	13.3	45.0	30.0	5.0	100(60)	7.267
	고졸	5.8	15.0	44.7	27.4	7.1	100(380)	
	대졸이상	6.5	12.6	38.3	33.2	9.3	100(397)	
모학력	중졸이하	7.1	19.6	41.1	25.0	7.1	100(56)	15.332
	고졸	4.6	13.1	45.3	30.6	6.4	100(481)	
	대졸이상	9.0	14.3	35.9	30.6	10.3	100(301)	
부직업	유	6.5	14.0	41.4	30.0	8.1	100(816)	2.545
	무	3.7	7.4	55.6	25.9	7.4	100(27)	
모직업	유	6.4	15.0	41.1	29.9	7.6	100(579)	2.225
	무	6.7	11.5	43.1	29.7	8.9	100(269)	
경제 수준	하	10.3	10.3	43.6	26.9	9.0	100(78)	12.854
	중	5.6	14.3	43.2	30.5	6.4	100(593)	
	상	8.0	13.7	35.4	30.3	12.6	100(175)	
학업 성적	하	7.9	12.7	45.0	26.2	8.3	100(229)	12.517
	중	3.8	13.9	41.7	33.9	6.7	100(345)	
	상	8.6	14.7	39.1	28.3	9.3	100(279)	

<부표 Ⅲ-2-43>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문화·취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9.1	12.0	38.4	30.8	9.7	100(341)	7.026
	청소년	5.6	13.8	43.9	29.3	7.5	100(552)	
지역	군/면	8.8	11.0	41.9	30.1	8.1	100(136)	3.284
	중소도시	7.1	11.5	42.9	31.0	7.5	100(252)	
	대도시	6.3	14.5	41.1	29.3	8.8	100(475)	
부학력	중졸이하	10.0	20.0	36.7	26.7	6.7	100(60)	13.590
	고졸	7.1	12.4	42.9	31.8	5.8	100(380)	
	대졸이상	5.0	12.8	42.1	28.8	11.3	100(399)	
모학력	중졸이하	10.7	17.9	50.0	16.1	5.4	100(56)	12.858
	고졸	6.4	12.0	42.1	32.4	7.1	100(482)	
	대졸이상	5.6	13.6	40.4	29.5	10.9	100(302)	
부직업	유	6.8	12.8	41.4	30.3	8.6	100(818)	2.961
	무	3.7	14.8	55.6	18.5	7.4	100(27)	
모직업	유	6.4	12.4	42.9	29.3	9.1	100(581)	2.781
	무	7.8	13.8	40.1	31.6	6.7	100(269)	
경제 수준	하	6.4	10.3	53.8	20.5	9.0	100(78)	11.092
	중	6.6	12.8	42.2	31.1	7.4	100(595)	
	상	7.4	15.4	35.4	30.3	11.4	100(175)	
학업 성적	하	7.0	10.9	43.2	30.1	8.7	100(229)	8.038
	중	4.6	13.9	41.3	32.4	7.8	100(346)	
	상	9.3	13.6	41.4	26.8	8.9	100(280)	

<부표 Ⅲ-2-44>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예상: 친구 만나기

(단위 : %)

구 분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늘어날 것이다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부학력	중졸이하	6.7	5.0	40.0	25.0	23.3	100(60)	11.466
	고졸	4.5	7.1	31.9	40.6	16.0	100(382)	
	대졸이상	7.0	8.0	30.3	34.6	20.1	100(399)	
모학력	중졸이하	7.1	3.6	46.4	26.8	16.1	100(56)	14.753
	고졸	4.8	7.0	30.6	40.3	17.4	100(484)	
	대졸이상	7.3	8.9	31.5	31.8	20.5	100(302)	
부직업	유	6.1	7.3	31.2	36.7	18.7	100(820)	2.010
	무	3.7	3.7	40.7	29.6	22.2	100(27)	
모직업	유	5.5	7.4	32.3	35.6	19.2	100(582)	1.578
	무	7.4	7.0	30.4	37.0	18.1	100(270)	

<부표 Ⅲ-2-45>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5.4	5.6	38.8	35.5	14.8	100(485)	9.042
	여	2.6	4.7	35.0	41.9	15.7	100(508)	
지역	군/면	4.7	4.7	33.1	42.6	14.9	100(148)	5.749
	중소도시	3.1	3.8	38.3	41.1	13.6	100(287)	
	대도시	4.1	5.9	37.1	36.6	16.3	100(558)	
부학력	중졸이하	6.1	7.6	45.5	31.8	9.1	100(66)	15.163
	고졸	3.4	4.5	39.1	40.7	12.2	100(442)	
	대졸이상	3.9	5.0	33.6	38.6	19.0	100(459)	
모직업	유	4.5	4.2	37.0	39.3	15.1	100(671)	4.041
	무	2.9	6.5	37.9	36.9	15.9	100(309)	

<부표 Ⅲ-2-46>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학원·과외 수업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28.0	27.6	35.3	6.6	2.5	100(485)	4.324
	여	23.3	30.6	37.7	6.7	1.6	100(506)	
교급	아동	29.4	27.3	33.9	6.8	2.5	100(395)	6.432
	청소년	23.2	30.4	38.3	6.5	1.7	100(596)	
지역	군/면	23.8	24.5	43.5	4.8	3.4	100(147)	7.425
	중소도시	24.5	31.5	35.7	7.0	1.4	100(286)	
	대도시	26.7	29.2	35.1	7.0	2.0	100(558)	
부직업	유	25.7	29.0	36.6	6.9	1.9	100(943)	5.053
	무	20.0	43.3	36.7	0.0	0.0	100(30)	
모직업	유	26.7	29.1	35.9	6.9	1.5	100(671)	2.381
	무	24.1	29.0	38.1	6.2	2.6	100(307)	
용돈 수준	하	26.2	28.6	32.9	9.5	2.9	100(210)	9.427
	중	26.2	31.0	36.4	5.2	1.3	100(462)	
	상	25.3	25.7	40.0	7.2	1.9	100(265)	
학업 성적	하	24.0	29.7	36.1	7.2	3.0	100(263)	8.815
	중	26.6	26.1	39.5	6.3	1.5	100(410)	
	상	25.7	33.4	33.1	6.4	1.3	100(311)	

<부표 Ⅲ-2-47>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도서관·독서실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14.2	24.3	42.6	14.9	4.1	100(148)	3.315
	중소도시	15.7	25.1	39.0	16.4	3.8	100(287)	
	대도시	16.2	21.6	40.8	15.8	5.6	100(556)	
부학력	중졸이하	19.7	25.8	37.9	13.6	3.0	100(66)	11.824
	고졸	14.5	25.9	42.6	13.2	3.9	100(441)	
	대졸이상	15.7	20.5	39.2	18.7	5.9	100(459)	
부직업	유	16.1	22.6	40.4	16.1	4.9	100(944)	4.435
	무	6.7	36.7	40.0	13.3	3.3	100(30)	
학업 성적	하	19.3	19.3	42.4	15.2	3.8	100(264)	13.753
	중	15.9	25.7	40.3	13.9	4.2	100(409)	
	상	12.2	23.1	39.1	19.2	6.4	100(312)	

<부표 Ⅲ-2-48>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TV시청·DVD감상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 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3.1	4.1	36.5	39.6	16.7	100(485)	5.216
	여	2.8	4.7	38.0	42.7	11.8	100(508)	
교급	아동	2.8	4.0	40.9	39.9	12.4	100(396)	4.437
	청소년	3.0	4.7	34.8	42.0	15.4	100(597)	
지역	군/면	2.0	4.1	37.8	41.9	14.2	100(148)	10.900
	중소도시	2.8	5.2	30.3	47.4	14.3	100(287)	
	대도시	3.2	4.1	40.7	37.8	14.2	100(558)	
부학력	중졸이하	1.5	3.0	29.9	43.3	22.4	100(67)	7.506
	고졸	2.5	4.3	39.8	40.7	12.7	100(442)	
	대졸이상	3.5	4.6	36.2	41.3	14.4	100(458)	
모학력	중졸이하	3.2	1.6	35.5	43.5	16.1	100(62)	12.930
	고졸	1.8	3.6	40.0	41.7	12.9	100(557)	
	대졸이상	4.0	6.3	33.8	39.8	16.0	100(349)	
부직업	유	3.1	4.7	36.8	41.2	14.3	100(945)	2.702
	무	0.0	0.0	43.3	43.3	13.3	100(30)	
모직업	유	3.4	4.3	37.4	41.0	13.9	100(671)	1.896
	무	1.9	4.5	37.9	40.5	15.2	100(309)	
경제 수준	하	3.6	2.4	39.8	39.8	14.5	100(83)	6.759
	중	2.5	4.9	38.7	41.0	12.9	100(690)	
	상	4.4	3.9	32.5	42.7	16.5	100(206)	
용돈 수준	하	3.3	3.3	39.0	41.4	12.9	100(210)	8.189
	중	2.8	4.1	39.4	39.9	13.8	100(464)	
	상	2.7	6.4	31.1	43.9	15.9	100(264)	
학업 성적	하	3.0	6.4	38.5	37.4	14.7	100(265)	9.802
	중	2.2	4.4	39.2	40.4	13.9	100(411)	
	상	3.9	2.9	33.5	45.5	14.2	100(310)	

<부표 Ⅲ-2-49>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게임·인터넷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4.3	7.3	33.7	34.4	20.4	100(398)	2.663
	청소년	3.4	5.9	35.2	37.4	18.1	100(596)	
지역	군/면	2.7	4.0	35.6	36.2	21.5	100(149)	11.506
	중소도시	2.8	7.3	29.6	42.2	18.1	100(287)	
	대도시	4.5	6.6	36.9	33.2	18.8	100(558)	
부학력	중졸이하	4.5	7.6	36.4	30.3	21.2	100(66)	7.979
	고졸	2.9	5.2	35.4	39.4	17.1	100(444)	
	대졸이상	4.4	7.6	33.8	33.8	20.5	100(459)	
모학력	중졸이하	4.9	6.6	41.0	29.5	18.0	100(61)	15.181
	고졸	2.3	5.2	35.7	38.9	17.9	100(558)	
	대졸이상	5.4	8.6	32.3	32.9	20.9	100(350)	
부직업	유	3.9	6.4	34.1	36.3	19.2	100(947)	2.116
	무	0.0	3.3	40.0	40.0	16.7	100(30)	
모직업	유	3.9	6.4	33.6	35.5	20.7	100(673)	3.387
	무	3.6	6.5	36.6	37.5	15.9	100(309)	
용돈 수준	하	4.3	6.6	31.3	36.0	21.8	100(211)	3.514
	중	3.2	6.9	34.9	36.6	18.3	100(464)	
	상	2.3	6.0	36.2	36.6	18.9	100(265)	
학업 성적	하	3.0	6.1	34.1	39.4	17.4	100(264)	10.926
	중	2.9	6.3	38.4	34.5	17.8	100(411)	
	상	5.4	7.0	29.7	35.8	22.0	100(313)	

<부표 Ⅲ-2-50>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실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성별	남	5.8	6.0	34.5	33.7	20.0	100(484)	6.557
	여	3.6	8.5	36.3	34.9	16.8	100(507)	
지역	군/면	4.7	8.1	34.5	34.5	18.2	100(148)	6.758
	중소도시	3.5	4.9	38.7	36.2	16.7	100(287)	
	대도시	5.2	8.3	34.0	33.3	19.2	100(556)	
부학력	중졸이하	1.5	4.5	47.0	33.3	13.6	100(66)	9.618
	고졸	4.8	6.8	36.8	35.2	16.4	100(440)	
	대졸이상	4.1	7.8	32.7	34.4	20.9	100(459)	
부직업	유	4.8	7.3	35.5	34.0	18.3	100(943)	2.805
	무	0.0	3.3	33.3	40.0	23.3	100(30)	
모직업	유	4.9	7.5	36.2	33.8	17.6	100(671)	1.552
	무	3.9	6.8	34.5	34.5	20.2	100(307)	
용돈 수준	하	2.9	5.2	31.4	34.3	26.2	100(210)	13.587
	중	4.5	6.9	36.9	34.8	16.8	100(463)	
	상	5.3	8.0	37.9	33.7	15.2	100(264)	
학업 성적	하	7.6	6.1	37.9	31.8	16.7	100(264)	15.169
	중	2.7	8.1	37.9	33.3	18.1	100(409)	
	상	4.5	7.1	30.5	37.9	19.9	100(311)	

<부표 Ⅲ-2-51>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문화·취미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4.7	6.1	35.1	34.5	19.6	100(148)	1.596
	중소도시	3.5	8.0	33.1	35.9	19.5	100(287)	
	대도시	3.4	6.8	34.4	34.6	20.7	100(555)	
부직업	유	3.6	6.9	33.9	34.9	20.7	100(942)	2.600
	무	0.0	10.0	40.0	36.7	13.3	100(30)	
모직업	유	3.6	7.3	36.0	33.3	19.7	100(669)	3.230
	무	3.2	6.8	30.8	37.7	21.4	100(308)	
학업 성적	하	4.2	6.5	40.1	32.8	16.4	100(262)	14.838
	중	3.9	8.3	34.7	32.8	20.3	100(409)	
	상	2.2	5.8	29.2	39.4	23.4	100(312)	

<부표 Ⅲ-2-52> 서머타임제 적용 후 시간활용 선호: 친구 만나기

(단위 : %)

구 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한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2.0	3.4	29.7	35.8	29.1	100(148)	6.385
	중소도시	3.5	3.5	24.7	43.2	25.1	100(287)	
	대도시	2.7	3.6	28.1	35.8	29.7	100(558)	
부직업	유	2.6	3.5	27.2	38.0	28.7	100(945)	0.460
	무	3.3	3.3	30.0	40.0	23.3	100(30)	
모직업	유	2.7	3.7	28.5	36.1	29.1	100(671)	2.380
	무	2.9	2.9	25.9	40.8	27.5	100(309)	
용돈 수준	하	2.4	4.3	29.0	35.7	28.6	100(210)	8.262
	중	3.4	2.4	24.6	39.0	30.6	100(464)	
	상	1.5	4.2	29.4	38.5	26.4	100(265)	
학업 성적	하	3.8	3.0	31.1	38.6	23.5	100(264)	12.277
	중	2.2	3.4	29.3	37.3	27.8	100(410)	
	상	2.6	3.8	21.8	38.5	33.3	100(312)	

<부표 Ⅲ-2-53>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지역	군/면	10.7	12.0	35.3	20.7	21.3	100(150)	12.418
	중소도시	16.4	15.3	25.8	25.1	17.4	100(287)	
	대도시	16.6	17.7	26.7	19.9	19.1	100(559)	
부직업	유	16.0	16.2	27.6	20.8	19.3	100(948)	4.102
	무	6.7	13.3	30.0	33.3	16.7	100(30)	

<부표 Ⅲ-2-54>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교급	아동	6.5	10.6	32.2	28.6	22.1	100(398)	4.439
	청소년	7.2	12.4	27.3	32.8	20.4	100(598)	
지역	군/면	4.0	11.3	35.1	28.5	21.2	100(151)	10.077
	중소도시	7.3	12.2	24.7	30.7	25.1	100(287)	
	대도시	7.5	11.5	29.9	32.1	19.0	100(558)	
부직업	유	7.0	11.5	29.1	30.9	21.5	100(948)	2.374
	무	3.3	16.7	33.3	33.3	13.3	100(30)	
모직업	유	6.4	12.1	28.0	30.7	22.8	100(675)	4.590
	무	7.8	10.7	31.8	31.8	17.9	100(308)	
경제 수준	하	7.2	20.5	20.5	25.3	26.5	100(83)	13.225
	중	6.8	11.0	29.9	32.8	19.6	100(693)	
	상	5.9	10.7	32.2	28.3	22.9	100(205)	

부 록 3. 학부모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표

<부표 Ⅲ-3-1> 아침식사 여부(성인가족)

(단위 : %)

구 분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하는 편이다	거의 하지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않는 편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나이	30대	58.7	27.0	12.7	1.6	100(126)	2.522
	40대	60.6	25.4	13.1	0.9	100(327)	
	50세이상	67.6	26.5	5.9	0.0	100(34)	
학력	중졸이하	64.0	20.0	12.0	4.0	100(25)	5.841
	고졸	59.3	25.4	14.3	1.1	100(280)	
	대졸이상	60.7	29.1	9.7	0.5	100(196)	
직업	유	58.5	26.6	13.4	1.4	100(357)	3.704
	무	64.4	25.5	10.1	0.0	100(149)	

<부표 Ⅲ-3-2> 아침식사 여부(자녀)

(단위 : %)

구 분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하는 편이다	거의 하지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않는 편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60.3	26.2	10.3	3.2	100(126)	7.613
	40대	60.6	25.4	13.1	0.9	100(327)	
	50세이상	76.5	17.6	5.9	0.0	100(34)	
학력	중졸이하	64.0	20.0	12.0	4.0	100(25)	5.981
	고졸	58.9	25.0	14.3	1.8	100(280)	
	대졸이상	64.3	26.0	9.2	0.5	100(196)	
직업	유	59.9	25.8	12.6	1.7	100(357)	1.720
	무	65.1	22.8	11.4	0.7	100(149)	

<부표 Ⅲ-3-3>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가족들이 일찍 등교, 출근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족 모두 아침을 안먹는 습관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50.0	25.0	10.0	15.0	100(20)	8.377
	40대	31.9	34.0	27.7	6.4	100(47)	
	50세이상	0.0	33.3	66.7	0.0	100(3)	
자녀 교급	아동	38.5	38.5	15.4	7.7	100(13)	4.521
	중학생	27.8	22.2	33.3	16.7	100(18)	
	고등학생	39.5	32.6	23.3	4.7	100(43)	
학력	중졸이하	25.0	25.0	25.0	25.0	100(4)	4.022
	고졸	41.3	26.1	23.9	8.7	100(46)	
	대졸이상	30.4	43.5	21.7	4.3	100(23)	
직업	유	39.3	23.2	26.8	10.7	100(56)	7.580
	무	27.8	55.6	16.7	0.0	100(18)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26.1	34.8	30.4	8.7	100(23)	6.758
	201~400만원	34.6	34.6	19.2	11.5	100(26)	
	401만원이상	63.6	9.1	27.3	0.0	100(11)	

<부표 Ⅲ-3-4> 서머타임제 인지여부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빈도)	카이제곱값
직업	유	72.5	27.5	100(357)	1.541
	무	77.9	22.1	100(149)	

<부표 Ⅲ-3-5> 서머타임제 인지경로

(단위 : %)

구 분		회사	가정	대중매체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5.8	1.0	76.0	17.3	100(104)	4.719
	40대	9.4	2.1	77.3	11.2	100(233)	
	50세이상	11.5	0.0	73.1	15.4	100(26)	
직업	유	10.8	2.3	73.4	13.5	100(259)	5.544
	무	4.3	0.9	81.9	12.9	100(116)	

<부표 Ⅲ-3-6> 서머타임제 인지정도

(단위 : %)

구 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1.0	19.2	66.3	13.5	100(104)	3.896
	40대	0.0	20.2	66.1	13.7	100(233)	
	50세이상	0.0	11.5	76.9	11.5	100(26)	
자녀 교급	아동	0.0	17.5	65.0	17.5	100(103)	4.647
	중학생	0.7	20.0	66.7	12.6	100(135)	
	고등학생	0.0	19.7	70.1	10.2	100(137)	
직업	유	0.4	18.9	66.8	13.9	100(259)	0.983
	무	0.0	19.8	69.0	11.2	100(116)	

<부표 Ⅲ-3-7> 서머타임제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31.7	42.9	25.4	100(126)	1.851
	40대	30.0	47.4	22.6	100(327)	
	50세이상	38.2	38.2	23.5	100(34)	
자녀 교급	아동	31.1	45.4	23.5	100(119)	1.731
	중학생	34.4	43.6	22.1	100(163)	
	고등학생	28.1	47.3	24.6	100(224)	
학력	중졸이하	24.0	40.0	36.0	100(25)	4.118
	고졸	28.9	47.5	23.6	100(280)	
	대졸이상	34.7	43.4	21.9	100(196)	
직업	유	29.7	47.1	23.2	100(357)	1.072
	무	33.6	42.3	24.2	100(149)	

<부표 Ⅲ-3-8>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단위 : %)

구 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71.4	28.6	100(126)	2.142
	40대	64.2	35.8	100(327)	
	50세이상	64.7	35.3	100(34)	
자녀 교급	아동	70.6	29.4	100(119)	4.585
	중학생	69.9	30.1	100(163)	
	고등학생	61.2	38.8	100(224)	
직업	유	65.8	34.2	100(357)	0.078
	무	67.1	32.9	100(149)	

<부표 Ⅲ-3-9>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적응의 어려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0.0	3.4	36.0	44.9	15.7	100(89)	14.415
	40대	3.8	12.4	23.8	46.7	13.3	100(210)	
	50세이상	0.0	4.5	36.4	45.5	13.6	100(22)	
자녀 교급	아동	1.2	9.5	27.4	44.0	17.9	100(84)	8.484
	중학생	2.7	7.1	31.9	50.4	8.0	100(113)	
	고등학생	2.9	11.7	23.4	46.0	16.1	100(137)	
학력	중졸이하	7.1	0.0	50.0	35.7	7.1	100(14)	8.363
	고졸	1.2	9.6	26.9	47.3	15.0	100(167)	
	대졸이상	3.4	10.8	25.0	47.3	13.5	100(148)	
직업	유	3.0	9.8	26.1	47.4	13.7	100(234)	1.644
	무	1.0	9.0	30.0	46.0	14.0	100(100)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0.0	5.2	32.8	53.4	8.6	100(58)	6.556
	201~400만원	2.2	10.9	26.1	47.8	13.0	100(138)	
	401만원이상	4.2	11.5	27.1	43.8	13.5	100(96)	

<부표 Ⅲ-3-10>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에너지 절약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자녀 교급	아동	1.2	27.4	33.3	32.1	6.0	100(84)	13.499
	중학생	7.9	19.3	35.1	29.8	7.9	100(114)	
	고등학생	3.7	22.1	44.9	27.2	2.2	100(136)	
학력	중졸이하	14.3	7.1	57.1	21.4	0.0	100(14)	13.955
	고졸	3.0	27.5	38.9	25.1	5.4	100(167)	
	대졸이상	4.1	18.9	35.8	35.8	5.4	100(148)	
직업	유	4.7	20.9	40.0	31.1	3.4	100(235)	6.589
	무	4.0	26.3	35.4	25.3	9.1	100(99)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1.7	27.1	42.4	25.4	3.4	100(59)	5.974
	201~400만원	4.4	23.4	38.7	27.7	5.8	100(137)	
	401만원이상	6.3	18.8	33.3	34.4	7.3	100(96)	

<부표 Ⅲ-3-11>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야간범죄 피해감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6.7	30.0	35.6	23.3	4.4	100(90)	8.957
	40대	3.8	36.8	30.1	25.8	3.3	100(209)	
	50세이상	4.5	13.6	40.9	40.9	0.0	100(22)	
자녀 교급	아동	6.0	34.5	29.8	26.2	3.6	100(84)	3.396
	중학생	5.3	33.6	29.2	28.3	3.5	100(113)	
	고등학생	2.9	32.8	37.2	24.1	2.9	100(137)	
학력	중졸이하	14.3	14.3	50.0	14.3	7.1	100(14)	13.215
	고졸	3.0	39.5	29.3	25.7	2.4	100(167)	
	대졸이상	5.4	27.7	34.5	28.4	4.1	100(148)	
직업	유	5.1	33.2	31.5	27.2	3.0	100(235)	1.681
	무	3.0	34.3	35.4	23.2	4.0	100(99)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3.4	28.8	40.7	25.4	1.7	100(59)	3.759
	201~400만원	4.3	37.0	29.7	24.6	4.3	100(138)	
	401만원이상	4.2	31.3	32.3	28.1	4.2	100(96)	

<부표 Ⅲ-3-12>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수면시간의 감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0.0	18.0	30.3	44.9	6.7	100(89)	6.344
	40대	1.9	24.4	30.1	38.3	5.3	100(209)	
	50세이상	4.5	22.7	27.3	45.5	0.0	100(22)	
자녀 교급	아동	1.2	19.3	27.7	44.6	7.2	100(83)	7.860
	중학생	2.6	21.9	30.7	36.8	7.9	100(114)	
	고등학생	0.7	25.7	29.4	41.9	2.2	100(136)	
학력	중졸이하	7.1	7.1	35.7	50.0	0.0	100(14)	11.397
	고졸	0.6	22.3	32.5	41.0	3.6	100(166)	
	대졸이상	2.0	25.0	25.7	39.2	8.1	100(148)	
직업	유	1.7	24.5	27.9	39.5	6.4	100(233)	3.653
	무	1.0	19.0	33.0	44.0	3.0	100(100)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1.7	16.9	35.6	40.7	5.1	100(59)	10.990
	201~400만원	1.5	27.0	26.3	42.3	2.9	100(137)	
	401만원이상	1.1	21.1	30.5	35.8	11.6	100(95)	

<부표 Ⅲ-3-13>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근무시간의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4.4	21.1	30.0	38.9	5.6	100(90)	1.780
	40대	2.9	21.9	28.1	42.9	4.3	100(210)	
	50세이상	4.5	18.2	36.4	36.4	4.5	100(22)	
자녀 교급	아동	6.0	21.4	27.4	39.3	6.0	100(84)	7.119
	중학생	0.9	21.9	28.1	43.0	6.1	100(114)	
	고등학생	3.6	20.4	30.7	43.1	2.2	100(137)	
학력	중졸이하	7.1	21.4	35.7	35.7	0.0	100(14)	8.224
	고졸	3.0	24.4	28.0	42.3	2.4	100(168)	
	대졸이상	2.0	18.2	29.1	43.2	7.4	100(148)	
직업	유	3.4	23.4	27.7	40.4	5.1	100(235)	3.519
	무	3.0	16.0	32.0	46.0	3.0	100(100)	

<부표 Ⅲ-3-14>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0.0	27.8	36.7	28.9	6.7	100(90)	8.298
	40대	3.3	21.9	43.3	26.2	5.2	100(210)	
	50세이상	4.5	18.2	36.4	40.9	0.0	100(22)	
자녀 교급	아동	2.4	21.4	44.0	25.0	7.1	100(84)	2.260
	중학생	2.6	25.4	39.5	28.9	3.5	100(114)	
	고등학생	2.2	23.4	40.1	28.5	5.8	100(137)	
학력	중졸이하	7.1	14.3	42.9	28.6	7.1	100(14)	6.890
	고졸	0.6	23.8	44.0	26.8	4.8	100(168)	
	대졸이상	4.1	23.6	37.8	28.4	6.1	100(148)	
직업	유	3.0	23.4	38.7	28.5	6.4	100(235)	3.722
	무	1.0	24.0	46.0	26.0	3.0	100(100)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0.0	15.3	42.4	39.0	3.4	100(59)	11.496
	201~400만원	3.6	29.0	37.0	26.1	4.3	100(138)	
	401만원이상	1.0	20.8	42.7	28.1	7.3	100(96)	

<부표 Ⅲ-3-15>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생들의 실외·여가활동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0.0	16.7	37.8	41.1	4.4	100(90)	12.708
	40대	3.3	22.9	30.5	38.6	4.8	100(210)	
	50세이상	0.0	0.0	50.0	45.5	4.5	100(22)	
자녀 교급	아동	1.2	17.9	34.5	38.1	8.3	100(84)	5.723
	중학생	2.6	23.7	30.7	40.4	2.6	100(114)	
	고등학생	2.2	17.5	34.3	41.6	4.4	100(137)	
직업	유	2.6	18.3	34.9	38.3	6.0	100(235)	5.415
	무	1.0	23.0	29.0	45.0	2.0	100(100)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0.0	20.3	39.0	39.0	1.7	100(59)	9.356
	201~400만원	3.6	18.8	31.2	42.8	3.6	100(138)	
	401만원이상	2.1	17.7	28.1	42.7	9.4	100(96)	

<부표 Ⅲ-3-16>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생들의 학원·독서실
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0.0	23.3	36.7	34.4	5.6	100(90)	13.019
	40대	4.8	15.8	31.1	43.5	4.8	100(209)	
	50세이상	4.5	9.1	54.5	27.3	4.5	100(22)	
자녀 교급	아동	3.6	27.4	29.8	35.7	3.6	100(84)	8.878
	중학생	2.7	15.0	32.7	44.2	5.3	100(113)	
	고등학생	3.6	13.9	38.0	38.7	5.8	100(137)	
직업	유	3.8	17.1	34.2	39.7	5.1	100(234)	0.873
	무	2.0	19.0	34.0	40.0	5.0	100(100)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0.0	13.6	32.2	49.2	5.1	100(59)	7.029
	201~400만원	4.4	19.0	35.0	38.7	2.9	100(137)	
	401만원이상	3.1	18.8	32.3	38.5	7.3	100(96)	

<부표 Ⅲ-3-17> 서머타임제로 인한 생활의 변화: 학생들의 유흥시설
이용시간 증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3.3	35.6	31.1	24.4	5.6	100(90)	8.076
	40대	8.6	32.5	29.7	27.8	1.4	100(209)	
	50세이상	9.1	40.9	27.3	18.2	4.5	100(22)	
자녀 교급	아동	10.7	29.8	36.9	19.0	3.6	100(84)	11.244
	중학생	7.0	38.6	23.7	25.4	5.3	100(114)	
	고등학생	5.1	33.1	30.9	29.4	1.5	100(136)	
학력	중졸이하	14.3	21.4	28.6	28.6	7.1	100(14)	6.494
	고졸	5.4	32.9	29.3	28.1	4.2	100(167)	
	대졸이상	8.8	37.2	30.4	21.6	2.0	100(148)	
직업	유	8.1	30.2	29.4	29.8	2.6	100(235)	11.731
	무	5.1	43.4	31.3	15.2	5.1	100(99)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1.7	36.2	31.0	25.9	5.2	100(58)	11.220
	201~400만원	10.9	31.2	29.7	26.8	1.4	100(138)	
	401만원이상	5.2	43.8	24.0	24.0	3.1	100(96)	

<부표 Ⅲ-3-18> 가족과의 평일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원/ 학업	TV/ 게임	실외 활동	문화취미/ 자원봉사	휴식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5.4	8.0	44.6	9.8	32.1	100(112)	6.495
	40대	6.0	10.6	46.5	11.6	25.2	100(301)	
	50세이상	2.9	17.6	32.4	14.7	32.4	100(34)	
자녀 교급	아동	4.6	7.4	49.1	9.3	29.6	100(108)	10.476
	중학생	8.4	11.2	47.6	9.1	23.8	100(143)	
	고등학생	4.7	12.6	40.0	15.3	27.4	100(215)	
학력	중졸이하	0.0	26.1	26.1	13.0	34.8	100(23)	10.348
	고졸	6.9	10.3	45.6	10.3	26.8	100(261)	
	대졸이상	5.1	10.2	45.2	13.6	26.0	100(177)	
직업	유	5.8	12.2	44.2	11.0	26.8	100(328)	2.595
	무	5.8	8.0	44.9	14.5	26.8	100(138)	

<부표 Ⅲ-3-19> 가족과의 휴일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원/ 학업	TV/ 게임	실외 활동	문화취미/ 자원봉사	휴식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4.3	7.7	26.5	43.6	17.9	100(117)	5.813
	40대	4.4	6.5	29.9	34.4	24.8	100(294)	
	50세이상	3.2	6.5	19.4	45.2	25.8	100(31)	

<부표 Ⅲ-3-20> 자녀와의 평일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원/ 학업	TV/ 게임	실외 활동	문화취미/ 자원봉사	휴식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40.9	15.7	20.9	10.4	12.2	100(115)	7.353
	40대	47.0	14.9	19.9	8.6	9.6	100(302)	
	50세이상	61.8	17.6	5.9	5.9	8.8	100(34)	
학력	중졸이하	34.8	30.4	13.0	13.0	8.7	100(23)	11.119
	고졸	47.0	18.6	16.3	8.7	9.5	100(264)	
	대졸이상	43.8	11.8	24.2	9.6	10.7	100(178)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43.3	22.7	15.5	9.3	9.3	100(97)	15.210
	201~400만원	49.5	15.5	17.0	9.8	8.2	100(194)	
	401만원이상	44.6	7.4	24.0	9.1	14.9	100(121)	

<부표 Ⅲ-3-21> 자녀와의 휴일 시간사용

(단위 : %)

구 분		학원/ 학업	TV/ 게임	실외 활동	문화취미/ 자원봉사	휴식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15.4	15.4	22.2	32.5	14.5	100(117)	6.624
	40대	14.8	19.9	16.8	34.4	14.1	100(291)	
	50세이상	20.7	10.3	20.7	24.1	24.1	100(29)	
자녀 교급	아동	16.0	17.0	19.8	34.0	13.2	100(106)	6.719
	중학생	10.3	17.1	21.9	32.2	18.5	100(146)	
	고등학생	17.8	19.3	15.8	32.2	14.9	100(202)	
학력	중졸이하	12.5	25.0	25.0	25.0	12.5	100(24)	4.270
	고졸	15.3	19.6	16.5	32.5	16.1	100(255)	
	대졸이상	14.6	15.2	21.1	33.9	15.2	100(171)	
직업	유	14.8	20.5	16.4	32.2	16.1	100(317)	6.697
	무	15.3	12.4	24.1	33.6	14.6	100(137)	

<부표 Ⅲ-3-22> 서머타임제 시행 시 아침급식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13.1	33.6	23.0	22.1	8.2	100(122)	5.232
	40대	13.4	36.0	20.7	19.1	10.8	100(314)	
	50세이상	16.1	29.0	32.3	9.7	12.9	100(31)	
자녀 교급	아동	16.8	41.6	19.5	15.0	7.1	100(113)	12.192
	중학생	13.2	37.1	22.6	18.2	8.8	100(159)	
	고등학생	10.7	29.9	22.0	25.2	12.1	100(214)	
학력	중졸이하	12.5	16.7	33.3	12.5	25.0	100(24)	11.460
	고졸	12.3	35.3	20.8	21.9	9.7	100(269)	
	대졸이상	14.4	36.7	20.7	19.7	8.5	100(188)	
직업	유	12.8	33.2	22.2	21.0	10.8	100(343)	2.270
	무	13.3	39.2	20.3	19.6	7.7	100(143)	

<부표 Ⅲ-3-23> 서머타임제 시행 시 점심식사시간이 당겨질 필요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연령	30대	7.2	18.4	25.6	43.2	5.6	100(125)	5.943
	40대	6.5	22.8	28.0	35.7	7.1	100(325)	
	50세이상	0.0	27.3	33.3	33.3	6.1	100(33)	
자녀 교급	아동	8.4	24.4	26.1	33.6	7.6	100(119)	6.246
	중학생	6.3	21.3	24.4	42.5	5.6	100(160)	
	고등학생	4.5	21.5	31.4	36.3	6.3	100(223)	
직업	유	6.8	22.6	29.1	35.3	6.2	100(354)	3.847
	무	4.1	20.9	25.0	43.2	6.8	100(148)	
가구 소득	200만원이하	4.0	13.0	36.0	41.0	6.0	100(100)	12.059
	201~400만원	7.2	22.1	26.9	38.5	5.3	100(208)	
	401만원이상	6.9	28.5	21.5	36.9	6.2	100(130)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김경아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리더십개발원 교수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청소년복지 전공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여가연구센터장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집필진 ◆

김정주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소장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전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중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아·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아·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 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수시과제)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

인 쇄 2010년 2월 28일

발 행 2010년 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이 명 숙

등 록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858-8(93330)